



발 간 사

의학학술지 및 의학 관련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 또는 대학을 회원(단체)으로 하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이하 의편집으로 약칭)가 설립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보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난날의 잘잘못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편집 발전사를 집필하기로 하였고,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이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과 함께 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10년’ (이하 발전사로 약칭)이란 제목의 의편집 발전사를 출간하게 되었기에 그 기쁨을 모든 회원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창립발기인 모임을 준비하던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록이 각종 회의록과 소식지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를 가리키는 영어 낱말 history는 ‘조사, 정보, 지식’이란 뜻의 그리스어 (ιστορια)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 낱말은 ‘지식’, ‘판단’, ‘전망’, ‘지혜’를 뜻하는 낱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역사’라는 낱말에는 과거를 조사하여 현재를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지혜를 쌓는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1996년 2월 태동한 의편집은 현재 단체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을 합쳐 회원 수 200이 넘는 협의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의편집의 설립목적은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의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의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협의, 의학학술논문 작성법 및 심사에 관한 교육, 의학학술지 평가와 평가방법 개발, 우리나라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과 국제화, 연구와 출판에 관한 윤리,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발전상입니다. 독자들은 10여 년 전과 비교하여 어떤 면에서 얼마만큼 나아졌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일 매일이 크고 작은 변화의 연속이지만 ‘KoreaMed’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발판으로 학술정보의 국제화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이고 성과입니다.

돌이켜보면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전반적인 수준이 10년 전보다 향상되었다는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편협이 창립 초기부터 학술지평가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학술지를 선별하여 초록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편협의 창립목적과 활동은 학술지 발행인과 편집인들로 하여금 학술지의 가치와 역할에 관한 인식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스스로 학술지 발전방안을 강구케 하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학술지 발행인과 편집인은 물론 논문저자도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많이 잊히고 인용되게 하는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학술진흥재단도 학술지평가를 시작하였지만 학술지 발행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했던 점은 의편협 학술지평가의 목적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와 의편협 발전의 밑바탕에는 실로 많은 분의 덕과 헌신적인 공이 있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척박한 여건 속에서 의편협의 필요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원해주신 대한의학회의 김영명, 지제근, 고윤웅 및 김건상 회장의 덕과 선배 동료 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술지를 사랑하고 그 발전을 위해 서로 격려하며 따라주신 회원 여러분의 협조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편협은 이제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하던 초창기를 마감하고 중흥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의편협과 KoreaMed,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는 KoMCI는 이미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에게까지도 성공적인 모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긍지를 갖게 하였으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사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의학학술정보에 관한 압축 성장을 이루게 한 바로 그 핵심에 의편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편협은 우리 모두가 자랑하고 아껴야 하는 가치가 된 것입니다. 변화의 폭은 갈수록 더 커지고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의편협 회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겠다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회원들이 지난 10년을 교훈삼아 미래를 전망하고 도전한다면 이룩해내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협회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끔 편찬위원회를 이끌어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시고
정확하고 명료한 발전사를 편찬해주신 조승열 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편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분야별 집필을 맡아 또 한 번 희생을 감내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리고 편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한의학회와 의편집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8년 1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박 찬 일



축사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과 함께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10년”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는 1996년 2월에 우리나라의 의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태동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자랑스러운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의 한국 의학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 사업은 학술지 평가로 이어졌고, 이어서 학술 정보의 공유를 위한 목표는 KoreaMed와 KoMCI라는 DB의 구축으로 이어졌으며, KoreaMed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관리 기술을 선취하여 KoreaMed Synapse의 구축과 PubMed Central 등재 사업으로 창의적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속의 지식정보 제공과 관리의 주체로서 서태평양지역 Index Medicus (WPRIM)의 구축과 아시아태평양 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APAME)의 창립 및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의 길지 않은 세월에 이와 같은 눈부신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동안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개인회원 등 모든 분들의 창의적 열정과 헌신, 회원 학술지의 편집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대한의학회의 적극적 지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전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하여 “의편집 10년사 발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간을 완성한 조승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은 의편집 발전의 역사에 중심에 있었으며, 이 책자를 통하여 의편집의 현재를 있게 한 과거를 비춤으로써 추구하여야 할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자의 발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축하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제5대 회장 임정기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과 함께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10년

사진으로 보는 의편집





정보관리위원회 워크숍(2003. 02. 12)



2003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숍(2003. 03. 25)



2003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숍(2003. 03. 25)



KoreaMed 논문 편수 45,000건 돌파 기념연(2003. 04. 30)



2004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숍(2004. 03. 28)



2004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숍(2004. 03. 28)



2005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숍(2005. 03. 29)



2005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숍(2006. 03. 28)



WHO/WPRO에서 과건한 실무자 교육(2006. 06. 19-30)



WHO Library and Information Networks for Knowledge의 책임자 Yvonne Grandbois와의 간담회(2006. 08. 23)



2006년도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워크숍(2006. 09. 06)



2006년도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워크숍(2006. 09. 06)



2007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숍(2007. 03. 27)



2007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숍(2007. 03. 27)



2007년도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워크숍(2007. 07. 10)



2007년도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워크숍(2007. 07. 10)



2007년도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워크숍(2007. 07. 10)



DOI, CrossRef, PMC XML 워크숍(2007. 07. 25)

의편협 설립과정과 초기 의편협 사업

박찬일

편집인협의체 설립 이전의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1995년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의학학술지는 224종이었다. 그 중 전문학술지가 32종, 세부전문학술지가 기초의학 계열 28종과 내과학 계열 20종을 포함한 88종이었고, 의과대학학술지 및 논문집이 28개 의과대학에서 발행되는 31종이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대한의사협회지와 대한의학회의 *J Korean Med Sci* 같은 각종 협회 발행학술지가 19종, 병원기관지 17종, 기타 국립 및 사립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가 31종, 군진의학학술지가 3종, 그리고 상업적 의학학술지가 3종(최신의학, 중앙의학, 진단과 치료)이었다. 이와 같이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의학학술지의 양은 결코 적지 않았으나 저명한 국제색인지인 Medline에 등재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는 5종(*J Korean Med Sci*, *Korean J Intern Med*, *Korean J Ophthalmol*, *Korean J Parasitol*, *Yonsei Med J*)에 불과하였고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의학학술지는 하나도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의학학술지 중에 ‘철저한 상호심사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논문을 선별하여 게재하는 학술지가 얼마나 있을까?’, ‘발행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학술지가 얼마나 있을까?’, ‘국제적인 색인지 등재가 미미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를 생각해보았을 때 당시 의학학술지를 다루는 편집인이나 편집 관련자들은 대개 편집권의 부재, 학술지에 대한 발행인의 인식부족, 국내학술지에 대한 저자의 왜곡된 인식 등을 우리나라 의학학술지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투고하거나 교수직 연구자들이 통상 논문의 편수에 따라 평가하는 임용/재임용/승진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투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술지 편집인이 논문심사 제도를 엄정하게 적용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투고되는 논문이 충분치 않아서 편집인이 저자의 사정을 살펴야 하는 저자중심체제일 수밖에 없었고 발행일을 엄격하게 지키기도 힘들었으니 이것이 편집권 부재의 실체이다. 대부분의 발행인(학회장)은 학술지 발행을 그저 학회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여 학술지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고 학회장이 교체될 때마다 편집인이 교체되는 등 편집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논문투고자의 국내학술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우리나라 학술지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 중 하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공의가 투고하는 논문과 논문편수에 따라 평가하는 임용/재임용/승진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교수나 연구자들이 투고하는 논문이 주류를 이루었으니 자신의 논문이 얼마나 읽히고 인용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편집인도 해당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얼마나 인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신경 쓸 형편이 아니었다. 그밖에 편집인을 대상으로 논문심사나 학술지편집에 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없고 논문심사가이드라인이나 편집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권장할 수 있는 주체도 없었으며, 논문작성에 관한 교육이나 출판윤리에 관한 교육도 의학계의 관심 밖이었다. 열악한 출판사 실태도 빼놓을 수 없는 학술지발전의 저해요인이다. 대다수의 학술지 출판사가 잡지의 지면배치, 표와 도형그림의 일관성 유지, 사진의 선명도 개선, 나아가 문안 작성과 수정까지 포함하는 출판업무보다는 투고논문을 모아 인쇄소에 하청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체 설립의 계기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체의 설립은 대한의학회가 1994-1995년도 사업의 하나로써 의학학술잡지 평가기준을 설정하기로 한데서 비롯한다. 의학회는 마침 서울의대 의학교육연수원이 기획한 '의학학술논문의 작성과 심사'에 관한 워크숍을 공동 주관하기로 하고, 참가대상을 의학학술지 편집인과 논문심사위원으로 정하여 공지하였다. 당초 워크숍 참석인원을 21명으로 제한하였으나 의학회 정회원학회와 준회원학회의 학술지편집인 45명이 참석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워크숍이 1995년 3월 24일과 6월 22일 두 차례 개최되었다.

워크숍은 개회사(김영명 당시 의학회 회장/ 김용일 당시 의학교육연수원 부원장)와 일정소개에 이어 '바람직한 의학학술잡지 논문투고규정'에 대한 소그룹별 토의(토의내용 발표: 김성권, 서울의대 내과), '바람직한 투고규정(안)에 의거한 논문 심사'에 대한 그룹별 작업(작업내용 발표: 박병주, 서울의대 예방의학), 그리고 '의학논문작성 및 지도지침 소개'(안윤옥, 서울의대 예방의학)로 구성되었다. 종합토의에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체의 필요성은 소그룹별 토의내용 발표를 맡은 김성권 교수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것이 편집인 협의체가 발족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1995년 9월 당시 의학회 학술담당 부회장(지제근 교수-서울의대 병리학)과 간행이사(박찬일 교수-*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편집인, 연세의대 병리학)는 워크숍에 참석한 학술지 편집인들을 대상으로 의학학술지 편집인들로 구성되는 협의체의 필요성과 구성방법 및 협의체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서면문의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첨부 1> 필요성의 절실함과 시급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의학회는 협의체 설립에 있어서

산파역할을 하고 관련 사업에 재정적 보조를 고려하기로 하면서 간행이사에게 협의체 설립 추진 실무를 위임하였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창립

의학회 간행이사는 설립될 편집인협의체가 다른 사업에 아래(표1)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승열 교수(당시 가톨릭의대, 기생충학), 안윤옥 교수(서울의대, 예방의학), 서정욱 교수(서울의대, 병리학)와 함께 준비위원 역할을 하게 되었다.

표1 편집인 협의체에서 다루어야 할 사업

구분	내용
논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논문 작성에 관한 정기적 연수교육 및 워크숍
논문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문 심사에 관한 연수교육 및 워크숍 논문평가 지침 마련 논문 심사에 관한 software 개발과 편집인들의 교류
학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의학학술지 발행현황 국내 의학학술지의 게재논문 전산화와 Korean Index Medicus SCI, Medline 등재 공동노력 의학학술지 평가기준 마련 국내 의학학술지의 정기적 평가를 통한 학술지의 질적 향상 도모 편집 투고규정 등 학술지 발간에 관한 협의 의학용어 관련 사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sletter 발행 친목과 최신 의학정보 교환 학술지 출판경비 절감 방안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의학학술지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학술지 및 학술지 게재논문이 널리 읽히고 널리 인용되게 하는 것이 편집인협의체의 역할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과 학술지의 질적 수준향상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학술지 게재논문의 데이터베이스보다 논문 작성 및 심사에 관한 교육과 학술지 평가에 무게를 두었다. 회칙 초안을 작성한 이들은 1996년 2월 22일 대한의사협회 5층 회의실에서 의학학술지 편집인의 협의체 설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 겸 창립총회를 주선하기에 이르렀다. 의학회 김영명

회장, 지계근 부회장, 박찬일 간행이사, 조승열 교수, 안윤옥 교수, 서정욱 교수, 의학회 정회원학회 또는 준회원학회 학술지 편집인 31명, 의과대학 학술지 편집인 13명, 의학 관련연구소 잡지 편집인 1명 등 총 51명이 참석하였다.

창립총회 성격인 이 모임에서는

1. 회칙 초안을 심의하여

- ① 협의체의 공식명칭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로 정하였고,
- ② 의편집 사업을 심의하여 성안하였으며(표2),

표2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사업

초 안	심의 후 성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의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협의 • 국내 의학학술지에 관한 조사사업 • 의학학술지의 평가기준 개발 및 평가사업 • 의학 학술논문 평가기준 개발 • 의학 학술논문의 작성법 및 심사에 관한 정기적 교육 • 기타 우리나라 학술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협의 • 의학학술지에 관한 조사 및 평가사업 • 의학학술논문 평가방법 개발 • 의학학술논문의 작성법 및 심사에 관한 정기적 교육 • 학술지편집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와 관련된 사업 • 기타 우리나라 학술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③ 전문회원을 개인회원으로 개칭하였고,
 - ④ 집행위원회와 기획평가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두기로 했던 초안을 ‘이 협의회는 기획평가위원회, 정보관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며, ……」로 보완함으로써 학술지 게재논문의 데이터베이스가 협의회의 중요 사업이 되어야 함을 부각하였다.
2. 박찬규 교수(Yonsei Medical Journal 편집인, 연세의대 산부인과)를 회장으로, 오양효 교수(부산의대잡지 편집인, 부산의대 미생물학)와 조경삼 교수(대한내과학회지 편집인, 경희의대 내과)를 감사로 선출하였으며,
3. 이미 학술지 편집,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학술정보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역량이 인정되는 7명[조승열 교수, 안윤옥 교수, 서정욱 교수, 김성권 교수(서울의대 내과), 김원옥 교수(연세의대 마취과), 김수녕 교수(건국의대 산부인과), 허 선 교수(한림의대 기

생충학)]을 개인회원으로 추천받아 이를 인준하였다.

4. 서정욱 교수로부터 FASEJ (Finish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and Journalists)에 관한 소개가 있었다.

의편협 창립 후 첫 번째 정기총회

창립총회에서 성안한 회칙(안)에 따라 1996년 정기총회가 3월 28일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학술지를 발행하는 의학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 학회와 의과대학을 포함한 132개 학술지 편집인을 초청하였으나 회의에는 51개 학술지 편집인과 개인회원 5명이 참석하였고, 51개 학술지의 편집인은 그 자리에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였다(첨부 2).

1996년 첫 번째 정기총회에서는

1. 회칙을 축조심의를 한 후 인준하고(첨부 3),
2. 지계근 의학회 부회장을 개인회원으로 추천받아 인준하였으며,
3. 박찬규 회장이 기획평가위원회, 정보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동의한 조승열 교수(개인회원), 안윤옥 교수(개인회원), 박찬일 교수(의학회 간행이사)를 각각 인준하고, 각 위원회의 간사 위촉과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4. 1996년-1997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의하고
 - ① 국내 의학학술지 homepage 제작사업
 - ② 의학학술지 평가기준 설정
 - ③ 논문투고규정/심사/편집 model 개발사업
 - ④ 학술지 발간비용 절감 공동노력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5. 공식절차를 밟아 단체회원가입 신청을 받고, 단체회원의 연회비를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두 차례(1996년 5월 29일과 8월 16일)에 걸쳐 단체회원 가입을 안내(첨부 4)한 결과 단체회원으로 가입한 학술지의 수는 의편협이 설립된 그해에 이미 102종에 달하였으며(표3), 도서출판 아카데미와 의학문화사가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는데 동의하였다.

표3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창립 당해 회계연도의 단체회원 가입 학술지 현황

	단체회원 수	구 분
1996년 7월 15일	71종	
1996년 7월 20일	80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회 정회원학회 학술지 31 • 의학회 준회원학회 학술지 27 • 의학회 미가입학회 학술지 5 • 의과대학 또는 연구소 학술지 17
1996년 8월 6일	8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회 정회원학회 학술지 35 • 의학회 준회원학회 학술지 27 • 의학회 미가입학회 학술지 5 • 의과대학 또는 연구소 학술지 17
1996년 9월 18일	98종	
1996년 11월 20일	102종	대한의사협회지 <i>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회 정회원학회 학술지 37 • 의학회 준회원학회 학술지 37 • 의학회 미가입학회 학술지 6 • 의과대학 또는 연구소 학술지 20
1996년 12월 18일	104종	
1997년 2월 26일	105종	대한의사협회지 <i>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회 정회원학회 학술지 39 • 의학회 준회원학회 학술지 38 • 의학회 미가입학회 학술지 6 • 의과대학 또는 연구소 학술지 20

창립초기 의편집의 조직과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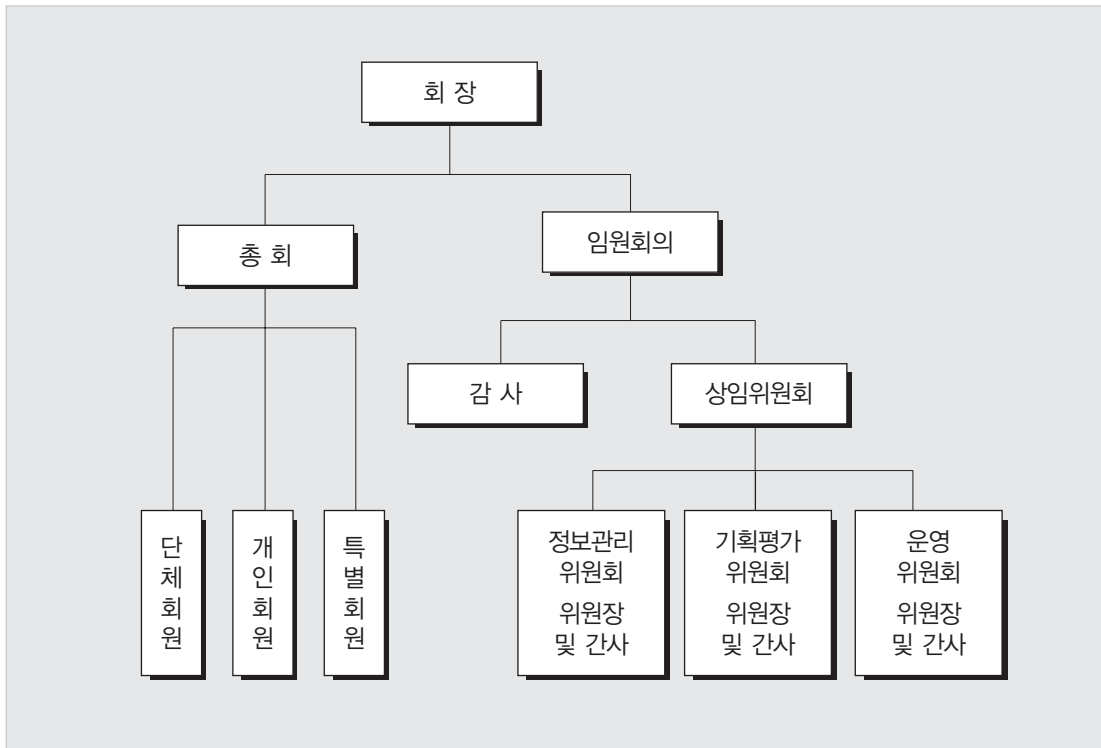
총회 결의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각 상임위원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운영위원장이 추천받은 위원명단을 검토하고 중복추천을 조정하여 표4와 같은 3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표4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제1기 위원회

정보관리위원회	기획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안윤옥 (예방의학, 서울의대) ^a *허 선 (기생충학, 한림의대) ^b 구범환 (외과학, 고려의대) *김수녕 (산부인과학, 건국의대) 김용식 (약리학, 서울의대) *김원옥 (마취과학, 연세의대) 문대혁 (핵의학, 울산의대) 이수정 (신경정신과학, 가톨릭의대)	*조승열 (기생충학, 가톨릭의대) ^a *서정옥 (병리학, 서울의대) ^b 강대영 (병리학, 충남의대) ¹ *김성권 (내과학, 서울의대) 김성덕 (마취과학, 서울의대) 이홍균 (산부인과학, 인제의대) 정사준 (소아과학, 경희의대) 조경삼 (내과학, 경희의대) 함창국 (방사선의학, 한양의대) 홍원표 (이비인후과학, 연세의대)	박찬일 (의학회, 연세의대) ^a 송경순 (지혈혈전학, 연세의대) ^b 김의중 (임상병리학, 서울의대) 백광진 (생화학, 중앙의대) 백영홍 (약리학, 전남의대) ¹ 서창욱 (치료방사선과학, 연세의대) 원남희 (병리학, 고려의대) 이철현 (피부과학, 한림의대) 홍성태 (기생충학, 서울의대)

*: 개인회원, a: 위원장, b: 간사, 1: 의과대학 잡지 편집인.

표5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제1기 조직도



협의체로서의 틀을 갖춘 의편집은 1996년도 제1차 임원회의(6월 11일)를 개최하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회의에는 회장과 감사, 그리고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 제1기 임원회의 구성원 9명 전원이 참석하였다(표5)(제2기에는 부회장과 교육연수위원회가 신설되고 제4기에는 출판윤리위원회가 신설됨). 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단체회원의 연회비를 10만원으로 정하고 특별회원에게는 연 50만원의 찬조로 의편집 사업에 기여하도록 권유하기로 하였으며, 1차 연도부터 추진하기로 한 「국내 의학학술지 Homepage 제작사업」, 「의학학술지 평가기준 설정」, 「논문투고규정/심사/편집 model 개발사업」, 「학술지 발간비용 절감 공동노력」 등을 확인하고 해당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과 결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획평가위원회는 「의학학술지 평가기준 설정」 이외에도 의학학술지 조사사업, 그리고 학술지평가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교육, 편집인과 실무자를 위한 교육을 사업계획으로 제안하였다.
2. 학술지 내용을 필요로 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내 의학학술지 Homepage 제작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관리위원장의 제안이 있었으며, 우선 Mednet Korea와 협의하여 추진하되 이해득실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3. 운영위원회는 ① 회칙에 단체회원 신규가입에 관한 항을 추가하기로 하고, 단체회원 자격에 대한 세칙 시안을 만들기로 하였으며, ② 협의회 logo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4. 그 밖에 'Medical Writing and Editing'의 주제로 싱가포르에서 10월에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APSEA)에 대한 서정욱 기획평가위원회 간사의 소개가 있었고, 참가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의편집 창립초기의 사업추진

제1차 및 제2차 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별로 해당 사업에 착수하였다. 운영위원회는 단체회원 자격에 대한 세칙 시안(첨부 5)을 만들었고, '대한' 과 '의학' 과 '학술지' 의 의미를 내포하는 의편집 logo(첨부 6)를 제작하였으며, 의편집 News letter를 발행하기로 하여 8월 20일 제1호를 발행하였다(발행인: 박찬규 회장, 편집인: 박찬일 운영위원장). 한편, 국제적인 편집인협의회에도 관심을 갖기로 하면서 WAM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에 가입하였으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PSEA meeting에 의편집을 대표하여 3개 상임위원회 간사(송경순, 서정욱, 허 선)가 참가하였다. 정보관리위원회와 기획평가위원회도 각각 7월 10일과 15일에 첫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업추진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제1차 정보관리위원회는 조신히텔 Ninth Gate에서 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편협 회장, 운영 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간사가 배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에 담긴 학술정보를 국내와 국외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학술지누리집(homepage)을 만들기로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 학회(단체회원)에서 1명씩 참가하여 학술지누리집 제작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그 첫 번째 워크숍이 1996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각 학회로부터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림의대에서 열렸다. 의편협 자체의 누리집을 만드는 동시에 워크숍에서 발의된 제안에 따라 각 학회 편집위원회가 학술지누리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지속하였다. 또한 정보관리위원회는 1997년 3월 26일 총회에 앞서 개최되는 워크숍에서 ‘학술지누리집 운용’을 주제로 정하고 시범학회로 선정한 대한기생충학회(허 선 위원)가 실제 운용에 대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표6 제1차 기획평가위원회 제안사항

제안 사항	제안자
• 학회가 시행하는 편집인을 위한 워크숍에 협의회가 강사진을 구성해주면 좋겠다.	최 훈 교수(이홍균 위원 대리)
• Reference, Abstract 등을 쓰는 방법의 기준 등 구체적인 일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 외국 학술지의 format이 발전적으로 변천하는 것에 상응하는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성권 위원
• 현황조사사업이 필요하다.	조승열 위원장, 김성권 위원, 정사준 위원
• 학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면 안 된다.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김성덕 위원
• 학술지 여건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은 없을까?	박찬일 운영위원장
• 학술지의 format을 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함창곡 위원
• 편집인의 희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 편집에 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서정옥 위원
• 평가가 individualize 되어야 한다. • 국내학술지는 각 분야에 하나씩이므로 비교 상대가 없다. 따라서 평가기준도 편집이나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일 수밖에 없다.	조승열 위원장
• 개업의사가 많은 학회의 잡지는 종설이 오히려 필요한 현실임을 감안하여 종설 위주와 학술 위주로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도 있다. • 국제화에 맞추어 외국에 논문투고를 장려하는 입장에서 국내 학술지의 위치가 모호해지고 있다.	김성권 위원

제1차 기획평가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회의실에서 열렸고, 조승열 위원장과 서정욱 간사, 그리고 강대영, 김성권, 김성덕, 이홍균(최 훈 교수가 대신 참석), 정사준, 함창곡 위원이 참석하였고 의편협 회장과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간사가 함께하였다. 서정욱 간사가 기획위원회 활동계획을 소개하고 조승열 위원장이 작성한 학술지 평가기준(안)과 서정욱 간사가 작성한 기획위원회 활동계획(안)에 관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제안(표6)이 있었다.

9월 16일에 열린 제2차 기획평가위원회에서는 ①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기준(안)을 보완하고(첨부 7 참조), ② 국내 의학학술지 현황을 조사하여 학술지 평가와 학술지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삼기로 결의하였으며, ③ 1997년 3월 26일 총회에 앞서 개최되는 워크숍 주제를 ‘국내의학학술지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김성권 회원 발표)과 ‘국내 의학학술지 현황조사결과’ (서정욱 회원 발표)로 결정하였다.

창립총회, 1996년도 정기총회, 임원회의와 상임위원회, homepage제작 워크숍, 의편협 심볼과 편지지 및 봉투 제작, 소식지 발행, 아시아태평양 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싱가포르) 참가 등 창립초기 사업비는 102개 단체회원의 연회비와 의학회로부터의 지원금, 그리고 워크숍 참가비로 충당하였다(표7).

표7 1996년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결산(1996년 12월 17일 현재)

(단위: 원)

수 입		지 출	
대한의학회 지원금(1995년도 분)	10,000,000	의편협 창립 준비	1,700,000
대한의학회 지원금(1996년도 분)	10,000,000	회의비(정기총회, 임원회의, 상임위원회)	5,512,995
단체회원 연회비(1996년)	10,200,000	의편협 심볼 제작, 편지지 및 봉투 인쇄	2,722,000
Homepage 워크숍 참가비	1,260,000	Homepage 워크숍 경비	3,200,000
		의편협 소식지(제1, 2호) 발행	260,000
기타	60,000	APSEA 총회(싱가포르) 참가 보조 (송경순, 서정욱, 허 선)	1,680,000
		제반 서류 발송비	709,160
		수용비(직인, 인감도장 등)	195,000
		차기이월*	15,540,845
	31,520,000		31,520,000

*1996년 12월 17일 - 1997년 3월 26일: 소식지 제3호 발행, 1997년 정기총회 등에 소요된 비용이 962,775원이므로 실제 1997회계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14,578,070원임.

표8 의편협 창립 초기 사업추진 성과

제 목	요 약	일시, 장소
소식지 발행	제4호-제7호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의료정보분야)에 연구비 지원신청	제목: '누리그물에서 우리나라 학술문헌정보 검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목적: 한국메드라인 구축을 위한 사업비 조달(미선정)	'97. 3
의학학술지 시범평가	시범평가 희망학술지 15종 중 6종 선정하여 26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註 1, 2]	'97. 8. 27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국메드라인 사업 설명회	1) 한국메드라인 사업추진 2) 퍼브메드 가입 추진	'97. 8. 27 서울교육문화회관
누리그물주소 결정	KoreaMed.kma.or.kr (서버를 대한의사협회에 설치 예정)	'97. 9
"온네트"와 학술지 정보 공급 계약	사업비 총 14,500,000원(서버구축, 플그림 제작, 입력, 서버관리 비용포함) [註 3]	'97. 9
국제회의 참석	Czech Prague에서 열린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Biomedical Peer Review and Global Communication' 참석(조승열 기획평가위원장)	'97. 9 (17일-21일)
학술지 평가기준 개정	시범평가 및 결과발표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총 33개 평가항목으로 보완 [註 4, 5]	'97. 9. 23
학술진흥재단 주최 국내학술지 평가기준에 대한 공청회 참가	1) 학술지 평가의 배경, 사례 및 평가항목 개발에 관한 연구 2) 학술지 평가항목 및 기준 모형에 관한 연구	'97. 11. 4
제1회 학술지 평가회	시범평가를 받은 6종을 포함한 12종의 학술지를 평가	'97. 11. 5 의협 회의실
영문초록 제공에 관한 계약	한국메드라인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단체회원과 영문초록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97. 11
KoreaMed 탄생	1) KoreaMed 등재규정 제정 2) 14개 학술지(이미 Medline에 등재된 학술지 5종과 제1차 학술지 평가회에서 KoreaMed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9종) 논문의 초록 및 서지사항 약 3,000건 입력 [註 6]	'97. 12. 31
학술 논문 심사에 대한 Panel 토의	논문심사 제도 및 운영 /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의 역할 / 논문심사의 원칙 / 통계 심사 / 게재 거부된 논문의 특징 / 심사위원으로서의 경험 / 편집위원으로서의 경험	'98. 2. 7 서울교육문화회관

[註 1] 시범평가대상 학술지 6종은 가정의학회지, 대한방사선의학회지, 대한병리학회지, 대한비뇨기과학회지, 대한신경과학회지, 대한피부과학회지임.

[註 2] 시범평가는 1996년 9월 16일 제정된 의학학술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 실행(안)의 총26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편집인이 관리하는 기록이나 경험을 이용하여 답하는 13개 자체평가항목(주로 행정/운영에 관한 사항)/ II, 평가단 위원 개개인이 평가대상 학술지를 보고 평가하는 10개 실물평가항목(주로 편집 상태에 관한 사항)/ III, 협의회가 직접 조사하는 3개 협의회조사항목(도서관 비치현황, SCI 인용횟수 및 메드라인 등재여부).

[註 3] 누리그물 '한국메드라인' 구축을 위해 정보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실행예산은 서버 구입비 5,000,000원, 플그림 제작비 5,000,000원, 입력비 2,000,000원, 서버 관리비 2,500,000원을 포함한 총 14,500,000원임.

[註 4] 개정된 학술지 평가기준의 33개 평가항목은 14개 자체평가항목, 13개 실물평가항목, 6개 협의회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협의회조사항목에 도서관 비치현황, 메드라인 등재여부, SCI 인용횟수 이외에 자체 학술지인용비율, 주요 국제 전문초록지 등재여부 및 출판 이후 3년 동안 SCI에 1회 이상 인용된 논문 편수를 추가함.

[註 5] 협의회조사항목의 개발과 평가대상 학술지에 대한 조사 및 평가는 시범평가부터 지금까지 이춘실 회원(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998년 정기총회에서 의편협 개인회원으로 위촉)이 맡아서 수행하고 있음.

[註 6] KoreaMed에 처음으로 등재된 14개 학술지는 *Korean J Intern Med*, *J Korean Med Sci*, *Korean J Parasitol*, *Yonsei Med J*, *Korean J Ophthalmol*, 대한병리학회지, 대한비뇨기과학회지, 대한신경과학회지, 감염, 대한피부과학회지, 가정의학회지, 대한방사선의학회지, 대한임상병리학회지, 대한마취과학회지임.

의편집 창립초기의 사업성과

창립 이후 약 1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치고 1997년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과 사업예산(사업비 18,000,000원을 포함하여 약 3천 7백여만 원) 인준을 받은 의편집은 여러 방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다. 1997회계연도가 끝나는 1998년 3월에 단체회원이 이미 113개 학회와 의과대학으로 늘었고 개인회원도 9명이 되었으며, 3개 출판사(아카데미아, 의학문화사, 중앙의학)가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여기에 1997회계연도에 이룩한 성과를 열거함으로써(표8) 초기 사업추진에 관한 기록을 맺고자 한다. 그 이후 주요활동은 첨부 8에 요약하였다.

〈첨부 1〉

의학학술지 편집인 모임의 필요성에 대한 서면문의 및 결과

문 항	결 과
의학학술잡지 편집인(간행이사) 또는 편집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모임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22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모임의 형태는?	a) 학술단체(학회) 0 b) 협의체 18 c) 대한의학회 간행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6
협의체 성격의 형태를 선호하시는 경우 구성은?	의학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와 의과대학을 포함한 의학학술단체의 편집인(간행이사)들로 구성 15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편집인(간행이사)들로만 구성 6
어떠한 형태/구성이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주요사업 (3가지 이내)을 간략하게 적어주십시오.	생략
선생님의 소속 학회와 학회 내 status를 적어주십시오.	생략

a) 의학학술잡지 편집, 간행, 발행에 관심을 가진 개개인이 회원이 되는 학회의 성격(개인회원)

b) 의학학술지를 발간하는 단체(기관)들의 협의체(기관 또는 단체회원)

c) 협의체와 비슷하나 대한의학회 간행위원회 산하에 두어 대한의학회와 유기적 관계 유지

〈첨부 2〉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창립에 참여한 51개 단체회원 목록

● 대한의학회 정회원학회(27)

	잡지명	단체명	출판사명	편집인명	연간발행횟수
1	<i>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i>	대한생리학회	의학문화사	박 병 립	2
2	대한병리학회지	대한병리학회	의학문화사	원 남 희	12
3	대한약리학회지	대한약리학회	의학문화사	김 명 석	3
4	예방의학회지	대한예방의학회	일봉출판사	박 정 한	4
5	대한내과학회지	대한내과학회	의학문화사	조 경 삼	12
6	소아과	대한소아과학회	의학문화사	정 사 준	12
7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대한산부인과학회	중앙의학	이 홍 균	12
8	신경정신의학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앙문화사	백 인 호	6
9	대한흉부외과학회지	대한흉부외과학회	고려의학	양 기 민	12
10	대한성형외과학회지	대한성형외과학회	진단과치료사	신 극 선	6
11	대한안과학회지	대한안과학회	최신의학사	신 경 환	12
12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중앙문화사	홍 원 표	12
13	대한피부과학회지	대한피부과학회	예술문화사	이 철 현	6
14	대한비뇨기과학회지	대한비뇨기과학회	서흥출판사	최 황	12
15	대한방사선의학회지	대한방사선의학회	성문각	함 창 곡	12
16	대한마취과학회지	대한마취과학회	의학문화사	김 성 덕	12
17	대한재활의학회지	대한재활의학회	의학문화사	한 태 룬	4
18	대한신경과학회지	대한신경과학회	최신의학사	김 범 생	4
19	대한치료방사선과학회지	대한치료방사선과학회	의학문화사	서 창 옥	4
20	대한임상병리학회지	대한임상병리학회	최신의학사	김 의 중	6
21	대한나학회지	대한나학회	대성인쇄소	채 규 태	2
22	대한면역학회지	대한면역학회	서흥출판사	정 용 훈	4
23	대한소화기학회지	대한소화기학회	의학출판사	김 창 덕	6
24	대한핵의학회지	대한핵의학회	의학문화사	최 창 운	1
25	알레르기	대한알레르기학회	삼두문화인쇄소	문 희 범	4
26	대한화학요법학회지	대한화학요법학회	예술문화사	신 완 식	2
27	대한초음파의학회지	대한초음파의학회	고려의학	정 규 병	2

● 대한의학회 준회원학회(12)

	잡지명	단체명	출판사명	편집인명	연간발행횟수
1	대한구급의학회지	대한구급의학회	의학문화사	고 신 욱	2
2	대한미세수술학회지	대한미세수술학회	최신의학사	오 석 준	1
3	대한류마티스학회지	대한류마티스학회	최신의학사	유 명 철	2
4	대한의학레이저학회지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의학출판사	이 규 완	1
5	대한외상학회지	대한외상학회	최신의학사	정 관 호	2
6	생물정신의학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중앙문화사	이 민 수	2
7	대한통증학회지	대한통증학회	영진문화사	윤 덕 미	2
8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중앙문화진수출판사	김 재 욱	2
9	항공우주의학	한국항공우주의학회	동문사	이 용 호	4
10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의학문화사	안 둔 희	2
11	대한신생아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	의학문화사	이 철	2
12	대한수면정신생리학회지	대한수면정신생리학회	중앙문화사	정 영 조	2

● 대한의학회 미가입학회(3)

	잡지명	단체명	출판사명	편집인명	연간발행횟수
1	한국의학교육학회지	한국의학교육학회	의학출판사	김 세 종	2
2	정신분석	한국정신분석학회	중앙문화사	한 지 희	1
3	한국역학회지	한국역학회	최신의학사	이 원 철	2

● 의과대학(9)

	잡지명	단체명	출판사명	편집인명	연간발행횟수
1	경북의대잡지	경북의대	정각당	이 영 하	4
2	단국의대학술지	단국의대	단웅미디어	이 원 기	2
3	<i>Yonsei Medical Journal</i>	연세의대	의학문화사	박 찬 규	6
4	영남의대학술지	영남대학교기초, 임상연구소	성문식자인쇄소	허 영 수	2
5	인제의학	인제의대		정 영 조	4
6	전남의대잡지	전남대학교의과학연구소	전남대학교출판부	백 영 홍	2
7	<i>Chonnam Journal Medical Science</i>	"	"	"	2
8	충남의대잡지	충남의과대학	제일문화사	강 대 영	2
9	충북의대학술지	충북의대의학연구소	명문사	이 상 전	2

〈첨부 3〉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회칙

제정 : 1996. 3. 28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협회의 명칭은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회(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이하 협회로 약칭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협회는 의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에 관한 규정을 협의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의학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협회의 소재지) 협회의 사무실은 대한의학회 사무실에 둔다.

제4조 (사업)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의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협의
2. 의학학술지에 관한 조사 및 평가사업
3. 의학학술논문 평가방법 개발
4. 의학학술논문의 작성법 및 심사에 관한 정기적 교육
5. 학술지 편집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업
6. 기타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 (회원) 협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정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1. 단체회원이란 의학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와 의과대학 및 기타 의학학술단체를 말한다.
2. 개인회원이란 의학 학술지 편집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특별회원이란 이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사업지원을 통하여 협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또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6조 (회원의 선임)

1. 단체회원은 해당 단체의 학술지 편집인(편집위원장 또는 간행이사)을 파송하며, 임기는 해당 단체의 학술지 편집인 재직기간으로 한다.
2. 개인회원은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하며, 5년마다 회원자격을 갱신한다.
3. 특별회원은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정회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나 개인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특별회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2. 2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단체회원은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임원) 협의회는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3. 제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씩

제9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해당 단체의 편집인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원의 임기는 유효하다.

제10조 (위원회)

1. 협의회는 기획평가위원회, 정보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어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5-1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해당 단체의 편집인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3장 총회 및 임원회의

제11조 (개최)

1. 협의회 정기 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의장) 협의회 회장은 총회와 임원회에서 의장이 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아래의 각항을 심의 의결한다.

- | | | |
|---------|---------|------------|
| 1. 회칙변경 | 2. 사업계획 | 3. 예산 및 결산 |
| 4. 임원선출 | 5. 회원인준 | 6. 기타 |

제14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과반수 회원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는 간주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장 상임위원회

제15조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며,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6조 (상임위원회의 업무)

1. 기획평가위원회는 학술논문과 학술잡지에 관한 평가, 교육, 개발 등의 제반사항을 기획하고 결정한다.
2. 정보관리위원회는 학술논문과 학술잡지에 관한 조사사업, 등록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운영위원회는 회계 및 회원자격심사에 관한 업무와 기획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 등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장 회 계

제17조 (수입) 협의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는 총회에서 정한 단체회원의 연회비, 의학 관련단체의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회계연도)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총회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1. 이 회칙의 효력은 총회의 의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첨부 4〉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우 140-03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전화 (02)798-3807 /전송 (02)794-3148

문서번호 : 의편집 제 96-4 호

시행일자 : 1996. 5. 29.

수 신 : 각 학회장(의과대학장)

참 조 : 학회지(의과대학잡지) 편집위원장, 간행이사

제 목 : 단체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에 관한 건

우리나라의 의학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나누어야 할 의학정보의 양적인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의학과 관련된 잡지의 종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의학학술지의 양적인 증가에 상응하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구성을 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의학회의 주선으로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서 의학학술지를 발행하는 여러 단체들로부터 파송된 편집인들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이하 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회의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안)을 축조심의하고 회칙에 의거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 바 있습니다.

이제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협의회를 시작하고자 하며, 그에 앞서 귀기관이 단체회원(첨부 1. 회칙 참조)으로서 본 협의회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요청하오니 이를 수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첨부 2. 회신용 수락서를 우편 또는 FAX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울러 협의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는 본 협의회 발족을 주선한 대한의학회 지원금(연간 1,000만원) 등과 단체회원의 연회비(10만 원)로 충당코자 하오니(회칙 제17조) 1996년도 회비를 본 협의회 운영위원장(대한의학회 간행이사)에게 on-line 입금하여 주시기를 양망합니다(국민은행, 계좌번호 803-01-0202-671, 예금주: 대한의학회).

감사합니다.

- 별 첨 : 1.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회칙 1부.
- 2. 단체회원 가입 수락서 1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회장 **박 찬 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단체회원 가입 수락서

본 기관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수락합니다.

단체명		
잡지명	국문	
	영문	
연간발행횟수		
협의회 파송 편집인 (또는 간행이사) 성명		

20 년 월 일

_____ 학회장 또는 의과대학장

(직인)

보내실 곳: **대한 의 학 회**

140-03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TEL : 02-798-3807, 02-361-5254

FAX: 02-794-3148

〈첨부 5〉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단체회원 자격에 관한 세칙

제정 : 1996. 9. 18

제1조 본 협의회(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의 단체회원은:

1.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학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학회, 의과대학 및 의과대학 부설 연구소 중,
2. 의학학술잡지를 발행하는 단체로서
3. 본 협의회 가입을 수락하고(KAMJE 서식1) 회칙에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제1조 1항 이외의 의학학술단체가 본 협의회에 가입하려면:

1. 기존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 단체회원 가입 신청서(대의학편협 KAMJE 서식2)와 해당 단체가 최근 2년간 발행한 학술지를 제출하여
3. 본 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자격심사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단,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본 협의회에 가입한 대한의학회 미가입학회는 회원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자격심사)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단체회원 자격을 심사한다.

1. 해당단체 의학학술지의 연간발행횟수
2. 해당단체 의학학술지의 정기적 발간 여부
3. 해당단체 의학학술지 투고논문에 대한 상호심사체계(Peer Review System) 운용상태
4. 기타 학술지 내용 등의 관련사항

〈첨부 6〉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Logo와 편지봉투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140-03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302-75, Ichon-1-dong, Yongsan-gu, Seoul, Korea
TEL: (02) 798-3807 FAX: (02) 795-3148



〈첨부 7〉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기준 (1996년 9월 16일 초안)

4. 의학학술지 평가의 기준

4.1. 학문적 성과의 판단기준

- 4.1.1. SCI 자료 이용
- 4.1.2. 한국 SCI 개발 지원과 이용
- 4.1.3. Medline 자료 이용

4.2. 학술지 편집에 대한 평가

- 4.2.1. 발행 상황 점검
- 4.2.2. 발행일자 준수 여부
- 4.2.3. 편집인의 임기와 교체 정도
- 4.2.4. 편집위원회 구성과 회의 실적
- 4.2.5. 투고규정이 정한 논문체제와 실제 논문체제와의 차이
- 4.2.6. 이증제재에 대한 평가
- 4.2.7. 제출논문에 대한 심의제도 운영상황
- 4.2.8. 무수정 게재 비율
- 4.2.9. 배척비율
- 4.2.10. 오자의 빈도
- 4.2.11. 영문초록 또는 국문초록 내용 평가
- 4.2.12. 사진의 질 평가
- 4.2.13. 논문의 lay-out 평가
- 4.2.14. 종이의 선택과 인쇄의 선명도

4.3. 학술지 행정체계의 평가

- 4.3.1. 발송처 평가
- 4.3.2. 기타 항목

註. 위 표는 기획평가위원회가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와 관련하여 작성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문제점(1.1. 편집권의 부재/ 1.2. 종합기능의 부족/ 1.3. 행정기능의 미비/ 1.4. 국제화와 국내학술지,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전망(2.1. 세부전문학술지의 발전/ 2.2. 각종 의학학술지의 질적 향상/ 2.3. 종합의 학학술지의 발전), 의학학술지 평가의 필요성과 목적(3.1. 필요성/ 3.2. 목적), 의학학술지 평가기준, 그리고 의학학술지 평가의 실행방안(5.1. 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5.2. 참가대상 의학학술지의 범위/ 5.3. 평가 시기 및 간격) 중 제4항 의학학술지 평가기준임.

의편집 주요활동 요약

서창욱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설립된 것은 대한의사협회 5층 회의실에서 의학학술지 편집인의 협의체 설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 겸 창립총회가 열린 1996년 2월 22일이다. 그러나 의학학술지 편집인들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점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 제기된 것은 그보다 약 1년 전인 1995년 6월 22일 서울의대 의학교육연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학회가 후원한 “논문 작성 및 심사에 관한 워크숍”의 종합토론 자리였다.

창립 직후 의편집은 조직을 완비하고 사업목표 설정과 의학학술지 평가기준 설정, 논문 색인 데이터베이스(KoreaMed) 구축 등 약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가졌다.

그 후 2007년 1월 말까지 약 10년 동안 의편집의 회원은 단체회원(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 158학회, 개인회원(학술지편집이나 학술정보관련 전문가) 29명, 특별회원(학술지 출판이나 학술정보를 다루는 누리그물사업체) 10개 회사로 꾸준히 늘어났고, 1996년 8월 제1호 이후 분기마다 발행하는 의편집 소식지가 현재 제32호의 지령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20회의 평가회를 통해서 평가한 학술지가 139종(32종은 2번 이상 평가)이며, 평가결과 의편집이 설정한 기준을 상회하여 KoreaMed 등재가 승인된 학술지가 119종이다. 등재학술지의 논문 서지사항 및 초록 126,300여 건이 입력되어 국내외에서 찾아볼 수 있고, 특히 KoreaMed 정보를 Naver나 Google 같은 굴지의 누리그물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그 메타데이터베이스를 통한 KoreaMed로의 연결도 가능하며, 대한의학회의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KoMCI) web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KoreaMed의 우수성은 의편집의 학술지평가사업과 함께 국제적으로도 호평을 받게 되어 WHO의 서태평양지역기구가 의학학술지 데이터베이스 통합운영시스템 WPRIM (Western Pacific Regional Index Medicus)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그 모델로 KoreaMed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의편집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업은 논문작성, 학술지편집, 학술논문심사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워크숍을 통한 학술지 수준향상 도모, 그리고 출판윤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설정, 심의 및 교육이다. 현재 KoreaMed 등재학술지 중 Medline 등재 학술지가 13종으로 증가하고, 4종이 SCI(E) 등재된 것은 그동안 의편집이 벌여온 교육활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 논문투고자, 편집인, 논문심사인, 발행인, 출판사 등 모두가 학술지에 대한 인식에 일대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며, 이러한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이 곧 의편집의 출범이었는데 이의를 갖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연도(회계년 기준)	활동 사항	중요 사업
1996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3,28) • 임원회의 4회 • 운영위원회 3회 • 정보관리위원회 1회 • 기획평가위원회 2회 • 워크숍 1회 (의학학술지 homepage 제작) • 소식지 발행(1-3호) • Workshop on Medical Writing & Editing (싱가포르, 10월)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립 총회(1996.2.22) • 단체회원 51, 개인회원 7 • 1기 회장단 출범(회장: 박찬규) • 3개 상임위원회(기획평가, 정보관리, 운영) •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 기준 초안 제정(7.15) • 단체회원 자격에 관한 세칙 제정(9.18) • 의학학술지 현황 조사(1997.3.15) • WAM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가입 • 1997.2. 단체회원 105명
1997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3,26) • 임원회의 5회 • 운영위원회 2회 • 정보관리위원회 4회 • 기획평가위원회 2회 • 소식지 발행(4-7호) • 워크숍 2회(①학술지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국내 학술지 현황조사, ②의학 학술지 평가사업, 한국 메드라인 사업) • 패넬토의 1회(학술논문심사) • 학술지평가회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학술지 시범 평가회 및 한국메드라인 사업실 명회(8,27) • 의학학술지 평가항목 제정(9,23) • 학술지평가회 시작(11,5) • KoreaMed 구축을 위한 사업체 “이원정보통신” 선정(12,12) • KoreaMed 등재 규정 제정(12,12) • KoreaMed 최초서비스 개시(12,31) • International Congress of Biomedical Peer Review and Global Communication (체코 Prague, 9,17-21) 참가
1998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3,31) • 임원회의 5회 • 운영위원회 1회 • 정보관리위원회 0회 • 기획평가위원회 1회 • 학술지평가회 3회(2-4차) • 소식지 발행(8-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3월 • 단체회원 113명, 개인회원 9, 특별회원 3
1999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3,30) • 임원회의 4회 • 운영위원회 2회 • 정보관리위원회 4회 • 기획평가위원회 2회 • 교육연수위원회 2회 • 소식지 발행(11-14호) • 워크숍 3회 개최(①편집인과 논문심사위원의 역할, 학술지평가 결과 분석, ②의학학술지의 질적 향상 도모, ③ 코리아메드 등재 양식과 MeSH 이용) • 학술지평가회 3회(5-7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기 회장단 출범(회장: 함창곡) • 교육연수위원회 신설 • 학술지 평가항목 개정(2차)(1999.7.5) • KoreaMed 구축 사업체를 “한국학술정보”로 변경(1999. 5)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0년

연도(회계년 기준)	활동 사항	중요 사업
2000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3.28) • 임원회의 4회 • 운영위원회 1회 • 정보관리위원회 1회 • 기획평가위원회 2회 • 교육연수위원회 1회 • 소식지 발행(15호) • 워크숍 3회 개최(①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 현황 등 학술지 평가, ② 의학학술지 평가개선, ③ KoreaMed 활성화 방안) • 학술지평가회 2회(8, 9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학술정보” KoreaMed 사업 포기 • 의편협이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와의 협조를 얻어 자체적으로 KoreaMed 구축하기로 함(2001.4).
2001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3.27) • 임원회의 4회 • 운영위원회 2회 • 정보관리위원회 2회 • 기획평가위원회 2회 • 교육연수위원회 1회 • 소식지 발행(16-17호) • 워크숍 2회 개최(① 좋은의학학술지 만들기 등, ② 디지털 자료 저작권 계약 시 주의할 점 등) • 학술지평가회 2회(10, 1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th International Congress on Peer Review in Biomedical Publication (스페인 바르셀로나, 2001.9.14-16) 참가. • 함창곡 회장 WAME 이사로 선임됨(2001.9.15)
2002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3.26) • 임원회의 5회 • 운영위원회 2회 • 정보관리위원회 2회 • 기획평가위원회 2회 • 교육연수위원회 1회 • 소식지 발행(18-20호) • 워크숍 4회 개최(① KoreaMed 활용법, ② 논문 심사, 이중게재, authorship 등, ③ XML 작성, ④ LinkOut 설명회) • 학술지평가회 2회(12, 1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기 회장단 출범(회장: 조승열) • KoreaMed Linkout 서비스 시작 (2002년 9월 학술지 9종)
2003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3.25) • 임원회의 4회 • 운영위원회 2회 • 정보관리위원회 2회 • 기획평가위원회 2회 • 교육연수위원회 1회 • 소식지 발행(21-23호) • 워크숍 4회 개최(① 메드라인 등재 경험 등, ② 학술지 발전, ③ KoreaMed, MeSH 워크숍 2회, ④ PHP 실무워크숍) • 학술지평가회 2회(14, 1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회 회원 가입 인준을 위한 학술지 평가 시작 (2004.2.26)

연도(회계년 기준)	활동 사항	중요 사업
2004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3,30) • 임원회의 4회 • 운영위원회 2회 • 정보관리위원회 2회 • 기획평가위원회 2회 • 교육연수위원회 1회 • 소식지 발행(24-26호) • 워크숍 5회 개최(① KoreaMed 현황 및 사업 계획 등, ② 의학연구의 설계와 수행, ③ 의학학술지 발전 세미나, ④ KoreaMed 실무 워크숍 2회, ⑤ 논문 심사위원을 위한 워크숍) • 학술지평가회 3회(16, 17차, 1차 재평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Med 등재학술지 재평가 시작(9,23) • 미국 NIH 주최 MeSH 워크숍(베트남) 참석 (2005.1.18-25) • 미국 Thomson ISI사 방문
2005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3,29) • 임원회의 5회 • 운영위원회 2회 • 정보관리위원회 2회 • 기획평가위원회 2회 • 교육연수위원회 1회 • 소식지 발행(27-30호) • 워크숍 4회 개최(① KoMCI Web 소개 등, ② WEB 기반 투고관리 시스템 설명회, ③ 신입편집인을 위한 워크숍, ④ KoreaMed 통합데이터베이스실무) • 학술지평가회 4회(18, 19차, 재평가회 2,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기 회장단 출범(회장: 박찬일)
2006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3,28) • 임원회의 5회 • 운영위원회 1회 • 정보관리위원회 0회 • 기획평가위원회 0회 • 교육연수위원회 0회 • 소식지 발행(31-32호) • 워크숍 2회 개최(①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등재, Open Access 및 중복출판, ② 의학학술지 출판윤리) • 학술지평가회 4회(20, 21차, 재평가회 4, 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윤리위원회 신설
2007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3,27) • 임원회의 6회 • 운영위원회 1회 • 정보관리위원회 2회 • 기획평가위원회 1회 • 교육연수위원회 0회 • 출판윤리위원회 3회 • 소식지 발행(33-34호) • 워크숍 5회 개최(① PubMed Central, DOI와 CrossRef, ② DOI/CrossRef, PMC XML, ③ 의학학술지의 국제유통, ④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⑤ 의학학술지 ME 교육과정) • 학술지평가회 2회(22차, 재평가회 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Med Synapse 최초서비스 개시

국내 의학학술지의 현황분석(2007)

허 선

〈초록〉 1997년 3월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 현황 조사를 한 뒤, 그 내용을 학술지 발전에 활용하였다. 2007년에도 같은 현황조사를 하여 지금의 현황을 과거에 비교하여 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가 발전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2007년 5월 대한 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산하 165개의 학술지 회원 단체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104개 단체 회원(63.0%)의 회신을 받아 분석하였다. 104개 단체 중, 한 종을 두 학회에서 공동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두 건이 있어서 대상 학술지 102종을 분석하였다. 1950년부터 10년 단위 창간연도는 1990년대가 34.3%로 가장 많았다. 간기는 3-4회가 33.3%, 1-2회가 32.4% 순이었다. 편집인의 임기는 2년이 64.7%이었고 5년 이상은 2.0%이었다. 70.6%에서 manuscript editor를 활용한다고 하였다. 일 년 발행 논문 수는 50편 이하가 54.9%, 51-100편이 26.5%, 101-200편이 12.7%, 201편 이상이 4.9%이었다. 출판윤리에 대한 항목에 응답한 77종 중 최근 5년간 이중게재를 발견한 곳이 31.2%, 표절은 5.2%, 조작은 2.6%, 부정저자는 3.9%에서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편집인이 가장 큰 관심 갖는 분야는 SCI 등재 심사 과정 및 의학학술논문의 윤리적 문제 분야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1997년의 현황 조사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다. 특히 1997년에도 이중게재가 20%, 조작이 4%에서 있었다고 편집인이 지적한 것이 10년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의학 학술지 발간에서 심각하게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점이다.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조금 더 항목을 줄이고 간단히 답을 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하고 매년 학술지 현황을 조사하여 장기적인 발전 지표로 삼기를 제안한다.

1. 서론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이하 의편집)에서 1997년 3월에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 현황 조사를 한 뒤 10년이 지난 2007년 5월 다시 한 번 유사한 조사를 시행하였다[1]. 이 조사는 10년 전의 상황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려고 하였고, 또한 앞으로 발전 방향의 바탕 자료로 삼으려고 하였다.

2. 대상 및 방법

2007년 5월 <첨부 1>의 설문지를 165개 회원단체에 발송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165개의 회원 단체 중 하나의 학술지를 여러 단체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각 단체별로 설문지를 받았다. 즉, 학술지 단위가 아닌 발행인 단위로 답을 받았다. 165개 단체 중 104개 단체에서 답을 하여 회수율은 63.0%이었다. 그러나 분석은 학술지 단위로 하여야 하므로 대한미생물학회 및 대한바이러스학회 두 단체에서 발행하는 “*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와 대한생리학회 및 대한약리학회에서 발행하는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and Pharmacology*”를 하나의 답으로 예산부분을 통합한 뒤, 102개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1997년 설문과 같은 항목 중 일부는 과거 자료와 비교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dBSTAT 4.1을 사용하였다[2]. 통계 처리 중 무응답 또는 모름과 같은 답은 누락치로 간주하였다.

3. 결과

회신한 단체 및 학술지명은 <첨부 2>와 같다.

학술지 창간연도를 10년 단위로 보면 Table 1과 같다. 1990년대에 창간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간기는 Table 2와 같이 연 4회 이하가 67종으로 65.7%이었다.

학술지를 인쇄하는 출판사 또는 인쇄소는 <첨부 3>과 같다. 의학문화사 27종, 중앙문화사 11종, 진기획 7종, 광문출판사 5종으로 4개 출판사가 60종으로 59.4%를 차지하였다.

학술지가 등재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Table 3과 같다. KoreaMed 및 KCI에는 58.9%가 등재되었으나 각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에는 10% 미만이 등재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Year of Inauguration and number of journals

Year of inauguration	No. journals (%)
-1960	10 (9.8)
1961-1970	14 (13.7)
1971-1980	10 (9.8)
1981-1990	26 (25.5)
1991-2000	35 (34.3)
2001-	7 (6.9)
Total	102 (100)

Table 2. Number of journal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publication

Frequency	No. journals (%)
1-2	33 (32.4)
3-4	34 (33.3)
5-8	20 (19.6)
12	14 (13.7)
etc (web only)	1 (1.0)
Total	102 (100)

Table 3. Indexed database of journals

Database	No. journals (%)
KoreaMed	60 (58.9)
KCI*	60 (58.9)
PubMed	9 (8.9)
SCI/SCIE	3 (2.9)
Others**	13 (12.8)
Total	145 (142.1)

*KCI: Korea Citation Index edi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J Korean Neurosurg Soc (EMBASE, KISEP, KMbase, KERIS), 의사학(DOAJ), J Vet Sci (CAB, BIOSIS Previews, EMBASE, EBSCO, AGRIS, Biological Abstracts, AGRICOLA, Zoological Record)

학술지 발행 예산에 응답한 97개 학술지의 2006년도 총 수입은 5,691,000,000원이었으며 이 중에서 40.8%는 학회 회비, 11.0%는 외부 지원, 광고비 35.6%, 저자 부담금 10.2%, 구독료 1.4%, 기타 수입 0.9%이었다. 각 학술지 수입의 범위는 2,938,000원부터 595,590,000원이며 평균은 58,670,000원, 표준편차는 76,390,000원이었다. 97개 학술지의 2006년도 총 지출은 4,907,000,000원이었으며 이 중에서 인쇄 및 발송비가 80.8%, 심사료 7.2%, 편집보조인력 인건비 5.2%, 기타 6.5%이었다. 각 학술지 지출의 범위는 2,300,000원부터 485,530,000원 이고, 평균은 50,590,000원이며 표준편차는 41,190,000원이었다. 총 수입과 지출이 정확히 맞지 않는 것은 지출 항목의 기술이 각 학회마다 수입과 완벽하게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제 흑자가 났다기보다는 지출 항목 기술과 수입 항목 기술에서 숫자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97개 학술지의 수입과 수출의 분포는 Table 4 및 Table 5와 같다.

회원을 제외한 유료구독자의 수는 한 명도 없는 경우가 68종, 1-50명이 7종, 51-100명이 3종, 101명 이상이 4종이었으며 무응답이 20종이었으나 이 무응답은 전부 유료 구독자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유료 구독자가 있는 종은 14종(13.7%)이었다.

Table 4. Number of journals according to the annual income

Annual income (won)	No. journals (%)
More than 100,000,000	17 (17.5)
50,000,000-100,000,000	15 (15.5)
20,000,000-500,000,000	33 (34.0)
Less than 20,000,000	32 (33.0)
Total	97 (100)

Table 5. Number of journals according to the outcome

Annual outcome (won)	No. journals (%)
More than 100,000,000	15 (15.5)
50,000,000-100,000,000	12 (12.4)
20,000,000-500,000,000	25 (25.8)
Less than 20,000,000	45 (46.4)
Total	97 (100)

Table 6. Number of journals according to the number of circulation

No. circulation	No. journals (%)
Less than or equal to 1,000	51 (50.0)
1,001-2,000	21 (20.6)
2,001-5,000	19 (18.6)
5,001-10,000	8 (7.8)
More than 10,000	2 (2.0)
No response	1 (1.0)
Web only	1 (1.0)
Total	102 (100)

학술지 발송처(circulation) 수는 총 214,216곳이고 학술지 평균은 2,142곳, 표준편차는 3,841곳이었다. 각 발송처 수별 학술지 수는 Table 6과 같고 70.6%에서 2,000곳 이하이었다.

편집인의 임기는 1년부터 5년까지 범위이나 2년이 66종(64.7%)으로 가장 많았다(Table 7). 단임제는 14종, 연임제는 80종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연임제 시행하는 곳에서, 1회 연임 가능성이 8종, 2회 6종, 3회 5종이었으며 33종에서는 연임 회수에 제한이 없었다. 나머지는 규정이 없거나 응답이 없었다.

Table 7. Number of journals according to the term of editors

Term of editors (year)	No. journals (%)
1	4 (3.9)
2	66 (64.7)
3	16 (15.7)
4	3 (2.9)
5	2 (2.0)
No response	11 (10.8)
Total	102 (100)

Table 8. Number of journals according to the number of editorial board members

No. Editorial board members	No. journals (%)
-10	27 (26.5)
11-20	42 (41.2)
21-30	21 (20.6)
31-40	4 (3.9)
41-50	2 (2.0)
51-	6 (5.9)
Total	102 (100)

Table 9. Number of journals according to the recruitment of copy editor

Status of copy editor	No. journals (%)
Copy editor	28 (27.5)
Clerk with role of copy editor	44 (43.1)
Copy editor and the clerk with role of copy editor	2 (2.0)
Absent	24 (23.5)
No response	4 (3.9)
Total	102 (100)

편집위원(또는 간행위원)의 수는 Table 8과 같다. 편집위원 수는 모두 1,728명이며 평균 17.0명 표준편차 11.4명이었다.

편집보조인(copy editor, 원고편집인)의 고용 여부는 Table 9에 정리되어 있다. 30종의 학술지에서 별도의 편집보조인을 활용하고 있었다.

학술지별 2006년도 발행 논문 수는 Table 10과 같다. 응답한 101개 학술지의 총 논문 수는 6,898개이었으며 범위는 6-343개, 평균은 68.1개, 표준편차 67.7개이었다. 게재 논문의

Table 10. Number of journal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apers per journal

No. papers per year	No. journals (%)
Less than 51	56 (54.9)
51-100	27 (26.5)
101-200	13 (12.7)
More than 200	5 (4.9)
No response	1 (1.0)
Total	102 (100)

유형(publication type)은 응답한 학술지 논문 6,710개 중 종설 8.0%, 원저 61.8%, 증례 24.5%, 기타 5.7%이었다. 또한 투고 논문 수를 답한 93개의 학술지의 총 투고 논문 수는 9,093개이었으며 그 중 6,458개가 게재되어 평균 게재율은 71.0%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9.8%이었다. 게재율은 11.5%에서 136.9%까지이었다. 100%가 넘는 것은 그해에 투고된 것과 출판한 것만 계산하여 그 전년도에 넘어 와서 출판한 것은 계산에 넣지 않아서이다. 93종 중 게재율이 90% 이상인 것이 40종, 71-80%가 29종, 51-70%가 18종, 50% 미만이 6종이었다. 게재율이 50% 미만인 것은 *Korean J Radiol*, *Yonsei Medical J*, 가정의학회지, *J Vet Sci*, *Exp Mol Med* 및 *Korean J Hematol* 이었다.

중복 응답이 가능하게 하여 알아본 논문 투고 방법은 웹투고가 25종(20.5%), 전자우편 45종(36.9%), 우편 50종(41.0%), 기타 1종(0.8%), 무응답 1종(0.8%)으로 우편으로 투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웹투고 및 전자우편 투고를 모두 온라인투고로 간주한다면 70종으로 무응답을 제외하였을 때, 69.3%에서 온라인투고를 활용하고 있었다. 48종(47.1%)의 학술지는 논문 출판할 때 전문의고시 자격을 충족시키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논문 심사 제도를 보면 무응답 1종을 제외한 101종에서 편집인 단독 심사 1종(1.0%), 정해진 심사위원 pool에서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 83종(81.4%), 정해진 pool이 없이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 20종(19.6%)이었다. 3개의 학술지는 pool에서 의뢰하거나 pool 바깥에서도 의뢰하였다.

심사위원 수는 편집인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인 경우가 응답한 100종 중 99종이었으며 한 종에서는 1인이 심사를 하였다.

이중게재, 표절, 조작 및 저자되기 문제(부정저자)에 대한 항목에 응답한 77종 중 각각 24(31.2%), 4(5.2%), 2(2.6%), 3종(3.9%)에서 있었다고 답하였다.

편집인이 관심있는 분야는 중복하여 답을 한 결과 Table 11과 같다. SCI 등재 및 연구 출판 윤리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1. Item that editors are concerned for (multiple answer)

Editor's concerns	No. of editors (%)
Review procedure for indexing to SCI	62 (60.8)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38 (37.3)
Policy of journal evaluation	29 (28.4)
Experience of peer review	27 (26.5)
Editorial independency	25 (24.5)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cation	22 (21.6)
Policy of multi-nationality commercial publisher	21 (20.6)
Indexing to database and web publication	13 (12.7)
Progress of Western Pacific Regional Index Medicus	12 (11.8)
NLM's indexing techniques	11 (10.8)
MeSH	11 (10.8)
Total	271

4. 고찰

이러한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오직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만 시행하여 확보한 것으로 서지사학 의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비록 전수 조사는 아니지만 102종의 출판 지출 경비가 50억 원에 가까웠다는 점에 비추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나 165종으로 확대 하고 또한 아직 의편집 회원 학술지가 아닌 의학 관련 학술지를 고려한다면 일 년에 출판 경비가 100억 원대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의학 학술지 출판 시장이 국제적인 유통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대개 학회나 학교 등 비영리단체에서 출판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은 국제적으로 유가(有價)로 유통되는 이른바 높은 인용도 지수의 영미계열 학술지가 주도하는 의학정보의 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초기 진입단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 이다. 또한 open access 잡지가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는 현황에서 가능하다면 무료로 전문 을 웹을 통하여 제공하여 국제적인 유통을 활발히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국제 학술지 발간을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 러한 결과로 알 수 있는 점은 학술지 간에 예산이나 논문 편수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일부 학술지는 풍부한 예산으로 학술지 발전을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동안 영세하다고 알고 있던 의학학술지 발간 시장이 규모면에서 차별이 심하게 벌어 지고 있다. 1997년은 우리나라에서 SCI 학술지의 위력이 최고조에 달하던 때로 그 즈음에 정부에서는 SCI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에게 연구비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실천 하고 이로 인하여 의학 연구자 사회도 문화 충격을 받은 직후이다. 그러한 모습은 10년 뒤 에 많은 편집인이 SCI 등재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 SCI 등재를 위하여

과학 언어는 영어라는 현실에 맞아야 하므로 일부에서는 영문 학술지로 변화를 꾀하고 영문으로 학술지명을 바꾸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관심은 연구출판윤리로 오랜 기간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이중게재 문제가 더 이상 국제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은 편집인이나 연구자가 깨닫게 되었다. 그 이유는 1997년에는 거의 초기 단계였던 Korea Med가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local database로 발전하였고, 2007년 이후 구글 스칼라를 통하여 전 세계의 학자에게 영문 초록이 공개됨으로써 더 이상 국내 학술지를 국제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69.3%에서 온라인 투고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1997년 상황에 비추어 획기적인 변화이다. 그때는 비록 웹이 등장하고 있었지만 아예 설문 항목에 온라인 투고는 없었고, 관리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느냐를 물어보았다. 10년 만에 가장 빠르게 변한 것이 이 온라인 투고이고, 이제 대부분의 국제 학술지는 온라인투고가 대세로 자리 잡고 최근에는 온라인 투고가 아니면 투고를 하지 않는 연구자가 대부분이며 심의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온라인 투고를 도입하면 투고논문 수가 늘어난다는 보고에 비추어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도 앞으로 저자를 국내외를 막론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 항목이므로 편리한 온라인투고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술지는 아직도 간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투고 논문 수 부족 및 부족한 예산으로 적절한 투자를 하거나 원고편집인(copy editor)을 전일제로 또는 시간제라도 고용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임을 예산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학 학술지 시장에는 진입 장벽이 없다. 누구든지 학술지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1990년대 붐을 이룬 학술지 창간이 이제 경쟁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되어야 할 때가 다가왔다. 이미 국내 의생명과학 분야에서 일 년에 만편이 국제 학술지에 실리고 있고 국내에는 KoreaMed 등재 학술지에 만 편이 실리고 있다. 즉,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지 못하는 국내 학술지는 전문의 시험을 볼 때 의무 투고나 출판을 규정으로 하는 일부 학술지를 제외하고는 이미 국제수준에 다다른 국내 연구자로부터 투고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사 분야 학술지 통폐합과 영문화, open access 학술지로 변화, DOI 가입, PMC 등재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학술지의 표준을 따라가면서 분야마다 일정 수 미만의 학술지를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시키도록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설문은 지나치게 회수율이 높았으나 설문에 답한 내용을 분석한 바 일부 설문은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만한 질문이 있었다. 예를 들면 발간 부수를 물어본다면 이것은 circulation으로 발송 목록 수라는 개념인데 모든 호의 발행한 부수를 더하여 일 년에 45,000부 발행한다고 답한 경우 등이다. 우리나라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의 1/2 이상에게 발송할만한 양을 발간 부수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일이므로 이런 경우는 12로 나누

어 주었다.

이 조사에서는 설문항목이 지나치게 많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설문 항목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었다. 국제적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설문을 작성하였으면 한다. 또한 의편협에서 자체로 조사가 가능한 항목은 의편협에서 조사를 하고, 단체회원이 대답해야만 하는 항목만 설문에 넣으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일 년간 발간 논문 수는 Korea Med를 통하면 바로 나온다. 또한 색인데이터베이스도 이미 의편협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이 설문을 단순하게 하여 매년 반복하고 시행하여 비교 가능하고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편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학학술지 현황조사(1997).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서울; 1997.
2. dBSTAT 4.1 available from <http://dbstat.com>

〈첨부 1〉

의학학술지 현황 조사(2007)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는 1996년에 창립되어 지난 10여 년간 국내 의학학술지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1997년에 회원학회 학술지 현황조사를 위한 설문문을 바탕으로 국내 의학학술지의 수준 향상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술지 평가 제도와 KoreaMed라는 국내 학술지 초록 DB를 구축화하였습니다.

의편협에서는 1997년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국내 의학학술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학술지 발전을 위한 제2의 도약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조사하는 설문사항은 올해 발간하게 될 의편협의 발전사에 부록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첨부한 설문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회신기한 및 방법: 2007년 5월 15일 전자메일(koreamed@kams.or.kr)
2. 문의: 의편협 학술지 현황조사 담당자(798-3807)
3. 설문지 작성자

작성자			
성 명		학회직위	
근무처명		e-mail	
전 화		팩 스	

(※ 설문지는 편집위원장이거나 간사께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 기간이 지정되지 않는 설문항목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작성 요망)

I. 일반적인 행정사항

1. 학술지명:
2. 창간연도:
3. 간기(연간 발행 횟수):
4. 발행처:
5. 출판사 및 인쇄소:
6. 학술지 등재 현황
() KoreaMed () 학진등재 () 학진등재후보
() MEDLINE () SCI 기타()

II. 예산

1. 2006년도 학회 전체 예산:
2. 학회 전체 예산 중 학술지 관련 예산(비중): ()%
3. 학술지 관련 수입 내역
 - 학회자체 예산:
 - 외부보조금:
 - 학회지 광고비:
 - 게재료:
 - 구독료:
 - 기 타:
4. 학술지 관련 지출 내역
 - 인쇄비:
 - 배송비:
 - 심사비:
 - 편집관련 인건비:
 - 기 타:
5. 독자의 구독료 부담 내역
 - 5-1. 회원을 제외한 유료구독자의 수는? ()명
 - 5-2. 회원들이 내는 회비에 구독료가 포함되었을 경우 구독료는 얼마입니까? ()원
 - 5-3. 회원이 아닌 경우 연간 구독료는 얼마입니까?
(개인: 원, 도서관: 원)

Ⅲ. 배포현황

- 1. 총 발행부수: 총 ()부
- 2. 회원배부용: 유료()부, 무료()부
- 3. 국내 도서관 및 기관 배부용: 유료()부, 무료()부
- 4. 국외 발송용: 유료()부, 무료()부
- 5. 기타: 유료()부, 무료()부

Ⅳ. 학술지 관련 인력 현황

1. 편집인

이름	
근무처	
전공	
임기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2. 편집인 임기

- 2-1. 편집인의 임기(년):
- 2-2. ()단임제, ()연임제(연임 가능 횟수: 회)

3. 학술지 관련 위원회

- 3-1. 편집위원회 위원 수 및 기능:
- 3-2. 간행위원회 위원 수 및 기능:
- 3-3. 기타 관련 위원회의 위원 수 및 기능:

4. 편집보조인(Copyeditor, 사무원)이 있습니까?

- 4-1. () 별도로 채용된 사람, () 기존 직원이 겸임, () 없다
- 4-2. 최종 학력 및 전공:

Ⅴ. 투고 및 게재 현황

- 1. 2006년도 게재된 논문 수: 총 ()편
 중설: ()편 원저: ()편 증례보고: ()편 기타: ()편
- 2. 2006년도 투고된 논문 수: 총 ()편
 중설: ()편 원저: ()편 증례보고: ()편 기타: ()편
- 3. 논문 투고 방법(중복 체크 가능)
 () 웹 투고 시스템 사용

- 전자메일
 - 우편
 - 기타(방법을 적어주세요)
4. 투고자에 대한 혜택(중복 체크 가능)
- 본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전문의 고시의 자격이 주어진다.
 - 본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연구비를 지원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선별하여 포상한다.
 - 본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교원 승진 등 업적평가의 혜택이 있다.

VI. 논문심사 제도 현황

1. 논문심사제도의 유형
- 편집위원장이나 간사가 단독으로 심사한다.
 - 이미 정한 심사위원 Pool에 의해 심사한다.
 - 정해진 Pool이 없이 그때 그때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논문 심사 제도가 없다.
2. 2006년도에 논문심사에 참여한 인원? 국내인 ()명, 외국인 ()명
3. 심사위원 선정 방법
- 논문 투고자가 희망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정한다.
 - 심사위원 Pool을 분야별로 미리 관리한다.
 - 심사위원 Pool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명
 - 기타(방법을 적어주세요)
4.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비는 얼마입니까? ()원
5. 논문 심사 현황
- 5-1. 논문 한편의 심사는 몇 명이 합니까?
- () 심사위원 1명 • () 심사위원 2명 이상
 - () 심사위원 1명+편집인 • () 심사위원 2명 이상+편집인
 - 기 타()
- 5-2. 1차 심사 결과는 대략 어떤 분포입니까?
- 게재가 ()% • 게재 불가 ()%
 - 재심사 의뢰 ()% • 간행위원회 수정 확인 후 게재 ()%
 - 기 타 ()%

- 5-3. 논문 심사위원의 수정 내용에 대한 대략적 분포입니까?
- 논문 형식에 대한 일부수정(오자 및 참고문헌 나열 방식 등) ()%
 - 내용에 대한 비교적 깊이 있는 지적 ()%
 - 내용에 대하여 다른 문헌을 인용하면서 “매우” 자세히 지적한다. ()%
- 5-4. 1차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얼마입니까?
- 2주 이내에 회신이 온다. ()%
 - 4주 이내에 회신이 온다. ()%
 - 2개월 이내에 회신이 온다. ()%
 - 2개월 이상 걸린다. ()%

VII. 기타 사항

1. 최근 5년간 아래에 해당하는 논문이 몇 편이나 발견되었습니까?
 - 중복출판(이중게재) ()편
 - 표절 ()편
 - Data 조작 ()편
 - 부정 저자 ()편
 - 기 타(내용과 편수를 적어주세요)
2. KoreaMed 활용도 조사
 - () 거의 매일 이용한다.
 - () 주에 1회 정도
 - () 달에 1회 정도
 - ()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3. KoMCI 활용도 조사
 - () 거의 매일
 - () 한주에 1회 정도
 - () 한달에 1회 정도
 - ()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4. 자주 이용하는 Database
 - 4-1. 국내
 - KoreaMed ()% MedRIC ()% MEDLIS ()%
 - KERIS ()% 기타 (DB명과 퍼센트를 적어주세요) ()%
 - 4-2. 국외
 - PubMed ()% PubMed Central ()%
 - 기타 (DB명과 퍼센트를 적어주세요) ()%

5. 2008년 5월 2-3일 대한의사협회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행사 기간 중에 가칭 “아시아태평양 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행사에 대하여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 문항을 3개 이내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학술지 편집인의 편집권
- () 다국적 학술지 출판사의 정책
- () 편집인의 논문 심사 관리 경험
- () SCI 등재 심사 과정
- () NLM의 학술문헌 색인 기술 전망
- () 학술지를 통한 국가간 학술 교류
- () 의학학술 논문의 윤리적 문제
- () Google 등 인터넷 색인과 학술지 발행
- () 서태평양 Index Medicus의 발전 방향
- () 학술지 평가 정책
- () MeSH
- () 기타 (프로그램을 적어주세요)

6. 의편집에 대한 건의사항을 적어주세요.

- 감사합니다 -

〈첨부 2〉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술지명

(영문 학술지명은 축약명을 사용)

(2007년 5월 현재)

<i>Exp Mol Med</i>	대한마취과학회지	대한체질인류학회지
<i>Exp Neurobiol</i>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	대한치과교정학회지
<i>Genomics Inform</i>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대한치과보철학회지
<i>Hanyang Med Rev</i>	대한배뇨장애및요실금학회지	대한통증학회지
<i>Immune Netw</i>	대한비뇨기과학회지	대한피부과학회지
<i>J Bacteriol Virol</i>	대한산업의학회지	대한혈관외과학회지
<i>J Breast Cancer</i>	대한생식의학회지	대한흉부외과학회지
<i>J Cardiovasc Ultrasound</i>	대한성형외과학회지	병원감염관리
<i>J Korean Neurosurg Soc</i>	대한세포병리학회	보건의료교육평가
<i>J Rhinol</i>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보험의학회지
<i>J Vet Sci</i>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부인종양
<i>Korean J Hematol</i>	대한소아신장학회	성인간호학회지
<i>Korean J Hepatol</i>	대한소화관운동학회지	소아심장
<i>Korean J Ophthalmol</i>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신경정신의학
<i>Korean J Parasitol</i>	대한수혈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i>Korean J Pathol</i>	대한스포츠의학회지	의사학
<i>Korean J Pediatr</i>	대한신경과학회지	의학물리
<i>Korean J Physiol Pharmacol</i>	대한안과학회지	임상검사외정도관리
<i>Korean J Radiol</i>	대한영상의학회지	전남의대학술지
<i>Tuberc Respir Dis</i>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정신병리학
<i>Yonsei Med J</i>	대한외과학회지	정신분석
계명의대논문집	대한위암학회지	정신신체의학
노인병	대한응급의학회지	종양간호학회지
노인정신의학	대한의료정보학회지	충북의대학술지
농촌의학 · 지역보건	대한의사협회지	한국간담체외과학회지
당뇨병	대한진균학회지	한국역학회지
대한간호학회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두경부외과학	한국영양학회지
대한건주관절학회지	대한이식학회지	한국의학교육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대한임상미생물학회지	한국전자현미경학회지
대한골대사학회지	대한재활의학회지	
대한골절학회지	대한정신약물학회지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지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대한주산의학회지	
대한기관식도과학회지	대한중환자의학회지	
대한내분비학회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대한류마티스학회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첨부 3〉

의학학술지를 인쇄하는 출판사 또는 인쇄소

(2007년 5월 현재)

발행처	학술지 수	학술지명
(주)메드랑, 도서출판 의학문화사	28	가정의학회지, 대한골절학회지, 대한류마티스학회지, 대한마취과학회지,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대한배뇨장애및요실금학회지, 대한비뇨기과학회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대한수혈학회지, 대한외과학회지, 대한위암학회지, 대한이식학회지, 대한임상미생물학회지, 대한재활의학회지, 대한중환자의학회지, 대한통증학회지, 대한피부과학회지, 대한혈관외과학회지, 대한흉부외과학회지, 부인종양, 의학물리, 전남의대학술지, <i>Exp Mol Med</i> , <i>Exp Neurobiol</i> , <i>Immune Netw</i> , <i>Korean J Hematol</i> , <i>Korean J Physiol Pharmacol</i>
중앙문화사	11	노인정신의학,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두경부외과학, 대한정신약물학회지, 신경정신의학, 정신병리학, 정신분석, 정신신체의학, 한국영양학회지, <i>J Cardiovasc Ultrasound</i> , <i>J Korean Neurosurg Soc</i> , <i>J Rhinol</i>
진기회	7	대한소화관운동학회지, 대한신경과학회지, 대한안과학회지, 대한의료정보학회지,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i>Korean J Hepatol</i> , <i>Korean J Ophthalmol</i>
광문출판사	5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주산의학회지, 소아심장, <i>Korean J Pediatr</i>
서흥출판사	4	대한골대사학회지, 대한생식의학회지, 대한의진균학회지, <i>J Bacteriol Virol</i>
최신의학사	3	대한견주관절학회지,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대한산업의학회지
골드기획	3	당뇨병, 대한내분비학회지, 병원감염관리
(주)디자인메카	3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 대한성형외과학회지, <i>Yonsei Med J</i>
한림원	2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i>J Vet Sci</i>
정행사	2	대한체질인류학회지, 한국전자현미경학회지
의학출판사	2	노인병, 대한스포츠의학회지
의치학사	2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대한치과보철학회지
아카데미아	2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i>Korean J Pathol</i>
성문각	2	대한영상의학회지, <i>Korean J Radiol</i>
고려의학	2	대한세포병리학회지, 의사학
(주)상지피앤아이	2	대한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함춘한학	1	한국역학회지

(2007년 5월 현재)

발행처	학술지 수	학술지명
한컴닷컴	1	<i>Hanyang Med Rev</i>
한국학술정보	1	보건의료교육평가(보관본 인쇄)
한국의학원 출판부	1	대한기관식도과학회지
하나문화사	1	<i>Tuberc Respir Dis</i>
청운	1	한국의학교육
조이디자인	1	한국간담췌외과학회지
일광	1	충북의대학술지
의학사랑	1	성인간호학회지
의술문화사	1	임상검사와정도관리
우리의학사	1	대한응급의학회지
아이피씨미디어	1	<i>J Breast Cancer</i>
썬미디어	1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서울대학교출판부	1	<i>Korean J Parasitol</i>
상지출판사	1	중앙간호학회지
디자인APP	1	보험의학회지
두리문화사	1	농촌의학 · 지역보건
군자출판사	1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지
국진피앤디	1	<i>Genomics Inform</i>
21세기	1	대한치과교정학회지
(주)갑우문화사	1	대한의사협회지
무응답	1	계명의대논문집
합계	102	

학술지 평가

홍성태

의편협은 결성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 나라 의학 학술지의 향상을 위하여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학술지에 대한 동료에 의한 전문가심사(peer review) 형태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학술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협의회 결성 이후에 평가항목과 항목별 기준을 설정하였고 이를 학술지별로 점수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평가항목을 1997년 8월 18일 확정하고 그 이후 이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면서, 4회에 걸쳐서 평가항목을 보완하여 개정하였다(표 1).

대한의학회 소속 학회에서 발행하는 의학 분야 학술지를 대상으로 초기에 평가를 시작하여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학술지 위주로 KoreaMed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학술지 평가결과가 구체적인 색인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자 각 의과대학 발행 학술지도 참여하고, 제 9차 평가회부터 치의학, 간호학 분야 학술지도 평가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영양학, 수의학 학술지도 평가를 받아 KoreaMed에 등재하게 됨으로써, KoreaMed가 의학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보건과학의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었다(등재 학술지명은 의편협 홈페이지 참조).

표1 평가항목 제정 및 개정

평가항목 변화	주요 내용	일자
제정	자체평가 항목(I) 13개, 실물평가 항목(II) 10개, 협의회 평가항목(III) 6개, 총 29항목	1997. 8. 18
제1차 개정	학술지 편집과 관련된 항목을 강화, 투고규정과 체재의 일관성을 강화. I-14, II-13, III-6, 총 33항목	1997. 9. 23
제2차 개정	일부 문구 수정, 실물평가 세분화, 도서관 소장률과 인용 관련 항목 보강. I-14, II-12, III-6, 총 32항목	1999. 7. 5
제3차 개정	투고규정 비중 상향, 인용 관련 항목 조정. I-13, II-12, III-4, 총 29항목	2001. 3. 26
제4차 개정(재평가용)	재평가용, 기 심사 후 등재된 학술지용 III항목 위주 조정(인용지수, 디지털화 등)	2004. 3. 30
제4차 개정(신규용)	발행간기와 전문가심사 시행을 선결요건으로 조정. I-11, II-13, III-6, 총 30항목	2006. 3. 28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첨부한 평가항목 참조). 제1부는 자체평가항목으로 편집인이 스스로 채점한다. 이 부분은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동료에 의한 전문가심사(peer review)의 운영 상황, 저작권 보호, 학술지의 발행과 배부 등에 관련된 11개 항목(초기 13개)으로 구성된다. 제2부는 실물평가항목으로 지정된 평가위원이 최근 간행된 학술지를 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이 항목은 주로 표지 등 편집인이 관장하는 부분의 오류, 투고규정의 내용, 원고의 편집, 논문의 체재 유지, 영문초록의 완결성, 본문과 인용문헌의 오류, 도표의 편집과 형식, 인쇄상태 등을 주로 평가한다. 모두 13개 항목(초기 10개)으로 구성되어 있어 독자에게 얼마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둔다. 제3부는 협의회에서 조사하는 6개 항목(초기 6개)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전문평가위원이 직접 의학도서관의 소장률, 자체인용률, 국제색인DB등재 여부, SCI인용지수 등을 계량화하여 평가하였다.

그동안 4회에 걸친 평가항목의 개정은 처음 만든 평가항목을 실제 적용하면서 현실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표 1). 모든 학술지가 공통적으로 같은 수준에 이른 평가항목은 삭제하였다. 평가항목의 개정은 기획평가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어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절차를 취하였다.

평가 방법

의편집에서 시행한 학술지 평가는 학술지가 처음 받는 평가를 원평가, 1-2년 후에 보완하여 다시 받는 평가를 보완평가, 등재 7년 후에 다시 받는 평가를 재평가로 구분한다. 원평가와 보완평가는 학술지 평가항목<첨부 1>을 적용하고 재평가는 재평가용 항목<첨부 2>을 적용한다. 각 평가에서 실물평가의 경우 각 항목마다 대부분이 5점을 만점으로 3인이 채점하고 그 평균치를 사용한다. 학술지 실물평가는 의편집에서 지정한 평가위원과 해당 학술지 편집인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학술지를 검토한 의견, 질문, 답변을 서로 주고 받으며 진행한다. 세 부분의 항목을 모두 합쳐서 전체 평균 점수가 2.5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하여 KoreaMed에 영문초록과 서지사항을 PubMed형식으로 등재한다.

원평가 결과

확정된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1997년 11월 5일에 1차 원평가회를 가진 후 매년 2-3회 평가회를 가져서 2007년 2월 14일까지 제21차 평가회를 시행하였다(표 2). 총 188종(중복 평

표2 학술지 평가 현황과 결과

평가 차수	대상 학술지 종	평가 후 KoreaMed 등재 학술지 종	대상 학술지 종
1	12	9 (+5 Medline 학술지)	1997. 11. 5
2	9	6	1998. 5. 27
3	11	10	1998. 9. 2
4	8	8	1998. 11. 4
5	10	9	1999. 9. 1
6	14	10	1999. 10. 6
7	12	1	1999. 11. 17
8	3	1	2000. 2. 14
9	13	10	2000. 11. 22
10	11	4	2001. 7. 6
11	8	5	2001. 11. 14
12	9	6	2002. 9. 25
13	8	4	2003. 2. 21
14	12	7	2003. 9. 19
15	5	0	2004. 2. 19
16	5	2	2004. 6. 22
17	8	8	2004. 11. 24
18	8	8	2005. 6. 24
19	3	2	2006. 2. 14
20	8	4	2006. 6. 27
21	10	7	2007. 2. 14
합계	187	121 (+5 Medline 학술지)	

가한 학술지 포함)의 학술지를 평가하여 이중 116종의 학술지와 Medline 학술지 5종을 포함하여 121종의 학술지를 KoreaMed에 등재하였다.

그 동안 21차까지 학술지별 원평가의 결과는 표3에 정리한 바와 같은 분포를 하였다. 평가에서 최고점은 4.33이며 최저점은 1.47이었다. 평가 평점이 2.0에 미달하는 학술지가 9종, 2.0-2.4에 43종이 있고, 2.5-2.9에 63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3.0을 상회하는 학술지는 모두 40종이었다. Medline에 등재된 학술지는 제1차 재평가에서 평가하였고 5종 중에서 3종이 4.0 이상 평점을 얻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표3 원평가 평점구간별 학술지 종 수(1-21차 평가)*

평점 구간	학술지 종 수(%)
1.5 미만	2 (1.3)
1.5-1.9	7 (4.5)
2.0-2.4	43 (27.8)
2.5-2.9	63 (40.6)
3.0-3.4	32 (20.6)
3.5-3.9	4 (2.6)
4.0-4.4	4 (2.6)
4.5 이상	0
합 계	155 (100)

*Medline 학술지 5종은 재평가 결과로 정리함.

보완평가 및 재평가 결과

원평가를 받은 후 2.5 미만 평점으로 등재에 실패한 학술지는 학술지의 편집 등을 개선하여 일 년이 경과한 이후에 보완평가를 다시 받아 KoreaMed에 등재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그동안 모두 25종의 학술지가 1회 이상의 보완평가를 받아 등재하였다. 그리고 일단 KoreaMed에 등재된 후 7년이 경과한 학술지를 대상으로 2004. 3. 30에 재평가용 평가항목을 만들고(첨부 2), 재평가를 시작하여 2007년 2월 28일까지 모두 5회를 실시하였다(표 4).

표4 KoreaMed 등재 학술지 재평가 현황

재평가 차수	대상 학술지 수	재평가 평점 구간별 학술지 수			일 자
		3.0 미만	3.0-3.9	4.0 이상	
1	12*	0	7	5	2004. 9. 24
2	8	1	7	0	2005. 10. 14
3	11	3	7	1	2006. 2. 28
4	10	4	6	0	2006. 10. 19
5	11	1	8	2	2007. 2. 28
합 계	52	9	35	8	

*Medline 등재 학술지 5종 포함.

재평가 결과 원평가와 재평가의 점수를 비교하여 보면 재평가 평점이 저하한 학술지가 5종, 점수가 좋아졌지만 0-0.29의 근소한 차를 보인 학술지가 10종, 0.3-0.49 상승이 11종, 0.6-0.9상승 13종, 1.0 이상 좋아진 학술지가 6종이 있었다. 재평가에서 괄목할 만큼 평점

이 상향된 6종의 학술지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대장항문병학회지, 대한재활의학회지, 대한비뇨기과학회지, 대한정신약물학회지, 대한통증학회지이다. 재평가의 최고점은 대한통증학회지의 평점으로 4.33이었다.

요약

학술지 평가를 통하여 국내 의학 학술지의 편집과 발행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영문초록과 서지사항을 영문으로 구축한 KoreaMed는 학술지 편집인 간의 전문가심사(peer review) 형태의 평가로 선정된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국내 다른 학술지 색인자료에 비하여 우월성을 가진다. 이러한 학술지 평가의 장을 통하여 편집인 간에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학술지 편집의 경험과 노하우가 교환되고 편집을 잘하기 위한 동기가 유발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즉 평가와 더불어 교육효과도 매우 컸다고 자평한다. 이에 따라서 평가를 받은 학술지는 편집상의 오류가 줄어들고 투고규정이 정비되었으며, 특히 영문초록이 크게 개선되었다. 처음 평가를 시작할 때에 5종이었던 Medline 등재 학술지가 2007년도 현재 13종으로 증가하였고 이중에서 SCI 등재 학술지도 3종이 되었다. 이제 의편협에서 시행한 학술지 평가와 KoreaMed 시스템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의 의학 학술정보의 성공적인 모델로 여러 나라에 전수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의편협 임원과 회원 모두의 결실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학술지 평가에 참여한 모든 의편협 평가위원과 학술지 편집인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린다.

〈첨부 1〉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의학학술지 평가항목

제정 1997. 8. 18.
4차 개정 2006. 3. 28.

※ 학술지 발간의 정기성과 논문심사(상호심의, Peer Review)제도는 평가 전(前) 필수 점검항목.

1. 자체평가 항목 :

註. 해당학술지 편집인이 관리하는 기록이나 경험을 이용하여 답해야 하는 평가항목
(실무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11개 항목)

1-1 최근 15년간 편집인 교체 횟수

- () 1점 : 9회 이상
- () 2점 : 7-8회
- () 3점 : 5-6회
- () 4점 : 3-4회
- () 5점 : 3회 미만
- () +1점 : 편집인 전임제를 운영하는 경우 1점 가산.

註. 1) 지령 15년 미만의 학술지인 경우에는 15년으로 환산하여 횟수를 계산.

2) 편집인 전임제는 편집인이 학술지 편집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해당 학술지 발행기관이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1-2 편집위원회(또는 간행위원회)의 구성과 편집정책회의의 빈도

- () 1점 : 구성은 되어 있으나 편집정책회의 실적 없다.
- () 2점 : 해당 학회(또는 대학)의 회원(또는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의 회의 실적은 부정기적이고 3회 이내이다.
- () 4점 : 해당 학회(또는 대학)의 회원(또는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한다.

- () 5점 : 해당 학회(또는 대학) 소속원 이외의 편집관련 전문인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의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한다.

註.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의 개정, 편집방침의 결정, 논문게재상 발생하는 분쟁사례의 해결 등을 위한 모임임. 논문심사 편의상 모이는 회의는 위에 포함되지 않음.

1-3 편집업무 지원관련 사항

- (1) 1점 : 웹기반 투고관리 시스템을 운용한다.
- (2) 1점 : 편집업무 전담 사무직원이 있다.
- (3) 1점 : 영문교정자를 별도로 두고 있다.
- (4) 1점 : 원고의 체제 및 문장수정을 담당하는 copy editor를 별도로 두고 있다.
- (5) 1점 : 원고 접수일자,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재심사 여부, 게재여부 결정 일자 등을 장부 또는 컴퓨터로 관리한다.
- () : (1)-(5) 해당 점수의 합

1-4 1차 상호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최근 1년간) : 자료 제출 필요

- () 0점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20%보다 많다.
- () 1점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20% 이내이다.
- () 3점 :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10%-20%이다.
- () 5점 :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10% 이내이다.

註. 1)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편집인이 기간 단축을 독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2) 게재여부를 빨리 결정함으로써 저자가 수정 또는 다른 학술지에 접수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1-5 상호심의 1차 심사 결과(최근 1년간) : 자료 제출 필요

- () 1점 : 게재논문의 10% 미만이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 () 2점 : 게재논문의 10%-20%가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 () 3점 : 게재논문의 20%-40%가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 () 4점 : 게재논문의 40%-60%가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 () 5점 : 게재논문의 60% 이상이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註. 오자 또는 자구 수정요구는 수정요구에 포함되지 않음.

1-6 상호심의 최종 결과 배척(rejection) 또는 저자회수(withdraw)율 (최근 2년간) :

자료 제출 필요

- () 0점 : 전혀 없다.

- () 2점 : 5% 미만
- () 3점 : 5% 이상 10% 미만
- () 4점 : 10% 이상 20% 미만
- () 5점 : 20% 이상

註. 1)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뒤 재심 결과 또는 편집인의 최종 결정을 기준으로 함.
2) 저자수정을 의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이 도착하지 않으면 저자회수로 간주함.

1-7 기타 상호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 1점 : 심사위원이 재심, 3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2) 1점 : 논문심사 내역서, 저자수정 내역서 등을 보관한다.
- (3) 1점 : 논문심사 지침서 또는 상호심의 업무편람을 갖추고 있다.
- (4) 2점 : 논문 심사위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 : (1)-(4) 해당 점수의 합

1-8 발행 일자 준수 여부(최근 2년간)

- () 0점 : 정해진 발간일이 없다.
- () 1점 : 연간 발행 횟수의 25% 이상에서 1주일 이상 지연되었다.
- () 2점 : 연간 발행 횟수의 25% 미만에서 1주일 이상 지연되었다.
- () 3점 : 정해진 발간일에서 1주일 이내 지연된 일이 있다.
- () 5점 : 정해진 발간일을 지키지 못한 일이 없다.

1-9 저작권 보호(이중게재 방지) 조치

- () 0점 : 투고규정에 저작권 관련 조항이 없다.
- () 1점 : 투고규정에 저작권 관련 조항이 있으나 최근 2년간 상대측 편집인의 허락 없이 이중게재를 허용한 예가 있다.
- () 2점 : 투고규정에 저작권 관련조항이 있으나 최근 2년간 이중게재를 감시한 일이 없다.
- () 4점 : 투고규정의 저작권 관련 조항이 있으며, (서면상의 동의는 없었더라도) 양측의 합의하에 이중게재를 허용한 예가 있다.
- () 5점 : 양측의 사용 언어가 다르거나 양측 편집인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이중 게재를 허용하는 등 관련 투고 규정이 구체적이며, 감시활동의 실적이 있다.
- () +1점 : 저자 모두의 동의서를 받고 있으면 1점 추가.

1-10 발송처 범위 : 자료 제출 필요

- (1) 1점 : 해당 학회(또는 대학)의 회원(또는 교원)에 기관별로 일괄 발송한다.
 - (2) 1점 : 국내 유관기관(도서관, 언론사 등)에 배포한다.
 - (3) 1점 : 국외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 (4) 1점 : 판매실적이 있다.
 - (5) 1점 : Excerpta Medica, Biological Abstracts, Chemical Abstracts 등 의학 관련 국제 전문 초록잡지에 발송한다.
- () : (1)-(5) 해당 점수의 합

1-11 찾아보기표(index) 작성 여부

- () 0점 : 작성한 적이 없다.
- () 1점 : 수년에 한번씩 만든 적이 있다.
- () 2점 : 권말마다 작성하지만 수록논문 목록 또는 (and/or) 저자별 찾아보기표를 만든다.
- () 3점 : 권말마다 수록논문목록, 저자별 찾아보기표 및 중심단어별 찾아보기표를 만든다.
- () 5점 : 초록을 DB로 제공하고 있다.

2. 실물평가 항목 :

평가단 모든 위원이 평가대상 학술지의 최근호를 보고 평가하는 항목 (13개 항목)

2-1 표지도안 상태와 오자(誤字) 유무

- () 0점 : 표지 지지(紙誌)사항에서 오자가 발견되고 지면배치(layout)나 도안에 개선할 사항이 많다.
- () 1점 : 표지의 지지사항에서 오자가 발견된다.
- () 2점 : 표지의 지지사항에 오자는 없으나 지면배치와 도안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
- () 3점 : 오자가 없고, 표지 도안은 보통이다.
- () 5점 : 훌륭하다.

2-2 투고규정, 판권관리란, 게재논문목록 등 편집인이 관리해야 하는 부문의 오자유무 및 인쇄상태

- () 0점 : 배열이 조잡하고 인쇄상태가 좋지 않으며, 오자(띄어쓰기포함)도 자주 발견된다.

- () 1점 : 조잡하지는 않으나 인쇄상태가 나쁘고 오자도 발견된다.
- () 2점 : 인쇄상태는 괜찮으나 오자가 발견된다.
- () 3점 : 오자는 없으나 인쇄상태가 좋지 않다.
- () 4점 : 오자가 없으며 인쇄상태는 보통이다.
- () 5점 : 오자도 없고 인쇄상태도 좋다.

2-3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Ⅰ) : 학술지의 기본적인 사항

- (1) 1점 : 취급논문의 범위
- (2) 1점 : 간기
- (3) 1점 : 논문의 종류별 논문 구성요소
- (4) 1점 : 논문 작성의 기본 요령
- (5) 1점 : IRB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 여부
- () : (1)-(5) 해당 점수의 합

2-4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Ⅱ) : 투고원고 작성에 관한 사항

- (1) 1점 : 제목 작성 요령
- (2) 1점 : 초록 작성 요령
- (3) 1점 : 중심단어(key word) 작성 요령
- (4) 1점 : 본문의 용어 및 도량형에 관한 사항
- (5) 1점 : 그림, 사진, 도표 작성 요령 및 규격 사항
- () : (1)-(5) 해당 점수의 합

2-5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Ⅲ) : 원고 작성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1) 1점 : 저자의 원고제출 전 점검사항 표
- (2) 1점 : 교정쇄 처리에 관한 사항
- (3) 1점 : 원고의 표지 작성 요령
- (4) 1점 : 책임저자에 관한 사항
- (5) 1점 : Electronic원고(floppy diskette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 : (1)-(5) 해당 점수의 합

2-6 논문(국문 또는 영문)제목, 저자 이름 및 소속 사항의 인쇄 체제와 오자 유무

- () 0점 : 논문제목에서 1군데 이상의 오자가 발견된다.
- () 1점 : 논문 상호 간 체제상의 차이가 있다.

- () 3점 : 일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오자도 없지만 고유명사 표기의 오류와 부호를 잘못 표기한 경우가 있다.
- () 4점 : 이상의 사항은 좋으나 제목 등을 간결하게 처리하지 못한 논문이 있다.
- () 5점 : 완벽하게 처리되었다.

註. 체제상의 차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1) 영문 또는 영문초록의 저자이름 표기에 차이
- 2) 영문 또는 영문초록의 저자이름 뒤에 학위 표기 여부의 차이
- 3) 활자크기의 차이
- 4) 소속 표기와 관련하여 도시명, 우편번호, 국가명 표기의 차이

2-7 영문(또는 국문)초록의 체제와 오자 유무

- () 1점 : 체제가 일정치 않다.
- () 2점 : 체제는 일정하지만 오자가 발견된다.
- () 3점 : 영문법에 틀린 문장이 있고 투고규정에서 정한 단어 수를 초과하는 초록이 있다.
- () 4점 : 이상의 문제는 없으나 지면배치에 짜임새가 없다.
- () 5점 : 완벽하다.

註. 일정치 않은 체제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1) 정형초록(structured abstract)과 비정형초록(nonstructured abstract)의 혼용
- 2) 초록 내 결과에 번호를 붙여 기술한 논문이 있는 경우(요약형식)
- 3) 여러 개의 문단(paragraph)으로 나눈 초록이 있는 경우
- 4) 줄간격이 초록마다 다른 경우 등

2-8 본문(참고문헌 인용 및 문헌 나열 관련 사항 제외)의 체제와 오자(띄어쓰기 제외) 유무

- () 0점 : 체제에 일관성이 없거나 논문구성요소 중 일부요소가 누락된 논문이 게재된 경우
- () 1점 : 어색한 문장과 오자가 자주 발견되거나 오자가 많은 논문(해당 논문에서 페이지 당 2개 이상)이 게재된 경우
- () 2점 : 무작위로 택한 3쪽에서 오자의 수가 페이지당 평균 1-2개
- () 3점 : 무작위로 택한 3쪽에서 오자의 수가 페이지당 평균 1개 미만
- () 5점 : 무작위로 택한 3쪽에서 오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2-9 참고문헌 인용과 나열 방식

- () 0점 : 투고규정에 참고문헌 인용 및 나열 방식에 대한 안내가 없다.

- () 1점 : 투고규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쓴 논문이 있다.
 - () 2점 : 모든 논문을 투고규정이 정한 방식에 맞추었으나 참고문헌의 약자표기에 오류가 있다.
 - () 3점 : 이상의 문제는 없으나 저자이름, 또는 연도-권-호-페이지 표기방식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된다.
 - () 4점 : 체제상 완벽하나 오자가 발견된다.
 - () 5점 : 무작위로 택한 2편의 논문에서 전혀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
- 註. 방식이란 Harvard style, Vancouver style 또는 기타 변형 style을 말한다.

2-10 표(table)의 설명문안과 배치

- (1) 1점 : 오자가 없다.
- (2) 1점 : 설명 문안의 체제가 일정하다.
- (3) 1점 : 사용한 약어의 설명 각주가 있다.
- (4) 1점 : 표의 내부에 수직선이 없다.
- (5) 1점 : 표의 크기 및 배치가 적절하다.
- () : (1)-(5) 해당 점수의 합

2-11 사진의 선명도, 설명 및 배치

- (1) 1점 : 사진이 선명하다.
- (2) 1점 : 설명체제(배율, 염색명 등 포함)에 일관성이 있다.
- (3) 1점 : 설명이 정확하고(사진에 화살표 등 표시) 상세하다.
- (4) 1점 : 크기가 적절하다.
- (5) 1점 : 사진의 배치가 적절하다.
- (6) -3점 : 원본 사진이 아니거나 남의 사진을 사용하면서 원저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
(3점을 감점함)
- () : (1)-(5) 해당 점수의 합

註. 평가대상 학술지에 사진을 포함한 논문이 없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2-12 도형그림(line drawing)의 작성 방법, 글씨 크기 및 배치

- (1) 1점 : 도형그림의 작성 방법이 전문적이다(컴퓨터 그래픽 혹은 전문가적 그림).
- (2) 1점 : 글씨 크기가 적절하다.
- (3) 1점 : 도형그림 크기가 적절하다.
- (4) 1점 : 배치가 적절하다.

- (5) 1점 : 그림설명(제목, 약어)에 오자가 없다.
 (6) -3점 : 타인의 도형그림을 사용하면서 원저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3점을 감점함).
 () : (1)-(6) 해당 점수의 합

註. 평가대상 학술지에 도형그림을 포함한 논문이 없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2-13 학술지의 판권과 연락처에 관한 별 쪽의 안내

- (1) 1점 : 학술지의 목적 및 범위에 관한 간략한 기술
 (2) 1점 : 발행인, 편집인 및 편집위원에 관한 사항
 (3) 2점 : 연락처(주소, 전화, Fax)
 (4) 1점 : 홈페이지 및 e-mail 주소
 () : (1)-(4) 해당 점수의 합

3. 협의회 조사 항목 :

註.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평가하는 항목(6개 항목).

3-1 우리나라 의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정도

- () 0점 : 최근 3년간 결본율이 70% 이상인 경우
 () 1점 : 조사한 도서관 중 최근 3년간 결본(volume)이 50%-70%인 경우.
 () 2점 : 조사한 도서관 중 최근 3년간 결본(volume)이 50% 미만인 경우.
 () 3점 : 조사한 도서관 중 최근 3년간 결본이 30% 미만, 최근 10년간 결본이 50% 미만인 경우.
 () 4점 : 조사한 도서관 중 최근 3년간 및 10년간의 결본이 30% 미만인 경우.
 () 5점 : 조사한 도서관 중 최근 3년간 및 10년간의 결본이 15% 미만인 경우.
 () +1점 : 최근 3년간 결본율이 10년간 결본율의 1/2 이하로 감소한 경우 1점 가산

註. 1) 지령 3년 미만의 학술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령 3-10년의 학술지는 10년으로 간주한다.

3-2 게재논문의 자체 학술지 인용 비율(Journal Self-Citation Rate)

- () 0점 : 전혀 없다.
 () 1점 : 3% 미만
 () 2점 : 3% 이상 5% 미만
 () 3점 : 5% 이상 8% 미만
 () 4점 : 8% 이상 10% 미만

() 5점 : 10% 이상

註. 평가대상 학술지에 인용된 참고문헌 전체 중 자체 학술지에서 인용한 문헌 수의 백분율.

3-3 3개 주요 의학 관련 국제 색인초록 데이터베이스(EMBASE, Biosis Preview, CA Search) 등재 여부

() 0점 : 등재 안됨

() 1점 : 1곳에 등재

() 3점 : 2곳에 등재

() 5점 : 3곳 모두 등재

註. 등재 여부는 지난 3년간 계속적으로 등재된 경우로 제한한다.

3-4 Medline 또는 SCI (Expanded) 등재 여부

() 0점 : 등재 안됨

() 3점 : 한 곳에만 등재

() 5점 : 두 곳 모두 등재

3-5 출판 이후 3년 동안 SCI에 1회 이상 인용된 논문 편수

() 0점 : 없음

() 2점 : 1-4편

() 3점 : 5-9편

() 4점 : 10-14편

() 5점 : 15편 이상

註.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4년전 발행분을 이용한다.

3-6 SCI impact factor (최근 3년간)

() 0점 : 없음

() 1점 : 0.05 미만

() 2점 : 0.05 이상 0.1 미만

() 3점 : 0.1 이상 0.3 미만

() 4점 : 0.3 이상 0.5 미만

() 5점 : 0.5 이상

註.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4년전 발행분을 이용한다.

〈첨부 2〉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회의
의학학술지 재평가항목

제정 2004.3.30.

1. 자체평가 항목 :

註. 해당학술지 편집인이 관리하는 기록이나 경험을 이용하여 답해야 하는 평가항목
(실무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12개 항목)

1-1 최근 15년간 편집인 교체 횟수

- () 1점 : 9회 이상
- () 2점 : 6-8회
- () 3점 : 4-5회
- () 5점 : 3회 이하
- () +1점 : 편집인 전임제를 운영하는 경우 1점 가산.

註. 1) 지령 15년 미만의 학술지인 경우에는 15년으로 환산하여 횟수를 계산.
2) 편집인 전임제는 편집인이 학술지 편집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해당 학술지 발행기관이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1-2 편집위원회(또는 간행위원회)의 구성과 편집정책회의의 빈도

- () 1점 : 구성은 되어 있으나 편집정책회의 실적 없다.
- () 2점 : 해당 학회(또는 대학)의 회원(또는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의 회의 실적은 부정기적이고 3회 이내이다.
- () 4점 : 해당 학회(또는 대학)의 회원(또는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한다.
- () 5점 : 해당 학회(또는 대학) 소속원 이외의 편집관련 전문인(또는 출판사 직원)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의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한다.

註.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의 개정, 편집방침의 결정, 논문게재상 발생하는 분쟁사례의 해결 등을 위한 모임임. 논문심사 편의상 모이는 회의는 위에 포함되지 않음.

1-3 편집업무 지원관련 사항

- (1) 1점 : 편집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있다.
 - (2) 1점 : 편집업무 담당 사무직원이 있다.
 - (3) 1점 : 영문교정인을 별도로 두고 있다.
 - (4) 1점 : 원고의 체제 및 문장수정을 담당하는 copy editor가 있다.
 - (5) 1점 : 원고 접수일자,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재심사 여부, 게재여부 결정 일자 등을 장부 또는 컴퓨터로 관리한다.
- () : (1)-(5) 해당 점수의 합

1-4 논문 게재 결정

- () 0점 : 원고가 편집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쇄소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거나 제출 원고를 심사 없이 인쇄소로 넘기는 사례가 있다.
- () 1점 : 편집인 단독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 3점 : 1명의 상호심의(peer review) 결과에 따라 편집인이 결정한다.
- () 5점 : 2명 이상의 상호심의를 후 편집인이 판단하다.

1-5 1차 상호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최근 1년간) : 자료 제출 필요

- () 0점 : 상호심의를도 없고, 편집인이 원고를 보지 못한 상태로 인쇄되는 사례가 있다.
- () 1점 : 상호심의를 없이 편집인 단독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 2점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20%보다 많다.
- () 3점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20% 이내이다.
- () 4점 :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10%-20%이다.
- () 5점 :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10% 이내이다.

註. 1) 심사기간이 지연되면 편집인이 기간 단축을 독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2) 게재여부를 빨리 결정함으로써 저자가 수정 또는 다른 학술지에 접수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1-6 상호심의 1차 심사 결과(최근 1년간) : 자료 제출 필요

- () 0점 : 상호심의 제도가 없다.
- () 1점 : 게재논문의 10% 미만이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 () 2점 : 게재논문의 10%-20%가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 () 3점 : 게재논문의 20%-40%가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 () 4점 : 게재논문의 40%-60%가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 () 5점 : 게재논문의 60% 이상이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註. 오자 또는 자구 수정요구는 수정요구에 포함되지 않음.

1-7 상호심의 최종 결과 배척(rejection) 또는 저자회수(withdraw)율(최근 2년간) : 자료

제출 필요

- () 0점 : 전혀 없다.
- () 2점 : 5% 미만
- () 3점 : 5% 이상 10% 미만
- () 4점 : 10% 이상 20% 미만
- () 5점 : 20% 이상

- 註. 1)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뒤 재심 결과 또는 편집인의 최종 결정을 기준으로 함.
2) 저자수정을 의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이 도착하지 않으면 저자회수로 간주함.

1-8 기타 상호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 1점 : 심사위원이 재심, 3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2) 1점 : 논문심사 내역서, 저자수정 내역서 등을 보관한다.
- (3) 1점 : 논문심사 지침서 또는 상호심의 업무편람을 갖추고 있다.
- (4) 2점 : 논문 심사위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 : (1)-(4) 해당 점수의 합

1-9 정기 발행 여부(최근 2년간)

- () 0점 : 간기를 정하지 않고 원고가 모이면 발간한다.
- () 1점 : 간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 2점 : 간기를 지키지 못하여 합병호를 발간한 경우가 있다.
- () 5점 : 간기를 어김없이 지킨다.

1-10 저작권 보호(이중게재 방지) 조치

- () 0점 : 투고규정에 저작권 관련 조항이 없다.
- () 1점 : 투고규정에 저작권 관련 조항이 있으나 최근 2년간 상대측 편집인의 허락 없이 이중게재를 허용한 예가 있다.
- () 2점 : 투고규정에 저작권 관련조항이 있으나 최근 2년간 이중게재를 감시한 일이 없다.
- () 4점 : 투고규정의 저작권 관련 조항이 있으며, (서면상의 동의는 없었더라도) 양측의 합의하에 이중게재를 허용한 예가 있다.
- () 5점 : 양측의 사용 언어가 다르거나 양측 편집인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이중게재를 허용하는 등 관련 투고 규정이 구체적이며, 감시활동의 실적이 있다.

() +1점 : 저자 모두의 동의서를 받고 있으면 1점 추가.

1-11 발송처 범위 : 자료 제출 필요

- (1) 1점 : 해당 학회(또는 대학)의 회원(또는 교원)에 기관별로 일괄 발송한다.
 - (2) 1점 : 국내 유관기관(도서관, 언론사 등)에 배포한다.
 - (3) 1점 : 국외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 (4) 1점 : 판매실적이 있다.
 - (5) 1점 : Excerpta Medica, Biological Abstracts, Chemical Abstracts 등 의학 관련 국제전문 초록잡지에 발송한다.
- () : (1)-(5) 해당 점수의 합

1-12 찾아보기표(index) 작성 여부

- () 0점 : 작성한 적이 없다.
- () 1점 : 수년에 한 번씩 만든 적이 있다.
- () 2점 : 권말마다 작성하지만 수록논문 목록 또는 (and/or) 저자별 찾아보기표를 만든다.
- () 3점 : 권말마다 수록논문목록, 저자별 찾아보기표 및 중심단어별 찾아보기표를 만든다.

2. 실물평가 항목 :

평가단 모든 위원이 평가대상 학술지의 최근호를 보고 평가하는 항목(13개 항목)

2-1 표지도안 상태와 오자(誤字) 유무

- () 0점 : 표지 지지(紙誌)사항에서 오자가 발견되고 지면배치(layout)나 도안에 개선할 사항이 많다.
- () 1점 : 표지의 지지사항에서 오자가 발견된다.
- () 2점 : 표지의 지지사항에 오자는 없으나 지면배치와 도안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
- () 3점 : 오자가 없고, 표지 도안은 보통이다.
- () 5점 : 훌륭하다.

2-2 투고규정, 판권관리란, 게재논문목록 등 편집인이 관리해야 하는 부문의 오자유무 및 인쇄상태

- () 0점 : 배열이 조잡하고 인쇄상태가 좋지 않으며, 오자(띄어쓰기포함)도 자주 발

견된다.

- () 1점 : 조잡하지는 않으나 인쇄상태가 나쁘고 오자도 발견된다.
- () 2점 : 인쇄상태는 괜찮으나 오자가 발견된다.
- () 3점 : 오자는 없으나 인쇄상태가 좋지 않다.
- () 4점 : 오자가 없으며 인쇄상태는 보통이다.
- () 5점 : 오자도 없고 인쇄상태도 좋다.

2-3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Ⅰ) : 학술지의 기본적인 사항

- (1) 1점 : 취급논문의 범위
- (2) 1점 : 논문제출 자격
- (3) 1점 : 간기
- (4) 1점 : 논문의 종류별 논문 구성요소
- (5) 1점 : 학술지의 공식 영문명칭과 약칭을 명시
- (6) 1점 : 논문 작성의 기본 요령
- () : (1)-(6) 해당 점수의 합

2-4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Ⅱ) : 투고원고 작성에 관한 사항

- (1) 1점 : 제목 작성 요령
- (2) 1점 : 초록 작성 요령
- (3) 1점 : 중심단어(key word) 작성 요령
- (4) 1점 : 본문의 용어 및 도량형에 관한 사항
- (5) 1점 : 그림, 사진, 도표 작성 요령 및 규격 사항
- () : (1)-(5) 해당 점수의 합

2-5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Ⅲ) : 원고 작성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1) 1점 : 저자의 원고제출 전 점검사항 표(학술지 내 또는 학회 홈페이지 참고 가능)
- (2) 1점 : 교정쇄(Page Proof) 처리에 관한 사항
- (3) 1점 : 원고의 표지 및 속표지 작성 요령
- (4) 1점 : 책임저자에 관한 사항
- (5) 1점 : Electronic원고(floppy diskette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6) 1점 : 인체실험의 경우 사전 동의와 IRB 승인서 요구 여부
- (7) 1점 : 동물실험의 IRB 승인서 요구 여부
- () : (1)-(7) 해당 점수의 합

2-6 논문(국문 또는 영문)제목, 저자 이름 및 소속 사항의 인쇄 체제와 오자 유무

- () 0점 : 논문제목에서 1군데 이상의 오자가 발견된다.
- () 1점 : 논문 상호 간 체제상의 차이가 있다.
- () 3점 : 일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오자도 없지만 고유명사 표기의 오류와 부호를 잘못 표기한 경우가 있다.
- () 4점 : 이상의 사항은 좋으나 제목 등을 간결하게 처리하지 못한 논문이 있다.
- () 5점 : 완벽하게 처리되었다.

註. 체제상의 차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1) 영문 또는 영문초록의 저자이름 표기에 차이
- 2) 영문 또는 영문초록의 저자이름 뒤에 학위 표기 여부의 차이
- 3) 활자크기의 차이
- 4) 소속 표기와 관련하여 도시명, 우편번호, 국가명 표기의 차이

2-7 영문(또는 국문)초록의 체제와 오자 유무

- () 1점 : 체제가 일정치 않다.
- () 2점 : 체제는 일정하지만 오자가 발견된다.
- () 3점 : 체제가 일정하고 오자도 없지만 어색한 문장이 발견되거나 초록이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다.
- () 4점 : 이상의 문제는 없으나 지면배치에 짜임새가 없다.
- () 5점 : 완벽하다.

註. 일정치 않은 체제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1) 정형초록(structured abstract)과 비정형초록(nonstructured abstract)의 혼용
- 2) 초록 내 결과에 번호를 붙여 기술한 논문이 있는 경우(요약형식)
- 3) 여러 개의 문단(paragraph)으로 나눈 초록이 있는 경우
- 4) 줄간격이 초록마다 다른 경우 등

2-8 본문(참고문헌 인용 및 문헌 나열 관련 사항 제외)의 체제와 오자(띄어쓰기 제외) 유무

- () 0점 : 체제에 일관성이 없거나 논문구성요소 중 일부요소가 누락된 논문이 게재된 경우
- () 1점 : 어색한 문장과 오자가 자주 발견되거나 오자가 많은 논문(해당 논문에서 페이지당 2개 이상)이 게재된 경우
- () 2점 : 무작위로 택한 3쪽에서 오자의 수가 페이지당 평균 1-2개
- () 3점 : 무작위로 택한 3쪽에서 오자의 수가 페이지당 평균 1개 미만
- () 5점 : 무작위로 택한 3쪽에서 오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2-9 참고문헌 인용과 나열 방식

- () 0점 : 투고규정에 참고문헌 인용 및 나열 방식에 대한 안내가 없다.
- () 1점 : 투고규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쓴 논문이 있다.
- () 2점 : 모든 논문을 투고규정이 정한 방식에 맞추었으나 참고문헌의 약자표기에 오류가 있다.
- () 3점 : 이상의 문제는 없으나 저자이름, 또는 연도-권-호-페이지 표기방식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된다.
- () 4점 : 체제상 완벽하나 오자가 발견된다.
- () 5점 : 무작위로 택한 2편의 논문에서 전혀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
- () +1점: 참고문헌을 모두 영문으로 기재하면 추가로 1점 가산함.

註. 방식이란 Harvard style, Vancouver style 또는 기타 변형 style을 말한다.

2-10 표(table)의 설명문안과 배치

- (1) 1점 : 오자가 없다.
- (2) 1점 : 설명 문안의 체제가 일정하다.
- (3) 1점 : 사용한 약어의 설명 각주가 있다.
- (4) 1점 : 표의 내부에 수직선이 없다.
- (5) 1점 : 표의 크기 및 배치가 적절하다.
- () : (1)-(5) 해당 점수의 합

2-11 사진의 선명도, 설명 및 배치

- (1) 1점 : 사진이 선명하다.
- (2) 1점 : 설명체제(배율, 염색명 등 포함)에 일관성이 있다.
- (3) 1점 : 설명이 정확하고(사진에 화살표 등 표시) 상세하다.
- (4) 1점 : 크기가 적절하다.
- (5) 1점 : 사진의 배치가 적절하다.
- (6) -3점 : 원본 사진이 아니거나(제록스 복사 등), 남의 사진을 사용하면서 원저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3점을 감점함).
- () : (1)-(5) 해당 점수의 합

註. 평가대상 학술지에 사진을 포함한 논문이 없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2-12 도형그림(line drawing)의 작성 방법, 글씨 크기 및 배치

- (1) 2점 : 도형그림의 작성 방법이 전문적이다(컴퓨터 그래픽 혹은 전문가적 그림).

- (2) 1점 : 글씨 크기가 적절하다.
 - (3) 1점 : 도형그림 크기가 적절하다.
 - (4) 1점 : 배치가 적절하다.
 - (5) -3점 : 타인의 도형그림을 사용하면서 원저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3점을 감점함).
- () : (1)-(5) 해당 점수의 합
- 註. 평가대상 학술지에 도형그림을 포함한 논문이 없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2-13 학술지의 판권과 연락처에 관한 별 쪽의 안내

- (1) 1점 : 학술지의 목적 및 범위에 관한 간략한 기술
 - (2) 1점 : 발행인, 편집인 및 편집위원에 관한 사항
 - (3) 2점 : 연락처(주소, 전화, Fax)
 - (4) 1점 : 홈페이지 및 e-mail 주소
- () : (1)-(4) 해당 점수의 합

3. 협의회 조사 항목 :

註.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평가하는 항목(8개 항목)

3-1 발행 일자 준수 여부

- () 0점 : 모든 호가 지연되었다.
- () 1점 : 연간 발행 횟수의 75% 이내에서 2주일 이상 지연되었다.
- () 2점 : 연간 발행 횟수의 50% 이내에서 2주일 이상 지연되었다.
- () 3점 : 연간 발행 횟수의 33% 이내에서 2주일 이상 지연되었다.
- () 4점 : 연간 발행 횟수의 25% 이내에서 2주일 이상 지연되었다.
- () 5점 : 정해진 발간일을 지키지 못한 일이 없다.

註. 최근 1년간 의편집 납본일(학술지 도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배송에 소요되는 기간 14일을 빼고 지연기간을 산출한다.

3-2 게재논문의 자체 학술지 인용 비율(Journal Self-Citation Rate)

- () 0점 : 전혀 없다
- () 1점 : 3% 미만
- () 2점 : 3% 이상 5% 미만
- () 3점 : 5% 이상 8% 미만
- () 4점 : 8% 이상 10% 미만

() 5점 : 10% 이상

註. 평가대상 학술지에 인용된 참고문헌 전체 중 자체 학술지를 인용한 문헌 수의 백분율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평균(KoMCI data 사용).

3-3 5개 주요 의학 관련 국제 색인초록 데이터베이스(SCI, PubMed, EMBASE, Biosis Preview, CA Search) 등재 여부

() 0점 : 등재 안됨

() 1점 : 1곳에 등재

() 2점 : 2곳에 등재

() 3점 : 3곳에 등재

() 4점 : 4곳에 등재

() 5점 : 5곳에 등재

註. 지난 3년간 계속적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등재로 인정한다.

3-4 SCI impact factor

() 0점 : 없음

() 1점 : 0.05 미만

() 2점 : 0.05 이상 0.1 미만

() 3점 : 0.1 이상 0.3 미만

() 4점 : 0.3 이상 0.5 미만

() 5점 : 0.5 이상

註. 최근 3년간 발표논문의 SCI 평균인용도(최근 3년간 발표된 논문이 평가시점까지 받은 총인용 수/ 발표논문 수). SCI JCR의 impact factor 산출방식과 다름.

3-5 참고문헌의 오류

() 0점 : 10% 이상

() 1점 : 8% 이상 10% 미만

() 2점 : 5% 이상 8% 미만

() 3점 : 3% 이상 5% 미만

() 4점 : 3% 미만

() 5점 : 전혀 없다

註.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발행분을 평가한다. 문헌의 오류란 투고규정상의 참고문헌 기재 방식의 오류가 아니라(학술지명, 연도, 권호수, 쪽수, 논문명, 저자명 등) 내용상의 인용 오류를 말한다. 참고문헌 오류율 = 오류 참고문헌 수 / 한국학술지 참고문헌 수(KoMCI data 사용).

3-6 학술지 논문의 온라인 이용 가능성

- 1점 : 학술지관련 Website가 있다.
- 2점 : KoreaMed LinkOut에 참여하고 있다.
- 1점 :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초록검색이 가능하다(무료, 회원제 또는 유료).
- 1점 :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문보기가 가능하다(무료, 회원제 또는 유료).
- 합계

註. KoreaMed를 제외한 국내 데이터베이스 수록 여부를 조사한다.

3-7 KOMCI Impact Factor

- 0점 : 0
- 1점 : 0.1 미만
- 2점 : 0.1-0.25 미만
- 3점 : 0.25-0.5 미만
- 4점 : 0.5-1.0 미만
- 5점 : 1.0 이상

註.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재평가 학술지만 해당.

3-8 KoreaMed 파일 입력률

- 0점 : 60% 미만
- 1점 : 60%-70% 미만
- 2점 : 70%-80% 미만
- 3점 : 80%-90% 미만
- 4점 : 90%-100 미만
- 5점 : 100%

註. 1997년 이후의 입력률(KoreaMed 입력호수/발행호수). 재평가 학술지만 해당.

KoreaMed에서 KoMCI까지

허 선

자랑하여도 충분하다.

지난 2006년 8월 14일 뜻밖의 글을 하나 받았다.

KoreaMed is a wonderful resource and I applaud your vision of making Korean research accessible to researchers worldwide. I would like to work with you to further increase the worldwide visibility of Korean medical research by including KoreaMed articles in Google and Google Scholar.

구글(<http://www.google.com>)의 담당자가 보낸 글이다. 몇 번 글을 주고받은 후 구글이 우리 한국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편협)에 가입하고, 우리 자료를 검색하여 메타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회원단체에 알린 뒤에 허락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2006년 2월 23일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포털회사인 NHN(<http://naver.com>)의 직원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3월 2일 춘천에서 4명의 직원과 면담을 가졌다. 토의 후 KoreaMed를 Naver의 검색 로봇이 방문하여 메타자료로 네이버의 서버에 쌓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NHN은 의편협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였다. 언급한 이 두 회사는 각각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검색 포털회사 및 우리나라 최고의 인터넷 포털회사이다. 국내와 국제 사회에서 최고의 회사에게서 제안을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자부심을 갖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의편협에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우리 위상이 높아졌고 애써 지 10년 만에 고급 정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래서 칭찬 한 마디가 개인이나 집단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의편협은 1996년 창립할 때 51개 단체회원으로 시작하여 2006년 10월 현재 158개 단체 회원, 29명의 개인회원, 그리고 9개의 특별회원으로 발전하였다. 이 정도의 업적이면 한국의 의료인이 땀 흘려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지 않을까 여긴다. 비록 십이만 건이라는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누가 보아도 알찬 데이터베이스를 꾸려 나가고 있다. 지금은 이렇듯 물 흐르듯 잘 운영하고 있지만 초창기부터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로 가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

았고, 난관의 연속이었다.

PubMed에 들어간다는 꿈으로

현 회장이신 박찬일 교수께서 1996년 2월 전화를 하셔서 의편협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셨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승낙을 하고 혹 정보 사업을 하면 한국메드라인 사업을 하여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발기대회 뒤 의협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뒤, 제1기 정보관리위원회에서 안윤옥 교수를 모시고 간사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처음에 한 일이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의 누리집(homepage) 만들기였다. 1996년 8월 12-14일 한림대학교 제3전산실에서 진행하였고, 모두 40명이 참석하였다. 박찬규 회장, 박찬일 운영위원장 두 분이 직접 격려차 춘천까지 왕립하였다. 첫 행사이며 그때로는 매우 새로운 분야이었고 많은 의사가 이 새로운 내용에 궁금하게 여기던 때였다. 그때까지 학회에서 학술지를 웹으로 보여주는 곳은 안과학회와 기생충학회 등 뿐으로 많지 않을 때였다. 이런 모임을 가진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Brandon Brylawski씨라는 PubMed 프로그래머에게서 1996년 4월 12일 받았기 때문이다.

I mention this to you because PubMed will include all quality peer-reviewed journals that wish to participate, not merely those indexed by current MEDLINE that is, it will be a superset of MEDLINE. If you know of excellent Korean journals that would want t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please e-mail us.

Note: the citation information (title and abstract), at least, would have to be translated into English.

그래서 영문으로 서지사향과 초록 정보를 보내주면 메드라인 학술지가 아닌 것도 실어 준다는 이 말에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나중에 정책이 바뀌어서 메드라인 학술지만 PubMed로 들어가서 많은 국내 학술지 편집인을 실망시켰다. 그리고 그때는 메드라인 책임자인 David Lipman 선생에게서 1996년에 PubMed가 시작한다는 글도 받고 하여, 잔뜩 기대를 갖고 시작한 일이다. Brylawski씨의 말을 믿고 시행한 워크숍이었는데, 그 이후 많은 학술지 및 학회가 누리집을 가지게 되었다(Fig. 1).

그리고 이 KoreaMed라는 말은 Brylawski씨가 제안한 말이다. 그 전에는 Korean Medline이라고 표기하였더니 Medline이라는 말을 미국립의학도서관에서 쓰니까 Korea Med가 어떻겠냐고 하여서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였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직한 이분



Fig. 1. Attendants to the first workshop (1996)

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면 매우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워크숍을 마치고 나서 의편협 소식지에 제2호에는 정보관리위원회 사업 계획으로 누리그물 학술지를 추진하고 누리그물 한국메드라인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중 누리그물 학술지는 각 학술지가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여 많은 곳에서 누리집을 만들어 선보였다.

꿈은 깨졌지만 우리도 미국립의학도서관처럼 하겠다는 일념으로

한국메드라인 사업 처음 논의는 한 유명 신문사의 디지털팀과 협력 타진부터 시작하였다. 1996년 9월 한 병원의 선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발행 부수로 정상에 가까운 한 신문사에서 학술 논문 정보를 웹으로 제공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배경으로는 그 신문사가 대학전문정보센터 육성 사업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한국과학재단과 공동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 있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회원 단체에 연락하여 14학회에서 그 회사 서버를 사용할 의향이 있음을 알리고 협의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 신문사는 우리에게 서버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지금도 전화 통화가 생생한데 “원-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의학학술정보가 돈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 진행에 대하여 아무 답이 없다가 하자고하니 원원 운운하며 거부한 셈이다. 제안도 그곳에서 하고 거절도 그곳에서 하였으니 우리가 결국 그 담당자의 세치 혀에 놀아난 꼴이 되어 매우 난감하였고 신청한 학회에게 의편협 체면만 구긴 셈이다. 의편협의 권위나 체면에 손상을 당한 한 예여서 이런 제안을 받는 것 자체를 다음부터는 조금 더 조심하여야 하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런데 그 교훈은 몇 번 더 시행착오를 하고 4년간을 허송한 뒤 결국 대우를 받으려면 경비를 충분히 지불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싫으면 직접 일을 하여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간단한 자본주의 사회의 진리를 터득하게 되었다. 이 신문사와 협의가 끝난 뒤, 2년 지난 1998년 다시 이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의학학술지 정보제공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느냐고? 물론 앞에 협의한 팀과는 다른 팀이었다. 그러나 한 마디로 “아니오.”

1997년에 들어 의편협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학술지 평가와 한국메드라인(KoreaMed)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몇 가지 원칙을 정하였다. 1997년 8월 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학술지에 대한 시범 평가를 발표하고, 한국메드라인 사업 추진설명회를 가졌다. 이 설명회에서는 평가를 통과한 학술지에 한하여 한국메드라인에 등재시킨다는 데이터베이스 질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선언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 질 도입 개념은 그 전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유일한 것이다. KoreaMed가 지금과 같은 평가를 받는 것도 미국립의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내용의 평가 개념을 우리도 받아들인 것이 밑거름이 되었다. 비록 그 평가 기준이 미국립의학도서관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이러한 평가 작업이 그 후 우리나라 의학학술지를 PubMed에 등재시키고 일부나마 국제 학술지로 키워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그 때 이런 사업을 실시하던 몇 개의 회사에게 안내를 하고, 기술력을 점검하고 하여 우선 “기”라는 당시로는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한 회사를

설명회에 초빙하였는데, 사정이 있어 담당자가 오지 못하였다. 그 후 다른 “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사업을 담당하고 싶다고 하여 실무 협의를 하고 계약을 하여 1997년 12월 말일부터 웹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자료는 처음 평가 사업할 때 기존의 메드라인 학술지는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Yonsei Medical Journal*, *Journal of Medical Scienc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이 5종의 학술지 내용 중 PubMed에 실린 것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약 4,000여 편의 학술지 영문 초록을 지금의 KoreaMed 화면과 유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1997년 12월 31일 개통하였다. Fig. 2 화면에서 Overview 설명이 있다.

그때 프로그램 개발비로 300만원을 지불하고 매달 30만원의 유지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렇게 하여 이 “나” 회사는 1998년까지 계속 조금씩 자료를 추가하면서 유지를 하였다. 그렇게 운영하던 회사가 1998년 말부터 이상이 생기더니 결국 1999년 들어서는 프로 그래머가 더 이상 작업하지 못하고 사장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확인하여 보니 사장이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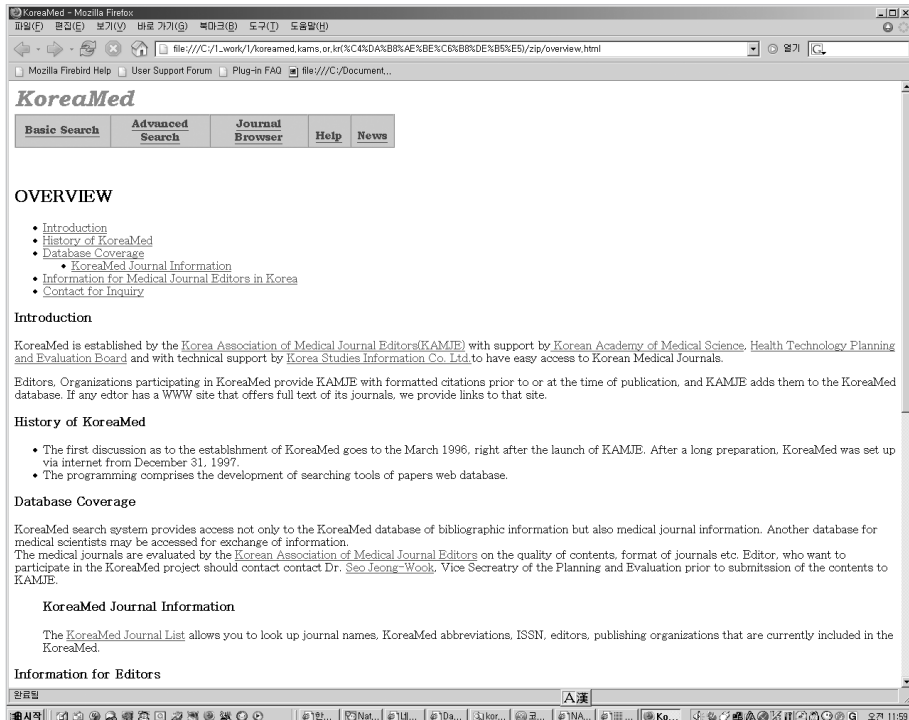


Fig. 2. Overview screen of the early KoreaMed in December 1997.

사를 떠나고 다른 직원이 회사를 맡는 등, 도저히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수익 사업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저비용으로 유지가 불가능하였다.

정보위에서는 다시 몇 개 업체에 알리고 운영을 맡을 곳을 찾던 중, “다” 회사에서 경비 없이 무료로 맡겠다고 하여서 1999년부터 시작한 의편협 제2기 회장 함창곡 회장, 정보관리위원장 김수녕 교수와 같이 1999년 5월 회사도 직접 방문하여 협의하여 2000년 6월 1부터 2002년 3월까지 맡아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상당히 큰 회사이고 능력도 있다고 판단하고 추진하였다. 새 회사가 운영을 시작하여 1999년 12월에는 10,000편이 입력되어 서비스하였다. 2000년 말에는 약 50,000편이 입력되어 서비스하였다. 그런데 2001년 1월 27일 오후 숙명여대 교수회 관 400호에서 열린 2000 회계연도 제3차 정보관리위원회에서 “다” 회사 직원이 참석하여 KoreaMed 일 년 유지비가 23,250,000원이라고 발표하며 운영비용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하여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고 의편협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2006년에 KoreaMed, KoMCI, KoMCI Web까지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하는데 110,000,000원 소요하는 것에 비하여 “다” 회사가 제시한 운영비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상업회사에서 애초에 수익이 나지 않을 사업에 투자한 것이 무슨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KoreaMed를 통하여 각 학회와 전문정보 제공에 대한 협약을 맺어 사업 대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실제 많은 의학학술단체가 “다” 회사와 계약을 하였다. 아마도 그런 사업을 하여 얻는 수익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고 추측한다. 결국 이런 언급 후에 2001년 2월 들어 사업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한다

우리가 경비를 지원한 것도 아니므로, 어쩔 수 없이 서버를 잠시 다른 벤처 회사에 옮겼지만 그 회사에서 해킹을 당하여 다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서버실에 옮겼다. 대학교는 회선 속도가 충분하여 서비스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2001년도 3월 이후 의편협이 직접 작업을하기로 결정하였다. 1996년부터 준비는 하여 왔지만 상업회사는 결국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맡아 할 수 없다는 간단한 자본주의 원리를 다시 한 번 배우고, 결국 적은 비용으로 꾸준히 운영하려면 직접 하는 도리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 기획을 시작하지 5년 만에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한림대학교 출신 프로그래머에게 요청하여 KoreaMed 프로그램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조도 다시 설계하는 등 체제를 가다듬고, 입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베이스를 2001년 9월 14일부터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 9월 중에 한 번 이상 방문한 횟수는 138회이었고 하루에 8.4회 접속하였다. 그 후 계속 하루 방문객 통계를 내고 있고, 2004년 10월에는 하루

735.97회, 2005년 12월에는 634.53회, 그리고 2006년 7월에는 271.52회이었다. 즉 2005년까지 지속하여 방문자가 하루 평균 500회를 유지하다가 최근 급감한 것은 아마도 2006년도 11월 검색 로봇의 접근을 막은 것이 원인이었다. 작년까지 우리 KoreaMed의 정보가 여러 메타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어서 검색에서 KoreaMed로 연결하여 오던 것이 끊어진 것이라고 추측한다. 올해는 Naver와 Google에 열어주게 되므로 2006년 말에는 다시 방문자 수가 증가할 것 같다. 지금 운영하는 KoreaMed는 이후로 안정되게 운영하다가 한림대의 회선 문제로 서비스가 안 되는 문제, 그리고 서버가 노후되어 교체하여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2003년 8월 서버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Internet data center 회사인 Nextline (<http://nextline.co.kr>)에 두게 되었다. 그 후 서버는 3개로 늘었고, 이 회사에서 안정되게 운영을 하므로 큰 문제없이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초창기 정보위원회에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애쓰는데 들어간 노력과 시간과 비용은 의사와 같은 고급 인력이 맡아서 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것이었다. 처음부터 조금 더 단순하게 비용을 충분히 투자하였으면 매우 쉬웠을 것이다.

왜 영어로만 제공하나?

초창기에 정보제공을 영어로 할 것인지 우리말로 할 것인지 둘 다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영어 한 가지로만 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영어 및 한국어 두 가지로 제공하는 것은 투입 비용의 낭비라는 것이었다. 이 정보의 주 고객은 의사인데 영어로 제공하는 것이 불편하고 한국어가 편하고 할 이유는 없다. 이미 PubMed에 익숙한 한국의 의사에게 그 환경 그대로 보여주면 충분하다. 반면 영어로만 제공할 때 장점은 이중 입력 작업이 필요 없는 데다가 우리 정보를 전 세계의 영어 가독 인구 약 10억 명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미 과학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표준이 된 영어로 제공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철저하게 전 세계의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제공하였으므로 KoreaMed 방문객의 60%는 국외에서 온다.

MeSH를 도입할 것인가?

MeSH (<http://www.nlm.nih.gov/mesh/meshhome.html>)를 도입하여 KoreaMed에서 통제어로 입력을 잘 할 수 있다면 검색의 질이 매우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 통제어 입력 작업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미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전문 인력과 입력요원을 충분

히 고용하여 작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가톨릭의과대학 도서관의 김호배 선생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논문에 MeSH를 부여하여 시디롬을 제작하였으며 MeSH에 대한 책자도 발간한 역사가 있다. 우리 KoreaMed에서도 비록 처음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예산도 배정하기 힘들지만 다행히 정보관리위원인 김수영 교수가 MeSH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계속 공부하여서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정보관리위원회 산하 MeSH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작업하기로 하였다. 2003년 6월 11일 의협 지하 1층 의료정책연구소 회의실에서 조승열, 김수영, 이춘실, 정소나(가톨릭의대 도서관) 위원이 모여서 제1회 MeSH 소위원회를 열었다. 그 후 계속 MeSH 입력과 MeSH 워크숍에 대한 구체 일정을 정한 뒤 2003년 9월 18일과 10월 2일 두 차례의 워크숍을 열어 각 학회에서 찾아보기말에 MeSH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다. 또한 KoreaMed에 MeSH 입력을 지원하자는 의학도서관 사서의 훈련을 김수영 교수 감독하여 시행하고, 그 모임을 의편협이 지원하기로 하였다. 최근에는 매달 한 번씩 모여 MeSH를 입력하고 감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비록 발행하는 논문 수에 비하여 MeSH 입력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런 작업은 김수영 교수와 사서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전문가로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다. 이 MeSH 작업 역시 의편협의 제한된 예산 내에서 가능하다면 지원을 늘려 더욱 활성화시키고 가능하다면 전일제 MeSH 색인가를 확보하도록 하면 사용자가 조금 더 나은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KoMCI, KoMCI Web, KoMCI 저널 웹(KoMCI, KoMCI Web, KoMCI Journal Web)의 KoreaMed와 통합

KoMCI는 2001년부터 3월 당시 대한의학회 회장 지제근 교수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구성된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색인 정보 개발사업단에서 진행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인용색인 정보이다. 초창기부터 의학회 간행이사인 조승열 교수가 사업단장을 맡아 2006년까지 운영하였다. 즉, 미국 톰슨사에서 수행하여 널리 알려진 SCI 영향력지표(impact factor)를 국내 의학학술지 사이에서 계산하여 얼마나 우리나라 의학학술지가 인용되는가를 파악하고 우리 논문의 가치를 평가하는 토대를 만들려고 하였다[1]. 이 작업 역시 우리나라 어디서도 생산하지 못한 자료를 의사의 힘으로 만드는 것으로 우리나라 학술지 평가 분야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과연 얼마나 우리 의사들은 우리나라 의학학술지를 인용할까? KoMCI 2000년도 자료는 8.5%로 논문 한 편당 평균 1.8회를 인용하였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가장 인용도 지표가 높은 학술지는 “예방의학회지”이었다. 그 외도 숙명여대 이춘실 교수가 초기부터 자문을 하고 참여하여 다양하게 결과를 분석하여 매우 흥미로운 자료가

많이 나왔다. 이런 자료가 2002년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자리를 잡을 무렵 2003년부터 이런 인용도 지수에서 나아가 톰슨의 Web of Science와 같은 개개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다시 의편협 정보위원 중 다수가 참여하게 되어 2003년 4월 3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하여 2년을 기한으로 만들기로 하였다. 문제는 이 KoreaMed보다 훨씬 복잡하고 입력도 어려운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추가 예산은 첫해에 1,000만원, 두 번째 해에 1,500만원에 그쳤기에 어떻게 진도를 더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2004년 12월 5일까지 모두 6차의 실무회의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2005년 1월 KoMCI Web (<http://komci.org>)을 선보였다. 누구의 논문을 누가 인용하였나를 알 수 있는 흥미진진한 데이터베이스로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선보인 데이터베이스이다. 개개 연구자는 우리나라 학술지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을 다른 연구자가 얼마나 인용하는지 알 수 있어 결국 같은 분야 연구 학자의 그물망(network)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그리고 KoMCI Journal Web은 2005년 4월부터 시작하여 1년 5개월간 완성하고 2006년 9월 26일 대한의학회 창립 40주년 행사에서 시연하였다. 이것은 톰슨의 Journal Citation Reports (JCR)과 같은 내용으로 학술지의 인용도 지표, 인용 반감기, 피인용반감기 등을 도표와 그림으로 보여 주는 학술지 내용으로 KoMCI의 웹 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책으로 나온 것을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다양하게 결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 CD에서 보여준 내용을 그대로 웹에 구현한 것이다.

이런 대한의학회의 작업은 초기부터 의편협의 KoreaMed에 의존하고 있다. KoMCI의 분석 대상 학술지도 KoreaMed 학술지이며, KoMCI Web의 데이터베이스도 역시 KoreaMed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참고문헌정보를 덧붙인 것이다. 이렇듯, KoMCI의 일련 작업은 기본 정보를 기존의 KoreaMed로 하였기 때문에 매우 적은 비용으로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두 데이터베이스는 시작 단계부터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단지 보여주는 화면만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작업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할까?

초대회장 박찬규, 제2대 회장 함창곡, 제3대 회장 조승열 그리고 현 회장 박찬일 교수까지 그동안 의편협 역대 회장께서 KoreaMed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자리를 잡도록 애써 주신 정성은 실무를 맡은 정보위원회 위원들의 노력에 못지않은 큰 격려였다. 또한 이런 일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시고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아도 기다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잘 경청하면서 요청한 예산을 배정한 모든 임원의 꾸준한 관심이 이를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 지금까지 의편협 사업을 크게 나누면 학술지 평가, 편집인 훈련, 학술지에 대한 조사

사업, 그리고 KoreaMed일 것이다. 특히 KoreaMed는 웹을 통하여 전 세계에 서비스되므로,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런 작업에 초대 정보관리위원장 안윤옥 교수께서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제2대 및 3대 위원장 김수녕 교수의 실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이끌고 나갔다. 물론 우리 의사 사회에서는 아무리 이런 분야 열심히 일을 하여도 그냥 당연한 역할 이지 특별히 더 높이 평가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으나 자신의 시간을 이런 사업에 투자하면서 유지가 되도록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 모든 정보관리위원에게 큰 공을 돌려야 한다.

KoreaMed, KoMCI, KoMCI Web, KoMCI Journal Web 등은 비록 의사 사회에서 주도 하고 투자하여 이룬 사업이지만, 조금 더 자세한 사정을 말하면 숙명여대 이춘실 교수의 10 년간의 역작이라고 평가하여도 충분하다. 의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반적인 틀에 대한 생각을 전하면 문헌정보 전문가인 이춘실 교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시고, 의사가 문헌정보 전문가의 의견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의사가 의사 사회의 일에 자발적인 희생과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편협이 외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춘실 교수와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문헌정보학 전문가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 것이 결국 이 KoreaMed 사업이 지금과 같은 기틀을 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런 자문료를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KoreaMed의 초창기부터 데이터베이스 설계, 사용자 화면, 기능, 저작권 등등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꼼꼼하게 챙겼고, 경비가 매우 부족한 우리 상황에서 제자들을 동원하여 입력 작업을 하였다. 얼마 전 회의에서 이제 더 이상 저임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하여왔다는 자성의 목소리이다. 지금도 작업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춘실 교수의 제자로 잘 훈련된 전문가이다. 우리는 이춘실 교수의 의견을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받아들여 어느 것이든지 실현가능한 한에서 100% 반영하려고 애썼다. 우리가 전문가로 대우를 받으려면 다른 분야 전문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대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식 사회의 원칙을 잘 지킨 것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현 의편협 정보관리위원이면서 의학회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색인정보 개발사업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가톨릭의대 도서관의 정소나 선생의 도움이 우리 정보 사업 질 유지에 매우 큰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MeSH에 대한 선구자이고 KoreaMed 사업과 같은 구상을 일찍부터 하며 직접 시디롬으로 성과물을 내었던 김호배 선생의 뒤를 잇는 의학서지정보 및 MeSH 색인의 전문가인 의학사서로서 의사 사회의 정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구하기 어려운 문헌을 잘 완비한 가톨릭의대 도서관과 학술지 서지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한 정소나 선생의 협조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가슴 졸인 때는 잊고 싶다

창립부터 3대에 걸쳐 의협협 정보위 간사를 맡다가 제4대 위원장이 되어 작업을 맡아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난 10년간 가슴 졸인 일이 참 많기도 하였다. 처음 일하던 회사가 작업하다가 아무 소리 없이 작업을 중단한 때, 두 번째 회사가 경비 문제로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겠다고 한 때는 우리나라 이런 분야 회사의 현실과 그런 회사와 손잡은 판단력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당황스러웠다. 벤처 회사에 잠시 옮긴 서버가 남미로부터 크래킹을 당한 때, 한림대에 둔 서버가 학교 네트워크 장애로 서비스가 안 될 때,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둔 서버의 중앙처리장치 냉각기가 고장 나서 서버가 서버렸는데 원인을 바로 찾지 못하여 우왕좌왕한 때와 같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서비스 장애도 마음 졸이게 하였다. 그러나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때는 KoreaMed 담당 전임직원으로 대한의학회에서 채용한 첫 직원이 2003년 8월 다른 회사로 옮긴다고 할 때이었다. 우리 의사 사회가 이춘실 교수의 제자인 전문 인력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염려로 진전공공하였다. 그 다음에도 새로 임용된 두 번째 직원 역시 집안 일 돌보는 문제로 일 년여 만인 2004년 9월에 그만 뒀을 때 역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잠시 재택근무하다 돌아오라고 하였는데도 그만 두는 바람에 후임을 물색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다음부터는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으며 채용하느라 애를 먹었다. 가족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잘 훈련된 고급 전문 인력이 직장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가정이나 사회의 지지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때문이라서 앞의 경우와는 다른 어려움이었다. 다행히 일은 인수인계가 잘 되어서 지금은 의학회 3층의 의학문헌정보실에서 두 명의 전임 직원과 두 명의 입력요원이 상주하여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한시름 놓았다. 역시 무슨 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능력이 일을 좌우하므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점에서 의협협은 이런 실무 직원들에게 비록 월급은 어느 이상 주지 못하지만 전문가로서 대우를 하여 오고 있다.

맺는 말

이런 정보 사업에서 이제 의사는 사업의 틀만 정하고 세세한 것은 모두 직원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체제를 더 굳건하게 갖추려고 한다. 지금 2명의 전임 직원이 의학회 소속으로 되어서 KoreaMed, KoMCI, KoMCI Web, KoMCI Journal Web 등을 다루고 있지만 올해 또는 다음 회계 연부터는 4명으로 직원을 늘리는 것을 심의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 사업으로 우리나라 영문의학학술지를 PubMedCentral (<http://pubmedcentral.org>)에 등재시키도록

기술 지원할 것이다. 또한 출판물의 상호 참조를 쉽게 하기 위한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http://doi.org/>)를 논문마다 붙이기 위하여 CrossRef에 학술지를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받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http://crossref.org>).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던지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원래 구축 목적을 잘 유지하는 선에서 발전하여 나가면 충분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대한의학회. KoMCI 2000. 대한의학회, 서울, 2002.

■ 나의 임기에는 이런 일을 하였다

제2기 회장단

회장 함창곡

1997년 KoreaMed 사업계획의 추진과 함께 사업체로 선정되었던 업체는 초기에 약 4,000건의 자료를 입력하여 다소의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입력작업이 중단되다가 1998년 말 회사가 도산하며 KoreaMed 사업이 중단되었다.

1999년 3월 KoreaMed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회장을 맡게 되었다. 회비를 부담하고 있는 회원학회에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중 KoreaMed 사업이 가장 가치가 큰 것이라고 생각되어 역점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여러 의료전문 포털업체와의 접촉 끝에 비교적 많은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KoreaMed를 무료로 운영하여 주기로 계약하였다. 초반에 약간의 진전이 있는 듯 하였으나 조금 지나면서 입력이 주춤하여 일산에 있는 회사를 김수녕 정보위원장과 허선 간사와 함께 방문하여 사장과 전담직원을 만나 사업에 성의를 다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2001년 2월 2일 계약을 파기하였다. 결론은 계약조건이 무료였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었고, 파기에 따른 아무런 피해보상도 없었으며, 의편협만 사업의 지연이라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

정보관리위원회와 임원회의에서 KoreaMed 사업을 자체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서버는 허선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춘천 한림대학에 두고 이춘실 교수팀이 입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입력건수가 적기는 하였지만 정상적인 접속과 검색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하여 현재의 성공적인 KoreaMed의 출발점이 되었다.

2001년 9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제4회 세계의학학술지편집회의가 개최되었고 당시 운영위원이었던 김훈교 교수와 조수현 교수와 함께 참석하였다. KoreaMed를 소개하기 위한 명함을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자의 자격과 역할, 이해관계, 그리고 편집권의 독립을 들 수 있으며, 저자 역할의 정당성과 부정 공저자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있었다. 이해관계와 편집권의 독립도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졌고 토론이 있었다. 의료산업이 활발한 선진국에서는 이해관계와 편집권의 독립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으나, 우리로서는 아직 거리가 먼 느낌이었다.

2001년말 KoreaMed 입력이 20,000건을 넘었고, 2003년 8월에는 33,000건으로 점차 내용면에서도 검색기능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제3기 회장단

회장 조 승 열

2002년 3월 28일 의편협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본인은 대한의학회의 간행이사 겸 간행위원장직, *J Korean Med Sci*의 편집인직과 의학회가 시작한 KoMCI 사업단 단장직을 겸하고 있어 의학회 회장이나 이사회에 의편협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었다. 더구나 2001년 6월 개정된 의학회 개정 회칙 제 28조 협의회 조항에 따라 의편협은 의학회의 협의회가 되어 있었다. 의편협 회장이 되면서 학술지 평가 사업을 계속하는 일, 평가 사업 자체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이미 구축되어 운영되는 정보위의 KoreaMed를 계속 발전(임기 3년에 2만 개를 더 입력)시키는 일, 의편협 단체 회원의 범위를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의 PubMed와 비슷하게 치의학, 수의학, 간호학, 보건학 등 인접학문 분야에까지 확장하는 일 등을 중점적으로 하기로 계획하였다.

제일 먼저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임명하고 회장직 활동을 시작한 다음 정보위원회에서 잇단 건의가 있었다. 첫째로 KoreaMed 입력에 필요한 공간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였다. 의학회는 이 건의에 동의하고 당시 의학회 김진상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의협 신상진 회장과 협의하고 현재의 의협회관 3층 방(의쟁투가 사용하던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다. 둘째로 정보위는 KoreaMed 운영 요원(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의편협이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의학회 지원을 증액하여 달라고 하였다. 의학회 이사회는 이를 인준하여 의편협은 연간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액 지원받게 되었다.

공간과 일부 재정 문제 일부가 일단 해결되자 정보위는 KoreaMed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KoreaMed 등재 초록에 link-out icon을 설정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논문 원문(Full text)에 접속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 Link-out system은 PubMed에서 open access policy를 시작한지 1년 만에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이춘실 교수의 제의로 KoreaMed에서 실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의편협 단체 회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용자가 원문에 접속하게 하는 새롭고도 앞선 것이다. 그리고 학술지 논문의 서지 정보와 초록 정보의 XML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여 KoreaMed 입력을 신속히 실행하고 각 학술지의 편집 영역을 확대하도록 하고 각 학술지 편집 담당 요원을 워크숍을 통하여 교육하였다. 이 교육을 통하여 의편협 회원 학회가 PubMed 등재 학술지로 결정되었을 때 NLM이 요구하는 XML 파일 발송 방식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KoreaMed 등재에 필요한 인력을 최소화하고 결과적으로 의편협이 최소의 비용으로 의학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임 함창곡 회장 재임 시 KoreaMed를 의편협 자체 운영 방침을 정하고 시작한지 1년여 만에 현재 운영체제의 큰 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KoreaMed 1일 방문자 수가 150명이 되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01년 3월 대한의학회는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이 지원하는 자금으로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KoMCI)를 개발하기 시작할 때 인용정보 색인 사업의 대상 학술지는 KoreaMed 등재 학술지로 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 결정은 의편협 학술지 평가 사업과 그에 따른 학술지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

2003년에는 KoreaMed 등재 논문을 이용자가 더 유용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 PubMed의 예를 따라 MeSH (Medical Subject Heading)로 색인어를 입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의학 사서 업무의 꽃이라고 하는 MeSH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인력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의학사서가 모여 MeSH를 공부하는 모임을 의편협이 주선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였다. 아직도 KoreaMed의 MeSH 입력은 기대한 만큼 되지 않고 있다. 의편협 정보위는 위의 활동에 추가하여 KoreaMed Retro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KoreaMed에는 당초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입력하게 되었다. 그리고 KoreaMed Central 사업도 시작하였는데 이 사업은 학회의 재정이나 인력 등 상황이 좋지 못하여 XML 파일을 만들 수 없는 회원 학회를 위하여 이를 대행하는 사업이다. 2003년 4월에는 의편협의 KoreaMed 코디네이터를 대한의학회의 정식 직원으로 발령하였다. 매달 의편협 임원께 보고하는 활동 보고 양식도 이때에 틀을 잡았다. 의학회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의편협 활동이 확장됨에 따라 의편협은 재정적으로 어려웠으며 이를 조금이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KoreaMed 입력량에 따라 단체 회원 회비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2005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되었다.

2004년 2월에는 회비만 내고 의편협 활동 중 각종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게만 했던 특별 회원의 대표자와 의편협 임원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의학 학술지 편집과 인쇄를 대행하는 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의편협은 KoreaMed 운영에 관련된 기술 발전 상황을 설명하고 XML 워크숍 등에 열심히 참여하여 기술 향상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의편협 활동이 학술지 평가와 KoreaMed 구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대외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의편협 평가를 받은 학술지는 학술진흥재단의 평가를 면제받도록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 학술진흥재단과 의편협의 평가 통합 문제는 회원학회의 회원들이 소속 기관(대학, 연구소 등)에서 개개인 업적 평가를 받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 의편협의 평가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학술지 평가로 처음 실시한 것이지만 학술진흥재단은 평가 통합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회원학회 회원의 개인 업적 평가 문제는 회원 소속기관에 건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였다. 또 다른 문제는 KERIS, MEDRIC, 학술진흥재단 등 학술 정보 관련 기관이 원문 제공

서비스를 하면서 의편집 회원 학회의 학술지 원문을 각 기관에 제공하도록 의편집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문제였다. 이 문제는 KoreaMed가 link out system으로 원칙을 세운 바 있으므로 각 기관에 원문을 제공하는 등 저작권 관련 사항은 회원학회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였다. 의편집의 입장은 의편집이 학술지를 발간 제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회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회원 학회의 범위를 좁은 의미의 의학에 고정하지 않고 의학 관련 분야로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의편집 운영위원회는 의편집 회원의 자격을 더 심각하게 검토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 일은 운영위원회의 큰 업무가 되었다. 재임 기간 동안 간호학과 수의학, 치의학 분야 여러 학회가 의편집 단체 회원으로 인준받았다. 한의학 관련 학회가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존 단체 회원의 반발이 있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봉사하는 분을 많이 개인 회원으로 추천하여 함께 계속 일하고 의편집의 인적 구성을 더 젊게 하도록 하였다. 또 의학 정보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학술지 평가 기준도 개편하여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장직을 다음 회장에게 인계하였다. 일이 많았고 보람 있었던 기간이었다.

제4기 회장단

회장 박찬일

훌륭한 논문을 선별하여 일관성 있게 잘 꾸미고 손질하여 정시에 발행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영향력 있는 학술지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곧 학술지 편집인일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이하 '의편집' 으로 약칭)는 모든 회원단체의 학술지가 영향력 있고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학술지로 발전하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에 편리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널리 읽히고 인용되도록 하는데 그 설립취지가 있다.

의편집이 회원단체 학술지를 평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학술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편집인에게 교육하여 그 적용을 권장하며,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재평가하는 것은 모두 학술지의 발전을 독려하려는 설립취지에 따른 것이다. 물론 논문초록 데이터베이스인

표1 제4기에 시행한 워크숍 또는 심포지엄

일시/장소	주제(주관부서)	연제	연자(소속)
05.5.10 서울의대 암연구센터 이건희홀	웹-기반 투고관리 체계에 관한 워크숍 (정보관리위원회)	•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대한 소개	강무영/박재원(KISTI) 한동석(엠투커뮤니티) 김차중(메드랑) 김주한(의편집 기획평가위원)
05.11.30 서울의대 임상의학 연구소	(교육연수위원회)	• 편집인의 역할 • 심사위원의 역할 • 의학학술지 평가기준 • 우리말 논문 바로쓰기 • 우리말 의학용어의 기본원칙 • 편집인이 알아야할 통계처리에 대한 검증	조승열(의편집 전 회장) 한동수(의편집 교육연수위원) 홍성태(의편집 기획평가위원장) 송영빈(이화여대 인문과학부) 황 건(의사협회 용어위원장) 박병주(의편집 교육연수위원)
06.3.28 서울의대 임상의학 연구소	(정보관리위원회)	• WPRO/WHO의 Regional Index Medicus 사업 • PubMed 등재 전 준비 경험 • PubMed 등재 후 학술지 변화 • Open access와 open archives • 이종계재와 이차계재(홍성태)	서정옥(한국의학도서관협회회장) 박병주(의편집교육연수위원) 조동숙(간호학회지 전 편집인) 이춘실(의편집 정보관리위원) 홍성태(의편집 기획평가위원장)
06.9.6 서울의대 임상의학 연구소	의학논문의 출판윤리 (교육연수위원회)	• 이종계재와 이차계재 • Authorship • IRB의 출판 윤리 • 이종계재 - 국내 · 외 현황 • 이종계재의 사례 • PubMed와 KoreaMed의 취소논문 레코드 처리	홍성태(의편집 기획평가위원장) 황성수(가톨릭의대 영상의학) 김옥주(서울의대 의사학) 김수영(의편집 정보관리위원) 함창곡(의편집 출판윤리위원장) 이춘실(의편집 정보관리위원)

KoreaMed는 많은 사람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프라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업은 의편집이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업이다.

2005년 3월 29일 임기를 시작한 제4기 의편집은 교육위원회 기획평가위원회, 정보관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편집 사업의 근간이 되는 교육 사업, 학술지평가 사업, KoreaMed 업-데이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성과는 표1, 표2와 같다.

표2 2005년 3월-2007년 1월의 KoreaMed 관련 실적

	2005년 3월	2007년 1월
KoreaMed 등재학술지	105종	119종
KoreaMed 입력 데이터	100,047	126,333
KoreaMed LinkOut 학술지	30종	40종
KoreaMed Retro 학술지	72종(완료 22종)	83종(완료 27종)

기획평가위원회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4회의 학술지 평가(제18차-제20차)를 통해 19종의 학술지를 평가하고 그 중 14종에 KoreaMed 등재를 승인하였으며, 3회(제2-제4차)의 재평가를 위한 모임을 갖고 KoreaMed 등재 후 7년이 지난 29종의 학술지를 평가하여 7년 동안 상당한 발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 회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159개 학회 또는 대학이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표3).

표3 의편집 회원의 변동

회원의 구분	2005년 3월	2007년 1월	비 고
단체회원	146 (115+10+21)	159 (120+12+27)	(의학회 소속학회+의과대학+기타학회)
개인회원	23명	29명	신규: 김수영, 김훈교, 나은우, 이경수, 조수현, 최민호
특별회원	6	10	신규: 엠투커뮤니티, ProQuest 한국지사, 인터넷 포털 NHN(주), Google Scholar

제4기 의편집이 새로 시작하거나 새로이 관심을 갖게 된 사업은 1) 의편집 발전사 편찬, 2) 출판윤리, 3) KoreaMed의 세계화, 4) 의편집의 국제협력, 5) 학술지 평가항목 개발과 단체회원 가입 자격기준 보완 등이다.

1. 의편집 발전사 편찬

2006년은 의편집이 출범한지 10년째가 되는 해이다. 제4기 첫 번째 임원회의(2005년 4월 20일)에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의학 및 의학 관련 학술지가 얼마나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그리고 의편집이 그러한 발전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의편협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제4-3차 임원회의(2005년 9월 7일)에서 한시적 특별위원회인 의편협 발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조승열 전 회장, 위원: 송경순, 이춘실, 허선, 서창욱)를 구성하였으며, 곧 이어 열린 편찬위원회에서 책자의 표제를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과 함께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10년』으로 정하였다.

〈의편협 시작과 현재〉, 〈의편협의 주요 활동〉, 〈회원단체의 구성과 변화〉, 〈국내 의학학술지의 현황분석〉, 〈학술지 평가〉, 〈KoreaMed에서 KoMCI까지〉, 〈출판윤리〉, 〈의편협의 미래, 추진방향〉, 〈의편협 활동에 대하여〉 등을 주요 집필분야로 정하고 집필자를 선정하였다. 〈의편협의 주요활동〉에는 상호심사제도와 투고규정 준수의 중요성, 학술지평가사업의 역할, 의학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KoreaMed) 구축과정, KoreaMed가 국내의학학술지 정보화에 미친 영향, 학술지 국제화 노력 등을 담기로 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국내의학학술지가 의편협 설립 이전에 비하여 얼마나 달라졌는지 가능해보려는 것이 이 편찬사업의 목적이다.

2. 출판윤리

2004년 11월 대한소아과학회지, 그리고 2005년 11월 *BMC Infectious Diseases*에 게재된 논문의 이중게재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 ‘명백한 이중게재’ 라는 홍성태 기획평가위원장의 검토결과에 동의하고,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에 회신하였다. 그 후 2006년 6월 서울의대로부터 이중게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해온 사례가 있었으며, 그 심의를 함창곡 회원에게 의뢰하고 ‘이중게재에 해당’ 한다는 심의결과를 의편협 명의로 회신하였다. 끊이지 않는 유사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의편협은 함창곡 회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출판윤리위원회를 하나의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2006년 6월 14일). 이에 앞서 2005년 9월 제28호 의편협 소식지에 홍성태 회원이 기고한 ‘중복출판과 이차출판의 차이와 학문윤리’를 게재한 바 있으며, 2006년 7월에는 제31호 소식지를 통해 이중게재논문 철회에 관하여 안내한 바 있다.

출판윤리위원회는 2006년 7월 6일 첫 모임을 갖고 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였다. 1) 그해 가을 교육위원회 워크숍에서 이중게재에 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2) 각 회원단체에 이중게재 논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도록 요청하며, 3) 이중게재로 판명된 논문은 KoreaMed 데이터베이스에서 철회하는 절차를 회원단체에 공고하고, 4) 이중게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5) 이중게재, 연구 진실성, 논문작성 진실성, 저자되기, 이해상충 등을 골자로 하는 『의학논문 출판윤리』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3. KoreaMed의 세계화

국외에서도 KoreaMed와 KoMCI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Naver와 Google에 자료를 개방하고, 회원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각종 교육을 통해 국내 학술지의 PubMed (Medline) 등재를 유도하고 있으며, '학술지의 국제화'를 금년도(2007년 3월) 워크숍 주제로 결정하여 CrossRef 가입 및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부여와 PubMed Central을 다루기로 하였다.

4. 의편집의 국제협력

KoreaMed 및 KoMCI에 관한 2가지 국제협력을 추진 또는 추구하였다.

첫째, WHO의 서태평양지부(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WPRO)가 추진하는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WPRIM) 구축에서 수행하고 있는 선도적 역할이다. 의편집은 서정욱 회원을 통해서 WPRO로부터 KoreaMed DB를 확대하여 서비스하거나 학술지평가, DB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경험을 전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WHO의 사업배경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2006년 1월 마닐라에 있는 WPRO를 방문(조수현, 서정욱, 허 선, 김수영 회원)하였으며, 그 후 WPRIM 구축을 위해 KoreaMed 프로그램을 심어주고, 필리핀의 WPRIM 실무자 2명(Mark Bendo, Wilfred Nauei)을 2주 동안 초청하여 KoreaMed 및 KoMCI Web과 관계된 실무적 내용을 교육하였다. 또한 평가를 통해 WPRIM에 등재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술지를 선별하는 국가별 학술지선정위원회(National Selection Committee) 구성을 촉구하였다. 2006년 12월에는 'Meeting on the Development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and the Global Health Library with China Collaboration' 주제의 북경회의에 참석하였고(서정욱, 조수현, 홍성태 회원과 대한의학회 장현도 부장), 2007년 2월 초부터 KoreaMed 데이터를 WPRIM에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KoreaMed: 우리 학술지 Medline 등재의 꿈 세계보건기구에서 꽃을 피우다'라는 서정욱 회원의 기고(제31호 소식지)를 통해 WPRIM에 대한 의편집의 역할을 소개하였다. 2006년 8월, WHO 의학도서관 총괄책임자인 Yvonne와 간담회를 갖고 WPRIM 및 APAME (Asian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를 위한 WHO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둘째, Thomson Scientific Asia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KoMCI Web을 Web of Science와 패키지로 판매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SCI 데이터베이스와 KoMCI 데이터베이스의 교류, Thomson Scientific과 의편집/대한의학회의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5. 학술지 평가항목 개발과 단체회원 가입 자격기준 보완

학술지평가와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항목의

개선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학술지평가에 있어서 평가위원 간 평가점수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재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기획평가위원회의 주요 관심사로 삼고 있다.

최근 대한의학회가 신설학회를 승인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학술지 발행여부를 중시하면서 의편집은 대한의학회로부터 의퇴되는 학술지를 심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편집은 단체회원 가입 자격에 대한 규정을 보완 또는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한의학 관련학술지의 단체회원 가입 문제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치의학, 간호학, 수의학과 달리 한의학의 경우 근거중심의 과학성을 판단하거나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학술지의 단체회원 가입에 부정적이었다. 앞으로 단체회원 가입 심사기준에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근거중심의 과학적 논문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한편, 한의학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그 밖에 KoreaMed 입력요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입력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한국의학원에 안정적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인건비 이외의 각종 신규사업(DOI 사업과 출판윤리 관련사업, 의편집 발전사 편찬사업)과 예산부족 때문에 거의 중단된 MeSH 입력사업의 재개도 한국의학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경상비 확충을 위해 단체회원 연회비 인상, KoreaMed 광고협찬, 특별회원 추가 등을 고려하고 있다. 2006년에는 국가 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로부터 연구비(15,000,000원)를 지원받아 KoreaMed 운영에 사용하였다.

KoreaMed 등재학술지의 판권은 대개 해당학회가 보유하고 web에서 원문을 보려면 KoreaMed로부터 학회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한다. 출판사가 학술지 발행과 동시에 web에서 원문을 서비스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의편집 특별회원과 협의할 예정이다. 회원학술지 발행인,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회장: 서정욱), 특별회원과의 공조를 통한 국내 학술지의 유료화도 의편집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 중 하나이다.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PubMed 등재 경험

경희의대 소화기내과 김 병 호

필자가 대한소화기학회지 편집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인가로 생각된다. 그때까지 학회지 간행에 대해서는 주로 경험으로부터 배운 정도였으며, 간행위원의 역할은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를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이러한 개념은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한소화기학회지 간행에 참여하면서 원고교열(copy-editing)이라는 또 다른 역할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

당시 대한소화기학회지 편집인이었던 서울의대 정현재 교수는 원고교열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학회지 수준향상에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지금 보아도 매우 세심하다고 생각 되는 대한소화기학회지 '논문접수 시 점검사항'은 원고제출자가 준수할 사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간행위원들은 이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만 했다. 예를 들면, 이미 발간된 과월호 중 오류 부분을 찾아내어 간행회의에서 발표함으로써 간행위원들을 진땀나게 하였다. 또한 간행에 일가견이 있는 외부인사들을 초청하여 좋은 강의를 듣기도 하였는데, 언뜻 생각나는 내용 중에는 서울의대 이비인후과 민양기 교수의 논문심사의 원칙, 성균관대의대 기생충학교실 조승열 교수의 논문심사 시 주의사항 등이 있다. 사실 원고교열은 출판사의 전문 교열자가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지만, 국내 출판사의 영세성 때문에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국내 출판사도 외국과 같이 대형화되어 전문교열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면 하지만, 그 전까지는 간행위원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후 편집 책임을 맡게 된 것은 2000년 말부터였는데, 당시 학회지의 기본틀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다. 전임 편집인의 노력으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편집)의 평가를 받아 등재되어 있었고, 한국학술진흥재단에도 등재후보로 올라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편집인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PubMed 등재를 추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Medline에 게시된 "PubMed 등재에 필요한 필수사항(Critical Elements for Indexing)"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형식적인 면에서는 이미 의편집이나 학술재단의 평가를 받은 직후여서 당시 수준으로도 큰 문제는 없었다. 필수사항 설명에는 등재심사가 LSTRC (Literature Selection Technical Review Committee)에서 이루어지고, 위원 수는 12명으로 4년 임기제이며, 연 3회 심사하는데 한 번에 140개 정도의 학술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었다. 또한 학술지 자국어에 대한 별도심사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학술지 내용 중 영문 부분의 중요성을 암시하였다. 이에 따라 학술지 목적과 개요, 간행위원 명단, 약어목록, 목차, 투고규정, 저작권 동의서, 논문접수 시 점검사항 등을 영어로 작성하여 추가하였고, 각

논문의 첫 장에 영문초록, 제목, 저자, 소속 외에 교신저자 주소 등을 영어로 추가함으로써 외국독자가 논문의 첫 쪽만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문교정은 논문심사 시 원어민이 영문초록과 그림설명을 1차로 확인하였고, 이어서 영어에 능통한 간행위원이 재점검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아울러 참고문헌도 완전히 영어로만 작성하도록 규정을 바꾸었고, PubMed 검색 결과와 일치하는지 100% 점검하였다. 등재신청 전 마지막으로 의편협 홍성태 평가위원장에게 최신 호 한두 편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여 간행위원들에게 보완할 점을 피드백시킴으로써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회지의 형식적인 부분은 상당히 보완할 수 있었다. 그러나 PubMed 등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학술지의 질인데, 국내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로서 수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PubMed 등재 요건에 보면 지역적으로 중요한 학술지 선정에 고려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문제는 대한소화기학회지가 지역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학술지인지를 심사위원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등재신청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먼저 본 학술지가 국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크다는 점을 언급한 후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즉 의편협(KAMJE)은 한국의학학술지를 대표하는 편집인 협의체로서 여기에서 발행되는 인용정보(KoMCI)에 의하면 대한소화기학회지 인용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http://komci.kams.or.kr/>), 한국학술재단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 작업을 하는데, 본 학회지는 당시까지 재단에 등재된 유일한 소화기학 학술지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http://www.krf.or.kr/>).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상기 웹사이트의 영문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지만, LSTRC 심사자들이 직접 들어가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하여 2003년 2월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노심초사 심사결과만 기다렸다. 드디어 막 더위가 시작되던 7월 미국립의학도서관으로부터 한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는데, 심사 결과 귀학회지가 ‘very good (score between 3.5 and 3.9)’으로 평가되어 PubMed에 등재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통보내용을 믿기가 어려워 몇 번이고 반복해서 편지를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실제 등재 작업에서 학회지 명칭이 ‘Taehan Sohwagibyong Hakhoe chapchi’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명칭이 ‘대한소화기학회지’의 과거 이름인 ‘대한소화기병학회잡지’라는 사실까지 파악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만일 이 이름으로 등재된다면 누구라도 퀴즈 풀기를 하듯 학술지명을 해독해내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PubMed 측이 어떻게 과거 학회지 이름을 알아냈는지도 몹시 궁금하였지만, 더 급한 문제는 등재명을 영어로 바꾸어야 하는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서 LSTRC 위원장과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문의한 결과, 영문 학회지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을 새로 신청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러한 답변을 받기가

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메일이 오고가야 했는데, 아마 PubMed 측으로서도 이러한 경험은 처음이었던 같다. ISSN은 'ISSN International Center'에서 정기간행물에 대해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 '국제표준 정기간행물 번호'라고 하며, 마치 사람의 호적등본과 같은 것이다. 문제는 간행물이 영문명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앞표지가 완전히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급히 학회지 표지를 바꾸어야 했다. 그러나 영문명 등록을 위한 ISSN을 획득하는 데는 신청한지 채 1주가 걸리지 않았다. 알고 보면 쉬운 것을 그 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억울하기도 하였다. 그간의 사정을 역으로 추정해 보건대, 이전에 학회 차원에서 학회지명을 변경할 당시 ISSN을 새로 신청하지 않은 채 바꾸었고, 이번에 LSTRC 심사에 통과된 후 PubMed 측에서 학회지 표지에 있는 ISSN을 보고 미국회도서관에 등록된 과거 학회지명을 그대로 인용했던 것 같다.

이후 등재 실무는 숙명여대의 이춘실 교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XML 태깅 작업은 의편협 이윤혜씨의 협조로 이루어졌기에 이 글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때가 아마 2003년 10월 7일이었는데, 드디어 PubMed에서 대한소화기학회지 논문들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래는 한두 달 정도 더 빨리 PubMed에 올릴 수도 있었지만 학회지 표지를 바꾸고 영문명 ISSN을 득하는 데 시간이 걸려 지연되었다. 그러나 PubMed 검색에서 '*Korean J Gastroenterol*'이라는 누가 보아도 단번에 알 수 있는 학회지명을 확인하던 순간의 희열은 그 동안의 모든 노고를 깨끗이 털어내고도 남는 것이었다.

「예방의학회지」 PubMed 등재 경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 병 주

1947년 예방의학회가 창립된 이후 예방의학회지가 발간되기 이전에는 예방의학분야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축적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기초의학 관련 연구결과들을 발표할 수 있는 학술지는 대한의학협회지, 중앙의학, 최신의학, 종합의학, 한국의약, 현대의학 등 영리·비영리 종합학술지, 항공의학과 같은 군진 학술지와 임상의학 분야 학회지 및 각 의과대학의 학술지 또는 학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황상익, 권복규. 국내의학 학술지 50년사[1945-1995] -기초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의사학 1998; 7(1): 97-115), 예방의학 관련 논문들도 이러한 학술지에 주로 발표되었다.

예방의학회지는 1968년에 창간된 대한예방의학회의 공식 학회지로서 역학, 환경의학 및 의료관리학 분야뿐 아니라 보건학 분야의 최신지견과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1968년 창간호부터 1985년까지 연 1회 발간,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연 2회 발간,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연 4회 발간되다가 2005년 11월 4일 메드라인 등재가 확정된 직후인 2006년부터는 연 6회씩 발간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논문심사체제를 구축하여 학회지에 접수된 논문을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를 확정함으로써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우리 학회지는 관련 분야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우수한 학술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더불어 학회에서는 학회 이사장을 비롯하여 임원진의 임기가 2년인데 반하여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장기화하여 학회지 편집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임 위원장인 서울의대 조수현 교수는 재임기간(1998년 12월-2002년 11월) 동안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학회지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영문초록 표기, 본문의 인용문헌 및 참고문헌 표기, 본문의 표와 그림 등의 표기를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의 지침인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을 준수하도록 투고규정을 개정하였고, 게재논문의 영문초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열을 거치는 과정을 추가하였고, 학술지의 판형 및 지질수준을 개선하여 예방의학회지의 질적 수준이 인질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8년 하반기에 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2001년 상반기에는 학술진흥재단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02년 4월 대한의학회(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로부터 '영향력지표(Impact Factor)와 자체 학술지 인용을 제외한 영향력지표가 가장 높은 학술지상'을 수상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학회지를 SCI에 등재하고자 2002년 9월 SCI 등재를

위한 학회지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2003년 10월 SCI 등재가 승인되지 못하였다는 통지를 받아 학회 편집위원들 뿐 아니라 전체 회원들도 크게 실망하였다.

그 후 편집위원회에서는 메드라인 등재가 SCI 등재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아 메드라인 등재에 전념하기로 결정하였다. 2004년 5월 예방의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의학회지 영문명을 *Kore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Korean J Prev Med)*에서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J Prev Med Public Health)*로 변경하고, 학회지 표지의 앞면에 영문목차를 수록하고 뒷면에 국문목차를 수록하여 표지면의 내용을 조정하였다. 또한 학회지에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을 국문과 함께 영문도 신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 2월 학회지의 체제심사를 위하여 기존에 발간된 학술지(37권 2호-37권 4호) 3권과 심사를 요청하는 38권 1호(2005년 2월 28일 발간)를 발간일을 정확히 준수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메드라인 등재를 위한 심사를 받도록 발송하였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우리 학회지의 특징, 영문투고규정, 영문심사규정 및 편집위원장을 비롯하여 편집위원들의 간략한 영문이력서들을 첨부하였다. 심사용 학술지 38권 2호(2005년 5월 31일 발간)를 발송하면서 이전에 보냈던 전자우편 내용을 우편물에 다시 첨부하고, 전자우편도 다시 발송하였다. 그러자 6월 1일에 회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최소한 4권의 연속적으로 발간된 학회지를 받아야 심사에 착수한다는 것이었다 (Our policy is to schedule the review after at least 4 issues have been published).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를 기일을 엄수하여 연속적으로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더니 2006년 11월 4일자로 '예방의학회지가 메드라인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정식으로 우편을 통하여 전달받게 되었다.

2008년은 예방의학회지가 창간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03년 SCI 등재도전에 실패한 이후 4년이 지난 2007년에 SCI 등재에 성공함으로써 내년을 중년을 접어들기 전에 예방의학회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 SCI 재도전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원문에 대한 링크작업을 추진하여 인용도지수를 향상시키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계약을 체결하여 투고논문의 전자접수 및 전자심사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학회의 정보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영문원고의 투고를 적극 권장하고, 2007년도 접수 원고부터는 심사위원 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늘릴 예정이며, 각 분야별 외국인 저명학자를 섭외하여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Board)를 구성할 계획이다. 국내 학술지의 전반적 추세인 투고논문 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본 학회지가 메드라인에 등재되면서 2005년도에 58편의 원고가 접수되었던 것이 2006년 10월 현재 69편의 원고가 접수되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6년도부터 발간횟수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증가하여 채택된 원고를 신속히 발간하도록 노력하여 원고의 접수부터 발간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심사지연현상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수준 높고 신속한 심사를 해준 분에게 우수 심사자상을 수여하기로 2005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2006년 추계학술대회시 총회에서 처음으로 우수 심사자상을 수여하였다.

2007년에는 기필코 우리 학회지의 SCI 등재를 위한 재도전이 성공하기를 염원하고, 그 결과 더욱 수준 높은 논문들이 많이 투고되어 학회지의 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예방의학회 이사장의 적극 지원과 바쁜 업무 중에도 편집위원으로서 열심히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편집위원(강영호, 김현, 김순덕, 류소연, 이상일, 전진호, 정해관, 조성일, 조수현, 천병렬, 홍연표 교수)과 실무책임을 맡아서 말없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영주선생에게 이 글을 통하여 깊이 감사드린다.

Korean Journal of Radiology의 SCI 등재와 의편집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방사선과학교실 임 정 기

Korean Journal of Radiology (KJR)는 대한영상의학회(당시 대한방사선의학회)의 공식 학술지로 2000년 3월에 창간호를 낸 이후로 이듬해인 2001년부터 Web of Science (SCI-expanded)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었고, 2001년에 미국의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에서 창간호부터 등재하기로 결정하여 MEDLINE에는 창간호부터 등재되어 있는 계간 영문학술지이다.

KJR의 창간 계기는 기존의 대한방사선의학회지(현 대한영상의학회지)의 체제로는 당시 국제화의 기준인 MEDLINE이나 SCI에 등재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제2의 학술지를 영문으로 발간하되 엄선된 원고만을 채택하여 단기간 내에 양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KJR의 모체가 된 대한영상의학회지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한국 의학학술지의 편집 체계의 일관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에서 권장하는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에 기초하여, 의학학술지 평가 작업을 시작하던 1997년의 시범 평가에 응하여, 6개 학술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바 있다. 이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후에 학술지의 개선에 반영이 되었다.

KJR은 창간 시부터 “쉽게 접근 가능한 학술지”를 표방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논문 전문을 PDF 파일과 html 텍스트 파일로 동시에 제공하여 독자의 접근성과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MEDLINE에 link-out 서비스가 됨에 따라 독자는 PubMed에서 검색 중 KJR의 논문을 보고자 할 경우, 무료로 논문 전문을 자유롭게 보고 다운로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on-line 서비스는 KJR에 게재된 논문의 열람과 원고 작성 시 인용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04년에 발표된 2003년의 영향력지표(impact factor, KJR로서는 첫 번째로 부여받는 영향력지표)가 1.78로서 국내에서 발행하는 SCI 등재학술지 중 가장 높은 것이었다. KJR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주관의 학술지 평가에서도 최고 수준의 평가결과를 받았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는 한국 의학 학술지에 대한 고유의 양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나는 MEDLINE과 같은 초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KoreaMed 이고, 다른 하나는 Thompson Scientific에서 제공하는 Web of Science와 유사한 인용색인 정보에 관한 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KoMCI)이다. KJR은 이 양대 데이터베이

스에 등재되어 있어서, KoreaMed에서는 창간호부터 link-out이 되어 있어서 논문 전문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KoMCI에서는 KJR에 게재된 논문을 한국의학학술지에서 얼마나 인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JR의 논문에 대한 SCI 등재학술지에서의 인용 정보는 Web of Science에서 얻을 수 있으나, 한국 의학학술지에서의 인용 정보는 KoMCI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다.

KJR은 창간 6년을 맞으면서 도약의 단계에서 안정의 단계로 가고 있으며,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간호학 학술지의 변화와 의편집

고려대 간호대학 박영주

한국 간호학학술지의 대표인 대한간호학회지는 한국간호과학회의 기관지로 1970년 한국간호과학회의 창립과 함께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창립당시 대한간호학회지는 연 2회 출간으로 시작해서, 2006년 현재 연 8회 격월간으로 출간하고 있고, 6월과 12월에는 영문판을 국문판과 함께 출간하고 있다. 이제 대한간호학회지에는 연간 약 150편에 이르는 학술논문이 게재되고 있고, 투고 요청 논문의 약 40% 이상이 탈락되는 엄격성, 일관성 그리고 통일성을 지향하는 간호학 학술지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대한간호학회지의 발전은 1999년 대한간호학회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후보지로 선정되고, 이후 2000년 12월 대한간호학회지가 KoreaMed에 등재되면서 가속화되었다. 특히 KoreaMed 등재를 위한 학술지 평가에서 지적되었던 논문의 체제,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들은 대한간호학회지 개선의 지침이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2001년 출판위원회의 매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음을 그 당시 회의록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 필자는 2002년 2월부터 대한간호학회지 편집이사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운 좋게도 그 해 3월 의편집 정보위원회로부터 정보위원으로 활동해줄 것을 제안 받았다. 정보위원회에서 정보위원으로 대한간호학회지 편집이사를 참여하도록 기회를 준 것은 의학의 가장 인접분야인 간호학의 대표적 학술지의 발전을 위한 고려였음을 정보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곧 알게 되었다.

정보위원회는 그 당시 대한간호학회지 편집이사였던 필자에게는 정보위원으로의 기여보다는 대한간호학회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와 자문을 얻는 기회였다. 정보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의편집을 창립하고, 한국의 Mediline으로서 KoreaMed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보위원들의 노력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소상히 알 수 있었다. 특히 매 회의에서 다루어진 KoreaMed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는 대한간호학회지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실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바로 자문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회의이기도 했다. 이 점에 대해 정보위원회 정보위원들께, 특히 함창국 교수님, 허선 교수님, 이춘실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대한간호학회지가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간호학 학술지라는 점에서 게재되는 논문의 내용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으나, 국제적 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체제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대한간호학회지의 체제에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준비를 출판위원들과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1970년부터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원문을 DB로 구축하기 위하여 이미 개발되어 있는 원문 정보를 지원받는 노력을 추진하면서 원문 서비스를 위한 논문검색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로써 2003년에는 드디어 창간호부터 온라인 논문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리의 결과로 KoreaMed의 KoreaMed Ret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필자와 출판위원들은 2003년 Index Medicus (IM) 등재 신청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 준비를 위한 필요한 정보 역시 KoreaMed로부터 그리고 정보위원들로부터 받았고, *Korean Journal of Radiology* (KJR)의 편집이사이셨던 임정기 교수님으로부터는 KJR의 IM 등재 신청 시에 이용했던 관련 자료들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도움에 힘입어 필자는 IM 등재를 위한 서류를 준비했고 드디어 2003년 9월 NLM의 Literature Selection Technical Review Committee에 등재신청을 하였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04년 6월 29일 NLM은 한국간호과학회에 대한간호학회지의 IM 등재를 알리는 기쁜 편지를 보내왔다. 드디어 대한간호학회지는 국제적 학술지로 발돋움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하다.

대한간호학회지의 급격한 발전 그리고 IM 등재에 이르기까지 의편협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실제로 IM 등재 후 NLM과의 일련의 기술적 자문 과정은 의편협의 기술적 도움으로 단시간 내에 차근차근히 진행할 수 있었으며, 그 도움은 지금도 지속되어오고 있다. 이제 대한간호학회지는 IM에 전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숙제와 영문 발간횟수를 늘리면서 CINAHL, SCI, SSCI에 등재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 역시 의편협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돌아보면, 의편협과의 인연은 대한간호학회지에게는 크나 큰 행운이었으며, 앞으로도 의편협의 발전과 함께 간호학 학술지의 발전이 늘 함께할 것이다.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와 의편협의 인연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편집위원장 이 흥 식

대한수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영문학술지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JVS)는 2000년 6월 창간되었다. 이 학술 잡지는 창간 당시부터 국제 잡지로서 면모를 갖추고자 편집위원 34명 중 절반인 18명을 외국인으로 위촉하였고 창간하자마자 WHO, FAO, FDA, WAHO, OIE, EPA, Medline, APHIS 등 국제기구와 전 세계 90여 개 공공도서관과 관련 대학 등 기관에 500여 부를 배부하였으며 ISI, CAB, EMBASE, EBESCO 등 세계적인 정보 회사들에 JVS를 알리는데 노력하였다.

그 결과 창간 6개월 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보회사인 영국의 CAB Abstract 및 Index Veterinarius에 등재되었고 이어 1년 반 만에 생명과학 분야의 SCI라 일컬어지는 Medline, PubMed 및 Index Medicus에 등재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4년에는 세계적인 수의학 분야 정보웹사이트인 IVIS에 링크되었고 이어 USDA의 AGRICOLA 및 세계적인 의학정보 DB인 EMBASE와 생명과학정보 DB인 EBSCO에 등재되었고 2005년에는 FAO 데이터베이스인 AGRIS에 등재되었으며 2006년 올해는 드디어 SCI-Expanded를 비롯해 BIOSIS Preview, Biological Abstracts, Biology & Environmental Sciences, Zoological Records, Focus on: Veterinary Science & Medicine 등에 동시 등재되었다.

이와 같이 JVS 정보가 전 세계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창간 당시부터 노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의편협(KAMJE)과의 인연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JVS의 창간을 준비하면서 당시 KAMJE 부회장과 JKMS 편집인을 겸직하고 계셨던 성균관의대 조승열 교수님의 경험에서 얻어진 값진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99년 SCI-Expanded에 등재된 JKMS가 어떻게 하여 SCIE가 되었는지 그 비법을 문의한 결과 “국제 잡지가 되려면 무엇보다 SCI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서지 정보, 많은 인용 빈도, 국제적 다양성 등을 충족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JKMS는 노력하였을 뿐이다”라는 아주 간단명료한 말씀을 듣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많은 JVS 정보가 널리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지름길이란 판단에서였다.

이는 1997년 9월 과총에서 ISI의 Michael Tansey 회장을 비롯하여 Barbara Colton 부회장 및 James Testa SCI 잡지 선정평가 책임자 등을 초청하여 개최한 “SCI란 무엇인가”라는 특강에서 얻은 정보와 대동소이하였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가하는 것을 적시한 아주 귀한 정보였다. 이후 JVS 창간을 준비하면서 당시 ISI 한국지사였던 신원데이터네트의 ISI 담당 부장과의 SCI 등재를 위한 조건 충족을 위해 창간부터 무엇

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수시로 협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JVS 창간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KAMJE와 JVS의 두 번째 인연은 JVS가 Medline, PubMed 및 Index Medicus에 등재되고 난 후에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JVS가 Medline, PubMed 및 Index Medicus에 등재된 사실을 어떻게 아셨는지 JVS가 Medline, PubMed 및 Index Medicus에 등재되었다면 당연히 KAMJE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조승열 교수님께서 KAMJE 회원 가입을 권유하신 일이다. 당시 JVS의 Medline 등재는 우리나라에서 11번째였으며 의학 분야로서는 7번째였다.

2003년 4월 KAMJE 회원에 가입을 신청한 후에는 KAMJE로부터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 그 첫째는 KAMJE 정보관리위원회 위원이신 숙명여대 이춘실 교수님의 아주 귀중한 조언이었다. 그것은 Medline에 등재되어 있는 잡지는 Fulltext를 Linkout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모든 학자에게 언제라도 JVS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Medline의 Linkout을 위해서는 Linkout 실무 경험이 있는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의 편집장이셨던 경희의대 김병호 교수님이 주신 정보는 아주 유용하였다. 이런 인연들을 통해 2004년 1월부터 JVS는 Medline에 Linkout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Linkout 후에는 JVS의 논문 인용이 부쩍 증가되었다. 더구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매호 정시 발행일보다 2개월 전에 Linkout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흥미롭고 우수한 논문이 많은 탓인지 Medline 접속횟수는 매년 증가되고 있다.

JVS는 SCI-Expanded에 정식으로 등재되기 전인 2002년부터 Web of Science의 cited reference를 통해 “JVS의 어떤 논문이 누구에 의하여 언제 어느 SCI 잡지에 몇 번 인용되었는지” 검색할 수 있었는데 이는 SCI-Expanded 등재에 큰 보탬이 되는 요소의 하나였다. 지금까지 발행된 총 JVS 논문 수는 332편이며 이들 중 외국인 논문은 98편으로 전체 논문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매 호마다 외국인 논문이 증가되는 추세로 7권 2호의 경우는 게재논문 20편 중 60%인 12편이 외국인 논문이었다. 투고 논문의 경우에도 이 경향은 두드러져 2005년 총 투고 논문 141편 중 외국인 논문이 51%였으나 금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접수된 191편 중 57%인 109편이 외국인 논문으로 매년 외국인 투고가 늘고 있으며 평균 게재율은 45% 정도이다.

JVS 게재 논문의 인용은 *Nature Medicine*을 비롯하여 *Curr Opin Immunol*, *Blood*, *Cancer Res*, *Oncogene*, *J Neurosci*, *Ann New York Acad Sci*, *Lancet*, *Endocrinology*, *Glia* 등의 세계적인 우수 잡지에 인용되었는데 지난해에는 96편이 161회 인용되었지만 금년 10월 31일 현재는 162편의 논문이 395회 인용되어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SCI-Expanded 등재 후 2년차부터 공식적으로 Impact Factor가 제공되지만 Web of Science에 근거한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2005년 JVS의 Impact Factor는 0.542이다. 이는

2003년 0.108의 5.0배, 2004년 0.308의 1.8배지만 SCI-Expanded가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의학 분야 SCI-Expanded 잡지는 총 133종이며 이들 중 소위 SCI 잡지라고 일컬어지는 SCI-Core Journal은 67종이다. Impact Factor는 전체 평균이 0.682로 최고 2.822, 최저 0.018이다. 다시 말해서 Impact Factor 1 이상이 불과 39종(30%), 0.5 이상 1 이하 60종(22%)으로 JVS는 중상위(54위)에 해당된다.

JVS가 지령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SCI-Expanded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JVS 창간 3년 전부터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SCI 등재가 늦어진 데는 그럴만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짧은 회장 임기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2년에 3번이나 편집위원장이 바뀌고 더구나 이런 교체로 발간 예정일을 넘겨 발행하기도 하여 Medline으로부터 독촉 경고를 받은 일도 있었고 심지어는 1년 4번 발간하던 발간 횟수를 3회로 줄이는 등 우여 곡절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경험적 폐단으로 큰 교훈을 얻었지만 자주 바뀌는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 제도는 SCI 등재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것은 SCI를 목표로 하는 학술지는 유의하여야 할 대목이다. 또 하나 SCI 등재를 위해서는 유념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아무리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전문편집인이나 편집사무원에게 모든 일을 맡겨 놓고 교외내에 보직을 갖는다거나 교수의 직분인 교육, 연구, 진료에 평소와 같이 충실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SCI 등재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편집인이나 편집사무원은 편집 교열은 잘해도 의학적 지식이 없어 논문의 질적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편집위원장과 편집인은 전적으로 학회지에만 매달려 조석으로 오직 학회지만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전력투구하는 열정을 갖고 좋은 학회지 발간에 매진해야만 된다.

KAMJE에서 매년 실시하는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워크숍”은 JVS가 SCI-Expanded에 등재되고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학술지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예로 지난해의 경우 신임 편집인을 위한 워크숍은 신임뿐만 아니라 기성 편집인에게도 편집인이 할 일은 무엇이며 심사위원은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지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는 2003년 워크숍에서 발표한 편집인의 역할에 추가적인 보완적 의미가 컸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2004년도에 개최한 정기총회에서의 KJR의 SCI 등재 경험이나 KoMCI의 운영 현황 그리고 SCI Impact Factor 향상 방안 등은 학술지 운영에 좋은 가이드가 되었다. 나아가서 금년도에 개최된 의학논문의 출판 윤리에 관한 워크숍은 시의적절한 테마로서 논문 투고자는 물론 편집인이 갖추어야 될 기본자세를 규정하는 아주 훌륭한 모임이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집회는 수시로 개최하는 것이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의학학술지를 SCI 잡지로 키

우고 Medline잡지로 키우는 첩경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KAMJE는 창립 10년을 맞아 보다 새로운 각오로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모든 의학 잡지가 세계적으로 훌륭한 SCI 등재 잡지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 의학 잡지 발전에 앞장 설 것을 기대한다.

KoreaMed 활용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도서관 정 소 나

의학도서관의 사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의학 정보 환경 속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정보자원으로의 접근방식 및 서비스를 평가, 개선하여 이용자 지향적인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와 달리 국내의 의학학술정보는 의학자들을 비롯하여 의학도서관의 사서들조차 활용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분산되어 있다. 또한 의학 정보의 특성상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당해년도의 문헌을 1-2개월 안에 신속하게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의학학술 정보서비스 기관이 없다. 그런 점에서 KoreaMed는 국내에서 구축하고 있는 의학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유일하게 당해년도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이용자 지향적인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우수학술지에 대한 해외 홍보 및 국내 의학학술지의 효율적 활용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의학자들이 신뢰할만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2005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내 의학학술 정보서비스 기관 KoreaMed, RISS4U, KMBase RICH, KISS 중에서 의대교수 및 전공의 그룹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KoreaMed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이용자의 평가는 KoreaMed가 가진 검색기능의 확장성 및 질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장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KoreaMed에서는 2006년 10월 현재 국내 의학학술지 119종에 대하여 4,800건의 2006년 최신자료를 구축하고 있고 소급자료를 포함하여 매월 약 1,400여 건의 논문을 추가로 수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갱신정보는 KoreaMed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Journal Browser 콘텐츠를 통해 각 학술지의 연도별, 호별 KoreaMed 레코드 입력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용자가 특정 학술지의 연도별, 호별로 브라우징 검색을 할 때 유용하다. 의학도서관 사서에게는 KoreaMed에 등재되었거나 LinkOut이 가능한 학술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학술지 특정정보를 신속히 찾을 때 유용한 참고 정보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이 의학도서관 사서뿐만 아니라 의학자들에게 KoreaMed 운영기관과 데이터베이스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한다.

둘째, KoreaMed는 검색 레코드에서 학회 웹 사이트의 학술지 원문으로 LinkOut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논문의 원문으로 직접 연결하기보다는 학회 웹 사이트의 초록화면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이용자는 KoreaMed 검색을 통해 논문 이외에 학회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한 정보원이 되고 있다.

셋째, KoreaMed의 또 다른 장점은 연구자들의 논문 작성 과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KoreaMed 이용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후 논문작성 혹은 서지관리를 위하여 다시 서지사항을 재입력할 필요가 없다. 검색결과를 텍스트파일로 저장한 후 EndNote 소프트웨어에 반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는 유일하여 필자는 해외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인 이용자에게 EndNo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할 것을 권하면서 국내 의학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KoreaMed에서 서지사항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여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넷째, KoreaMed는 PubMed와 같이 각 레코드의 metadata를 OpenURL 0.1이나 1.0 형식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Link server로서의 Link Source가 될 수 있다. 이용자는 대부분 PubMed 혹은 KoreaMed와 같은 서지 DB 검색을 한 후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e-Journal 및 소장정보를 확인하여 원문을 획득하거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호대차를 신청하여 원문을 획득한다.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이용자의 이용태를 분석하여 “외부 Link Server 솔루션”을 이용해 검색에서부터 원문 획득까지 Onestop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KoreaMed의 경우 PubMed 처럼 국내 의학 학술지에 대한 Link Source 역할이 가능하여 KoreaMed 검색 → 의학도서관 Link 아이콘 선택 → 원문 제공서비스연계(원문/소장정보/의학도서관 종합목록/상호대차 신청)를 한 화면에서 One stop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이 기능의 지원여부는 KoreaMed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KoreaMed는 국내 의학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중에서 품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구축 인력 및 지원 네트워크가 건실한 데이터베이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개선을 통해 보다 더 이용자에게 유용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기를 희망한다.

첫째, 현재 110여 종뿐인 학술지의 종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의학문헌을 검색하는 이용자는 학술지 평가를 통과한 핵심저널에 수록된 논문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을 검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전처럼 학술지 평가 2.5를 통과한 핵심 학술지에 대하여만 차별화된 질적 관리(MeSH 부여 혹은 Link Out 등)를 한다면 회원학회 학술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KoreaMed에서는 PubMed와 유사한 형식의 검색을 지원한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3년간 통제어(MeSH)를 각 레코드에 부여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PubMed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검색 방법들을 KoreaMed에서 구현하기 위하여는 재정적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 의편협 회원기관의 네트워크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KoreaMed의 진취적이고 원칙적인 현재의 사업 역량과 함께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명실공히 우리나라 의학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의 최고 기관으로 혹은 세계에 우리나라 의학학술정보를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과 함께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10년

Appendix

부록

〈부록 1〉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칙

제 정 1996. 3. 28.
 개 정 1998. 3. 31.
 개 정 2000. 3. 28
 개 정 2003. 3. 25
 개 정 2004. 3. 30
 개 정 2006. 3. 28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협회회의 명칭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이하 의편집으로 약칭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의편집은 의학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에 관한 규정을 협의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의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의편집의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한 기관에 둔다.

제4조 (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의학 학술지 편집인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2. 의학 학술지에 관한 조사사업
3. 의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침개발, 학술지 평가 등에 관한 사업
4. 의학 학술 논문의 작성 및 심사와 학술지 편집에 관한 교육
5. 의학 학술 논문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사항
6. 의학학술지 편집 및 평가와 논문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국제교류 사업
7. 의학학술논문과 학술지의 윤리에 관한 사업
8. 기타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 (회원) 의편집은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정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1. 단체회원이란 의학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와 의과대학을 포함한 의학 학술 단체를 말한다.
2. 개인회원이란 의학 학술지 편집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특별회원이란 의편집의 취지에 찬동하고 사업지원을 통하여 협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또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6조 (회원의 선임)

1. 단체회원은 해당 단체의 편집위원장 또는 간행이사(이하 편집인)와 학회가 추천한 1명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단체의 현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2. 개인회원은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하며, 5년마다 회원자격을 갱신한다.
3. 특별회원은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정회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나 특별회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2. 개인회원은 연회비 납부 의무가 없다.
3. 2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임원) 의편집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
4. 제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

제9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정회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원의 임기는 유효하다.

제10조 (명예회장)

1. 의편협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의편협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임원회의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1조 (위원회)

1. 의편협은 기획평가위원회, 정보관리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어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제위원회의 위원장은 5-10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3.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제3장 총회 및 임원회의

제12조 (개최)

1. 의편협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의장) 의편협의 회장은 총회와 임원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아래의 각 항을 심의 의결하며, 필요 시 서면 결의할 수 있다.

1. 회칙 변경
2. 사업 계획
3. 예산 및 결산
4. 임원 선출
5. 회원 인준
6. 기타

제15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과반수 회원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위임장이 제출되었을 때에도 출석으로 간주 하나 의결 정족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4장 상임위원회

제16조 (위원장)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 (상임위원회의 업무)

1. 기획평가위원회는 학술지 평가 방법 개발을 비롯한 평가사업과 학술논문 및 학술지 윤리와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2. 정보관리위원회는 코리아메드 등재, 의학학술지에 관한 조사 등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제반사업을 수행한다.
3. 교육연수위원회는 의학학술 논문작성, 논문심사, 학술지 편집 등에 관한 교육사업을 수행한다.
4. 운영위원회는 재무, 회원자격 심사, 회원 상호 간의 협력 증진, 그밖에 다른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 등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장 회 계

제18조 (수입) 의편협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는 총회에서 정한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의 연회비, 의학 관련단체의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9조 (회계연도) 의편협의 회계연도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해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1. 이 회칙의 효력은 총회의 의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록 2〉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활동일지

날 짜	제 목	비 고
1996.02.22	창립총회	
1996.03.28	1996년도 정기총회(대한의사협회 회의실)	
1996.06.11	제1차 임원회의 개최	1. 상임위원회 구성 2. 1996년도 사업범위 및 예산 3. 단체회원 연회비 4. 기타(sponsor, logo)
1996.07.10	제1차 정보관리위원회 개최(조선호텔)	1. 각 학회 누리집(홈페이지) 만들기 위한 워크숍 개최 계획 검토 2. 한국메드라인사업 준비의 건
1996.07.15	국내의학 학술지 평가기준 초안	
1996.08.07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의편협 로고 마련, 싱가포르의 참가자 선정
1996.08.12-14	국내 의학 학술지 HOMPAGE 제작 WORKSHOP 실시(한림대 전산실습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집 만들기 언어인 글연결언어 (hypertext markup language)이해 • 뛰어넘기 연결(hyperlink)과 그림 넣기 • 학술지 누리집 만들기 실습 • 각 학술지 누리집 평가 • 평가 및 수수료증 전달
1996.09.16	제2차 기획평가위원회 개최	<p><안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의학학술지 평가 기준(96. 9 수정안) 토의 2. 96년 12월 워크숍(국내 의학 학술지 평가기준) 준비 3. 국내의학학술지 현황 조사 사업 계획 토의
1996.09.18	단체회원 자격에 관한 세칙 제정	
1996.09.18	제2차 임원회의 개최	<p><안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회 회의록 검토 2. 상임위원회 보고 3. 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단체회원 신규 가입(안) 나. 싱가포르회의 참석 다. 특별회원 모집 건
1996.10.11-13	5th Workshop on Medical Writing & Editing	장소:싱가포르
1996.11.12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p><안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식지 2호 발행 2. WAM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등록

날 짜	제 목	비 고
1996.12.18	제3차 임원회의 개최	3. 1997년 총회 개최 준비 4. 편집인이 겪는 어려운 문제에 관한 논의 〈안건〉 1. 전회 회의록 검토 2. 상임위원회 보고 3. 토의사항 가. 1997년 3월 총회 개최 준비 나. WAM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등 다. EASE (European Ass. Of Science Editors) 학회 라. 국내 Korean Index Medicus에 관한 사항 마. 소식지 3호 발행
1997.02.26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안건〉 1. 소식지 3호 발행 2. 1997년 정기총회 및 워크숍 개최 준비
1997.03.07	보건복지부 지원 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비에 사업신청서 제출	누리그물에서 한국의학학술문헌 검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심사 후 탈락)
1997.03.12	제4차 임원회의 개최	1997년도 총회 준비 및 체코 프라하 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n Biomedical Peer Review and Global Communications 9/17) 참가자 선정
1997.03.15	의학학술지 현황조사	1차 설문마감: 3.15, 2차 설문마감: 4.10
1997.03.26	의편집 홈페이지 개통	http://sun.hallym.ac.kr/~shuh/editor
1997.03.26	1997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숍	1. 국내의학학술지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 김성권(서울의대) 2. 국내의학학술지 현황조사 결과 - 서정욱(서울의대) 3. 학술지 누리집 운용시범학회 발표 - 허 선(한림의대)
1997.05.21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안건〉 1. '97 사업계획(안) 서명결의 사항의 건 2. 정보관리위원회 사업비 집행의 건 3. 소식지(제4호) 발간의 건
1997.06.04	제1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1. '97 사업계획(안) 서명결의 사항의 건 2. 정보관리위원회 사업비 집행의 건 3. 소식지(제4호) 발간의 건
1997.07.02	제1차 정보관리위원회 개최	〈안건〉 1. 누리그물 한국메드라인 공동 작업 업체 선발 2. 퍼브메드 워크숍 일정과 세부 계획 3. 학술지로부터 서지사항과 초록을 받는 방법

날 짜	제 목	비 고
1997.08.20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1997.08.27	국내 의학 학술지 시범 평가회 및 한국 메드라인 사업 설명회 개최	1. 의학학술지 평가사업의 배경 및 취지 - 조승열(가톨릭의대) 2. 시범 평가 및 결과 발표 - 서정옥(서울의대) 3. 한국메드라인 사업추진 방향 - 허 선(한림의대) 4. 퍼브메드 가입추진 방향 - 허 선(한림의대)
1997.09.08	제2차 정보관리위원회	한국메드라인 사업 일정과 업체 선정의 건
1997.09.23	제2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1. Korea Medline 사업 구체화 2. 8월 27일 워크숍 평가 3. 소식지 게재 사항 4. 향후 교육프로그램(투고요령, 상호심사, 논문작성 등) 5. 예산 확보 방안 6. 잡지 발행 기관에 홍보 방안
1997.09.23	의학학술지 평가항목 개정(1차)	
1997.11.05	제1차 의학학술지학술지 평가회	12개 학술지
1997.12.04	제3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1. 서버 구입 2. 한국메드라인 등재 잡지 선정 3. 의학회 보조금 증액 요청 4. 연회비 인상(98년부터) 5. 심사제도 교육 프로그램
1997.12.06	제3차 정보관리위원회	서버구입 및 한국메드라인 업체 변경의 건
1997.12.08	제1차 기획평가위원회 개최	<안건> 1. 국내 의학 학술지 1차 평가결과 인준 2. 향후 평가 일정(안) 심의 3. 1998년도 사업계획 예산 심의
1997.12.12	KoreaMed 누리집 제작위한 실무회의 "이월정보 통신"	학회자료 제공방식 및 검색방식, 필드
1997.12	KoreaMed 구축 계약서 마련	
1997.12	KoreaMed 등재 규정 마련	KoreaMed 정보제공 양식 포함
1997.12.31	KoreaMed 최초 서비스 개시 (http://koreamed.kams.or.kr)	내용은 PubMed에 실린 국내 학술지 논문 2,000편
1998.02.05	제4차 정보관리위원회(누리그물과 FAX회의)	KoreaMed 서버 관리비 등 예산 점검
1998.02.07	학술논문 심사에 관한 panel 토의	1. 논문심사 제도 및 운영 - 조승열(가톨릭의대) 2. 심사위원 및 편집인의 역할 - 함창곡(한양의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0년

날 짜	제 목	비 고
		3. 논문심사의 원칙 - 민양기(서울의대) 4. 통계 심사 - 김동기(연세의대) 5. 게재거부된 논문의 특징 - 임정기(서울의대) 6. 심사위원으로서의 경험 • 전문의학 학술지 - 홍성태(서울의대) • 종합의학 학술지 - 이민결(연세의대) 7. 편집인으로서의 경험 • 전문의학 학술지 - 조경삼(경희의대) • 종합의학 학술지 - 지제근(서울의대)
1998.02.23	제5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1. 상임위원회 보고사항 2. 정기총회 준비
1998.03.31	1998년도 정기총회	
1998.05.13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안건> 1. 제2차 의학학술지평가회 준비의 건 2. 단체회원 자격심사의 건
1998.05.27	제2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개최	
1998.06.10	제1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1. 코리아메드(KoreaMed) 정보처리의 건 2. 상임위원회 보고사항
1998.07.01	제1차 기획평가위원회 개최	
1998.09.02	제3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개최	
1998.09.16	제2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1. 상임위원회 보고사항 2. 소식지 발간
1998.11.04	제4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개최	
1998.11.18	제3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1. 상임위원회 보고사항
1999.02.10	제4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1. 정기총회 준비의 건 2. 워크숍 프로그램 확정에 관한 건 3. 각 상임위원회 보고사항
1999.03.27	제5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1. 정기총회 및 워크숍 준비의 건
1999.03.30	1999년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정기총회 및 워크숍	• 학술지 편집인의 역할 - 조승열(성균관의대) • 학술지 평가 결과 분석 - 임정기(서울의대)

날 짜	제 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심사위원의 역할 - 이광선(울산의대) • 논문심사 사례분석 - 동헌중(성균관의대) • 우리글 논문 바로 쓰기 - 김희진(국립국어연구원) • 논문출판의 윤리적 문제 - 이철희(서울의대) • 의학논문의 심사평가 - 민양기(서울의대)
1999.04.07	제2기 의편집 운영을 위한 간담회	
1999.04.30	제1차 정보관리위원회(도일처)	KoreaMed 새로운 업체 모색
1999.05.07	“한국학술정보” 방문	KoreaMed 관리 업체 현장 방문 평가
1999.05.21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1999.05.26	제1차 임원회의 개최	
1999.06.03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평가위원회 개최	
1999.06.08	교육연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교육연수위원회 개최	
1999.07.05	의학학술지 평가항목 개정(2차)	
1999.09.01	제5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개최	
1999.09.22	제2차 임원회의 개최	
1999.10.06	제6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개최	
1999.10.22	제2차 정보관리위원회(도일처)	
1999.11.17	제7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개최	
1999.11.19	1999년도 정기Workshop 개최	의학학술지의 질적 향상 도모
1999.12.08	제3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각 상임위원회 보고사항
1999.12.11	제3차 정보관리위원회(숙명여대)	
2000.01.24	제4차 정보관리위원회(한양의대)	
2000.01.28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안건> 1. 정기총회 준비의 건(2000.3.28 예정) 2. “단체회원 신규가입 및 자격에 관한 세칙” 검토의 건
2000.02.17	코리아메드 등재 양식과 메쉬를 위한 Workshop (한양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지의 기본 구성 - 함창곡(한양의대) • MeSH 이용의 필요성 - 김수영(건국의대) •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논문의 저자선정 주제어와 MeSH 용어의 비교분석 - 이춘실(숙명여대) • MeSH의 구조와 MeSH 색인 - 김수영(한림의대) • 실습 - 허 선(한림의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0년

날 짜	제 목	비 고
2000.03.08	제4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1. 각 상임위원회 보고사항 2. 정기총회 준비의 건
2000.03.13	제2차 교육연수위원회 개최	2000년 사업계획 검토
2000.03.28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00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 현황(의학분야를 중심으로) - 김용성(학술진흥재단 학술평가지원부장) • 서지 정보를 이용한 한국의학 학술지 평가 - 이춘실(숙명여대) • 국내 의학학술지 발행 및 편집실무 현황 - 허 선(한림의대)
2000.04.14	2000년도 제1차 정보관리위원회 회의	
2000.05.16	의학학술지 평가개선 워크숍 (롯데월드호텔)	〈현행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항목 - 최명식, 실물평가항목 - 이동호, 협의회 조사항목 - 이춘실 〈평가 행정 및 학술지 조사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결과분석 및 활용 - 임정기(서울의대) • 평가 행정 및 학술지 조사사업 - 서정욱(서울의대)
2000.06.07	2000년 제1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1. 각 상임위원회 보고사항 2. KoreaMed 운영 점검
2000.06.14	제8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개최	
2000.07.05	2000년 제1차 평가위원회 개최	
2000.11.01	2000년 제2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각 상임위원회 보고사항
2000.11.22	2000년 제2차 평가위원회 개최	
2000.11.22	제9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개최	
2000.12.28	제1차 교육연수위원회 개최	Workshop 개최논의, 2001년 사업 계획 검토
2001.02.14	제3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1. 2001년 각 상임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 2. 정기총회 준비
2001.02.23	KoreaMed 활성화 방안 Workshop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Med 사업의 문제점 - 허 선(한림의대) • 학회에서 바라보는 KoreaMed - 정문현(감염학회) • 출판사의 학술지 파일관리 - 최윤배(아카데미아) • 의학학술지 원문정보 및 초록정보의 효율적 관리 -JKMS의 경우를 중심으로 - 이춘실(숙명여대) • MedRIC의 국내 의학학술 DB 개발사업 - 이영성(충북의대)

날 짜	제 목	비 고
2001.03.06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안건>
2001.03.27	2001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정기총회 및 워크숍	1. 회칙 검토 2. 좋은 의학학술지 만들기 - 함창곡(한양의대) 3. 국제 색인-초록 데이터베이스 등재하기 - 이춘실(숙명여대) 4. SCI 등재 경험 - 조승열(성균관대의대) 5. 심사위원의 기능과 한계 - 홍성태(서울의대) 6. 의학논문 심사 - 민양기(서울의대) 7. 학술지 간행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 김수녕(건국대의대)
2001.03.27	제4차 임원회의 개최	
2001.04.13	2001년도 제1차 정보관리위원회 회의	
2001.06.05	2001년 제1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4th International Congress (Peer Review in Biomedical Publication, 스페인 바르셀로나) 참석자 선정의 건 등
2001.06.26	2001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01.07.06	2001년도 정기워크숍	
2001.07.06	제10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개최	
2001.09.26	제2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1. 회장님 국제학회 참석보고 2. 각 상임위원회 보고사항
2001.11.06	제2차 정보위원회 개최	
2001.11.14	제11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개최	
2001.12.05	제3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각 상임위원회 보고사항
2002.02.19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안건> 1. 단체회원 가입 심사 2. 총회준비
2002.03.13	제4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2002년 정기총회 준비
2002.03.26	2002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정기총회 및 워크숍	• KoreaMed 구축과 학회의 역할 - 이춘실(숙명여대) • KoreaMed XML 파일만들기 - 이남영, 이윤혜(숙명여대) ① XML Tag와 데이터 입력방법론 ② 특수문자 처리와 입력파일 점검방법 • MeSH 활용법 - 김수영(한림의대)
2002.05.16	제1차 임원회의 개최	
2002.05.30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0년

날 짜	제 목	비 고
2002.06.03	제1차 평가위원회 개최	
2002.09.10	제1차 교육연수위원회 개최	상견례 및 2002년 사업 계획 논의
2002.09.12	제2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각 위원별 보고사항
2002.09.25	제12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개최	
2002.10.16	제1차 정보위원회 개최	
2002.10.16	KoreaMed 전문연결 설명회(의협 동아홀)	
2002.10.17	2002년도 제2차 정보관리위원회 회의	
2002.11.27	2002년 정기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색인지가 요구하는 좋은 학술지 - 함창곡(한양의대) • 논문심사의 기본 원칙 - 민양기(서울의대) • 이중게재(double publication) 문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 임정기(서울의대) • Authorship에 대한 분석 - 황성수(가톨릭의대) • 의학학술지 평가현황-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평가사업 - 홍성태(서울의대) • 의학학술지 평가현황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평가사업 - 권길화(학술진흥재단)
2002.12.17	제3차 임원회의 개최	<p>〈안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위원회별 보고사항 2. 2003년 정기총회 준비
2003.02.12	KoreaMed XML Worksh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ML이란 무엇인가? - 허 선(한림의대) • XML작성 - 이남영(숙명여대) • XML 파일점검 및 특수문자 처리 - 이윤혜(숙명여대)
2003.02.21	제13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개최	
2003.03.04	제4차 임원회의 개최	<p>〈안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위원회별 보고사항 2. 2003년 정기총회 준비
2003.03.12	제2차 평가위원회 개최	
2003.03.20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안건〉 2003년도 사업계획 논의
2003.03.25	2003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정기 총회 및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간학회지 메드라인 등재 경험 - 유 권(이화의대) • KoreaMed 소개 - 김수녕(건국의대) • KoreaMed 자료입력 절차 - 이남영(숙명여대) • 학회가 KoreaMed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이춘실(숙명의대)
2003.03.25	제5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2003년 정기총회 준비
2003.04.11	의학학술정보 공동 구축을 위한 협의건	(발신: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지정 의학연구정보센터)

날 짜	제 목	비 고
2003.04.30	제1차 정보관리위원회 회의 및 코리아메드 논문편수 45,000건 돌파 기념연(의협 사석홀)	
2003.06.11	MeSH 제1차 모임 개최	
2003.07.08	MeSH 제2차 모임 개최	
2003.07.08	제1차 기획평가위원회 개최	
2003.07.08	2003년도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Worksh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집인의 역할 - 김훈교(가톨릭의대) • 저자의 자격 - 이순남(이화의대) • 윤리적 문제 - 이경수(성균관의대) • 올바른 논문 작성법 - 배중우(경희의대) • 심사위원의 역할 - 박병주(서울의대)
2003.08.22	MeSH 제3차 모임 개최	
2003.08.29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p><안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회원 연회비 인상(안) 검토 2. 단체회원 변동사항 보고
2003.09.04	2003년도 제2차 의편협 정보관리위원회 회의	
2003.09.17	2003년도 제1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사항
2003.09.18	제1차 KoreaMed MeSH Workshop 개최(한양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SH사업 안내 - 이춘실(숙명여대) • MeSH의 개념 - 허 선(한림의대) • MeSH 색인 - 김수영(한림의대) • 국내 논문에 MeSH 부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JKMS - 조승열(성균관의대) 2) 소아과 색인분석 - 정소나(가톨릭의대 도서관) • 국내논문 MeSH 부여와 퍼브메드 MeSH와의 비교
2003.09.19	제14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개최	
2003.10.02	제2차 KoreaMed MeSH Workshop (한양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 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토의하여 추후 MeSH 입력 실무 지침 작업에 반영
2003.11.17	MeSH 제4차 모임 개최	
2003.12.08	2003년도 제1차 교육연수위원회 개최	2004년도 사업계획 논의
2003.12.09	2003년도 제2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사항
2004.	제1차 의편협 연수강좌	
2004.01.28	제2차 평가위원회 개최	
2004.02.10	제3차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정보관리위원회 회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0년

날 짜	제 목	비 고
2004.02.02-06	PHP 실무 워크숍(한림의대, 춘천)	
2004.02.11	제3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대한의학회 회원 가입 신청학회의 학술지 심사의 건
2004.02.19	제15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2004.02.26	의학회 회원인준을 위한 학술지 평가회	
2004.02.27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안건〉 2004년 정기총회 준비의 건
2004.03.03	특별회원 간담회(금보석)	
2004.03.09	제4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2004년도 총회 준비의 건
2004.03.30	2004년도 정기총회 및 Workshop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Med 현황 및 사업 계획 - 이윤혜(대한의학회) • 대한소화기학회지 MEDLINE 등재경험 - 김병호(경희의대) • KJR의 SCI 등재 경험 - 임정기(서울의대) • KoMCI Web 소개 - 이선희(대한의학회) • KoreaMed와 KoMCI Web 데이터베이스 통합 - 조승열(성균관의대)
2004.05.19	2004년도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Workshop(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연구에서의 비둘림 - 안윤옥(서울의대) • 의사연구자들의 연구과제 선정 방법 - 정우경(가천의대) • 지역사회 유병률 조사의 수행사례 - 최보울(한양의대) • 환자-대조군 연구의 설계와 수행 - 윤병우(서울의대) • 코호트 연구의 설계와 수행 - 김순덕(고려의대) • 비교 임상시험의 설계와 수행 - 박병주(서울의대)
2004.06.11	2004년도 제1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의학학술지 재평가 관련
2004.06.22	제16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개최	
2004.09.03	2004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안건〉 단체회원 가입 규정 검토
2004.09.21	2004년도 제2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각 상임위원회 보고사항
2004.09.23	제1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04.10.15	2004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안건〉 단체회원 가입 심사의 건
2004.10.16	제1차 KoreaMed 실무워크숍(한림의대)	새로운 실무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의편협 정보관리위원회 업무 SWOT 분석
2004.10.28	논문심사위원을 위한 Workshop	
2004.11.25	제17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개최	
2004.12.08	Thomson Scientific사 방문(허선)	
2004.12.16	2004년도 제3차 임원회의 개최	〈안건〉 각 상임위원회 보고사항
2004.12.18	제2차 KoreaMed 실무워크숍(한림의대)	
2005.01.18-25	베트남 MeSH 워크숍 참석(김수영, 정소나)	

날 짜	제 목	비 고
2005.02.25	2004년도 제4차 임원회의 회의	<p>〈안건〉</p> <p>1. 각 상임위원회 보고사항</p> <p>2. 토의사항</p> <p>가. 학술진흥재단의〈국내 학술지 인용색인 DA구축사업(KCI)〉 관련 대책의 건</p> <p>나. 정기총회 및 워크숍 준비의 건</p> <p>다.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협의</p>
2005.03.03	특별회원 간담회(구수사)	
2005.03.29	2005년 정기총회 및 워크숍	
2005.04.20	제1차 임원회의 개최	
2005.05.10	WEB 기반 투고관리 시스템 설명회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견희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TI 학회 정보화 사업 소개 - 강무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KISTI-ACOMS (Ver. 1.5) 시연 - 박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전자논문투고 프로그램 소개 - 한동석(M2 Community) • (주)메드랑 · 인포랑 시연 - 김차중(의학문화사) • 대한의료정보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 김주한(서울의대)
2005.05.10	제4-1차 정보관리위원회	제4기 정보관리위원회 사업 계획
2005.06.13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05.06.16	제4-1차 교육연수위원회	
2005.06.22	제4-2차 임원회의 개최	
2005.06.24	제18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2005.07.06	제4-1차 평가위원회	<p>평가위원회 위원 소개 및 위촉장 수여 토의사항</p> <p>1. KoreaMed 등재 학술지에 대한 등급화 방안 마련</p> <p>2. 평가항목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개선안 마련</p>
2005.09.07	제4-3차 임원회의 개최	
2005.10.14	제2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05.11.30	2005년도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Worksh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집인의 역할 - 조승열(성균관의대) • 심사위원의 역할 - 한동수(한양의대) • 의학학술지 평가 기준 - 홍성태(서울의대) • 우리말 논문 바로 쓰기 - 송영빈(이화의대) • 우리말 의학용어의 기본 원칙 - 황 건(인하의대) • 편집인이 알아야 할 통계적 개념 - 박병주(서울의대)
2005.12.14	제4-4차 임원회의 개최	
2005.12.16-17	KoreaMed 통합데이터베이스 실무 워크숍 (한림의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0년

날 짜	제 목	비 고
2005.12.22	제1차 의편집 10년사 발간 특별위원회	
2006.01.04	제4-2 차 정보관리위원회	<토의사항> - 회의록보고 작성 1) AsiaPacificMed 2) MeSH 책자 의학도서관협의회와 공동으로 발간 건 3) 2006년도 총회 워크숍 주제 토의 4) 2006년도 예산안 토의
2006.01.12	제2차 의편집 10년사 발간 특별위원회	
2006.02.03	제4-2차 평가위원회	
2006.02.08	제4-2차 운영위원회 개최	
2006.02.14	제19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2006.02.28	제3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06.03.08	제4-5차 임원회의 개최	
2006.03.28	2006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WPRO의 Regional Index Medicus 사업 - 서정욱(서울의대) • PubMed 등재 전 준비경험 - 박병주(서울의대) • PubMed 등재 후 학술지 변화 - 조동숙(서울보건대학) • Open Access와 Open Archives - 이춘실(숙명여대) • 중복출판과 이차출판 - 홍성태(서울의대)
2006.06.14	제4-6차 임원회의	
2006.06.27	제20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2006.08.23	제4-7차 임원회의	
2006.09.06	2006년도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Worksh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계재와 이중계재 - 홍성태(서울의대) • Authorship - 황성수(가톨릭의대) • IRB와 출판윤리 - 김옥주(서울의대) • 이중계재-국내외현황 - 김수영(한림의대) • 이중계재의 사례 - 함창곡 (한양의대) • PubMed와 KoreaMed의 취소논문 레코드 처리- 이춘실(숙명여대)
2006.10.19	제4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06.11.29	제4-8차 임원회의	
2006.12.06	제 4-3 차 운영위원회	<토의사항> 1. 단체회원 가입심사의 건 2. 한의학학술지 의편집 단체회원 가입의 건 3. 의편집 예산 확충 방안의 건
2007.01.31	제4-9차 임원회의	
2007.02.14	제21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날 짜	제 목	비 고
2007.02.28	제5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07.03.15	제4-10차 임원회의	
2007.03.27	2007년 의편협 정기총회 및 Worksh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WPRO의 Regional Index Medicus (WPRIM)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정옥(서울의대) • Korea PubMed Central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 선(한림의대) • DOI와 CrossR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춘실(숙명여대)
2007.05.03	제4-3차 평가위원회	<p>〈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지 평가 일정의 정기화(2007년도 평가회 개최계획: 신규평가 2회, 재평가 2회) 2. 학술지의 기본 요건 3. 과학성을 반영한 학술지 평가항목 개정의 건 〈현행 신규 및 재평가 항목〉
2007.06.07	제4-11차 임원회의	<p>〈각 상임위원회 보고사항 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회원 연회비 인상방안 2. 의편협 업무 manual 제작(의편협 활동의 시스템화 관련) 3. KOBIC 및 KISTI와의 협약 4. Google과의 협약 5. 보건복지부의 유관기관 홈페이지 contents 연계 동의요청 관련 6. 학술지 rank 사업 7. KoreaMed Central과 KoreaMed LinkOut 참여 학술지 확대방안 8. 학술지 유료화방안 9. APAME 창립 관련 10. PMC in Korea 현안
2007.06.27	제22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2007.07.10	의편협 임원 및 연자 간담회	<p>〈보고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와 협약 무산 2. Wiley-Blackwell의 편집 세미나 3. DOI response site - KoreaMed Synapse 실무 회의 4.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전송권 문제
2007.07.10	2007년도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Workshop	<p>제1부 의학학술지의 국제 유통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MCI 7년을 통하여 본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효순(대한의학회) • Biosis, CINAHL, Chemical Abstracts, EMBASE, PsycINF, Tropical Diseases Bulletin에 등재된 국내 의학학술지 및 등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소나(가톨릭의대 도서관) <p>제2부 PMCI, CrossRef 및 Google Schol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bMed Central International in Korea, CrossRef/DOI,

날 짜	제 목	비 고
2007.07.25	KAMJE - KISTI 1차 실무협의회	Google 시대의 학술지 형식 요건 - 허 선(한림의대) • Google Scholar의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색인 및 전산화 제안 - 서황옥(구글 코리아)
2007.07.25	DOI/CrossRef, PMC XML Workshop	<안건> KAMJE - KISTI MOU 체결에 따른 향후 협력사항 도출 • DOI, CrossRef, PMC and KoreaMed Synapse: Why? How? - 이춘실(숙명여대) • PMC 작업 Processing에 대하여 - 허 선(한림의대) • PMC XML 작성: PMC XML DTD 분석, XML 출판을 위한 이미지 처리 방법 - 이선희(대한의학회)
2007.08.22	제4-12차 임원회의	각 상임위원회 보고사항 <토의사항> 1. 단체회원 연회비 인상(안) 2. 의편협의 법인화 법인설립 신청 서류 3. 의협 32차 종합학술대회 4. Google Scholar와 full text link 관련 계약의 건 5. 학술지의 copy editor (=manuscript editor)에 대한 훈련 과정 6. 특별회원 가입(KISTI)
2007.09.04	제4-3차 정보관리위원회	
2007.09.06	제4-2차 출판윤리위원회	<보고사항> 1. 학술진흥재단 2007년도 대학 - 학회 연구 윤리 활동 계획 공모 채택
2007.09.13	KAMJE - KISTI 2차 실무협의회	<안건> Citation Matcher, 예산활용방안 및 기타 세부 협력방안
2007.09.19	제4-3차 출판윤리위원회	
2007.10.04	제4-13차 임원회의	각 상임위원회 보고사항 <토의사항> 1. 의편협 단체회원의 KISTI 학회마을 가입 권유의 건 2. 2008년도 입력 요원 인건비 문제 3. WPRIM 서울미팅(11월 21일-23일, 일정: 별첨) 및 국제학술대회 (2008년 5월) 개최의 건
2007.10.10	제4-4차 출판윤리위원회	
2007.10.31	제6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07.11.08	KAMJE - KISTI 3차 실무협의회	<안건> KoreaScience 사업 협력방안 및 Citation Matcher 시연 등
2007.11.16	제4-4차 운영위원회	<토의사항> 1. 단체회원 가입심사의 건(Intestinal Research, 한국독성학회지, Asian Nursing Research,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2. 단체회원 연회비 인상의 건

날 짜	제 목	비 고
2007.12.06	제4-14차 임원회의	각 상임위원회 보고사항 <토의사항> 1. 단체회원 가입 심사의 건 2. 연회비 인상의 건 3. (의편집 제정)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발간의 건 4. Asia-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창립총회 및 Conference의 건 5. APAME 회장 및 총무(Secretary) 선임의 건 6. Manuscript editor 훈련방안 7. 학술지 종이 질 국제 표준 규격 확보 방안
2007.12.12	2007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특별회원 간담회	토의 주제: 출판사에서 필요한 국제 표준

〈부록 3〉

역대 회장단과 임원 명단, 위원회 명단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제1기 임원과 위원회 위원 (1996.2.22 ~ 1999.3.31)

직 위	성 명	소 속
회 장	박찬규	연세의대 산부인과학
감 사	오양효	부산의대 미생물학
감 사	조경삼	경희의대 내과학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조승열	가톨릭의대 기생충학
	간 사 서정옥	서울의대 병리학
정보관리위원회	위원장 안윤옥	서울의대 예방의학
	간 사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연세의대 병리학
	간 사 송경순	연세의대 임상병리학

■ 기획평가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조승열	가톨릭의대 기생충학
간 사	서정옥	서울의대 병리학
위 원	강대영	충남의대 병리학
위 원	김성권	서울의대 내과학
위 원	김성덕	서울의대 마취과학
위 원	이홍균	인제의대 산부인과학
위 원	정사준	경희의대 소아과학
위 원	조경삼	경희의대 내과학
위 원	함창곡	한양의대 방사선과학
위 원	홍원표	연세의대 이비인후과학

■ 정보관리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안윤옥	서울의대 예방의학
간 사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위 원	구범환	고려의대 외과학
위 원	김수녕	건국의대 산부인과학
위 원	김용식	서울의대 약리학
위 원	김원옥	연세의대 마취과학
위 원	문대혁	울산의대 핵의학
위 원	이수정	가톨릭의대 신경정신과학

■ 운영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박찬일	연세의대 병리학
간 사	송경순	연세의대 임상병리학
위 원	김의종	서울의대 임상병리학
위 원	김형래	이화의대 생화학
위 원	백영홍	전남의대 약리학
위 원	서창옥	연세의대 치료방사선학
위 원	원남희	고려의대 병리학
위 원	이철현	한림의대 피부과학
위 원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제2기 임원과 위원회 위원 (1999.4.1 ~ 2002.3.31)

직 위	성 명	소 속
회 장	함창곡	한양의대 방사선과학
부 회장	조승열	성균관의대 기생충학
감 사	오양효	부산의대 미생물학
감 사	조경삼	경희의대 내과학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임정기	서울의대 방사선과학
	간 사 서정옥	서울의대 병리학
정보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수녕	건국의대 산부인과학
	간 사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민양기	서울의대 이비인후과학
	간 사 이철희	서울의대 이비인후과학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경순	연세의대 임상병리학
	간 사 서창욱	연세의대 치료방사선학

■ 기획평가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임정기	서울의대 방사선과학
간 사	서정옥	서울의대 병리학
위 원	조승열	성균관의대 기생충학
위 원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위 원	이봉화	한림의대 외과학
위 원	이동호	경희의대 방사선과학
위 원	백구현	서울의대 정형외과학
위 원	이동화	순천향의대 병리학
위 원	이춘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 정보관리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김수녕	건국의대 산부인과학
간 사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위 원	안윤옥	서울의대 예방의학
위 원	김원옥	연세의대 마취통증의학
위 원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위 원	정문현	인하의대 내과학
위 원	이춘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 교육연수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민양기	서울의대 이비인후과학
간 사	이철희	서울의대 이비인후과학
위 원	이광선	울산의대 이비인후과학
위 원	김상준	서울의대 외과학
위 원	김주한	한양의대 신경과학
위 원	최명식	서울의대 미생물학
위 원	박해심	아주의대 알레르기내과학
위 원	동현종	성균관의대 이비인후과학
위 원	박재황	원광의대 응급의학
위 원	윤덕미	연세의대 마취통증의학

■ 운영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송경순	연세의대 임상병리학
간 사	서창옥	연세의대 치료방사선학
위 원	손정원	고려의대 분자생물학
위 원	홍창권	중앙의대 피부과학
위 원	김훈교	가톨릭의대 내과학
위 원	박찬일	연세의대 병리학
위 원	마상열	연세의대 비뇨기과학
위 원	조수현	서울의대 예방의학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제3기 임원과 위원회 위원 (2002.4.1 ~ 2005.3.31)

직 위	성 명	소 속
회 장	조승열	성균관의대 기생충학
부 회장	박찬일	연세의대 병리학
감 사	조수현	서울의대 예방의학
감 사	송경순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
평가위원회	위원장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간 사 김 압	울산의대 산부인과학
정보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수녕	건국의대 산부인과학
	간 사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김훈교	가톨릭의대 내과학
	간 사 이경수	성균관의대 방사선과학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창옥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
	간 사 나은우	아주의대 재활의학

■ 평가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간 사	김 압	울산의대 산부인과학
위 원	송경순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
위 원	서연림	성균관의대 병리학
위 원	이성구	울산의대 내과학
위 원	김주한	한양의대 신경과학
위 원	김진우	가톨릭의대 피부과학
위 원	배종우	경희의대 소아과학

■ 정보관리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김수녕	건국의대 산부인과학
간 사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위 원	함창곡	한양의대 방사선과학
위 원	박영주	고려대 간호대학
위 원	이병두	인제의대 내과학
위 원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위 원	정문현	인하의대 내과학
위 원	이춘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 교육연수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김훈교	가톨릭의대 내과학
간 사	이경수	성균관의대 방사선과학
위 원	정영복	중앙의대 정형외과학
위 원	김학제	고려의대 흉부외과학
위 원	박성학	가톨릭의대 내과학
위 원	김상운	울산의대 이비인후과학
위 원	류경남	경희의대 방사선과학
위 원	문동연	가톨릭의대 마취통증의학

■ 운영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서창옥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
간 사	나은우	아주의대 재활의학
위 원	오병훈	연세의대 정신과학
위 원	한원근	성균관의대 외과학
위 원	강명서	포천중문의대 진단검사의학
위 원	김영수	아주의대 비뇨기과학
위 원	김동규	서울의대 신경외과학
위 원	곽형우	경희의대 안과학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제4기 임원과 위원회 위원 (2005.4.1 ~ 2008.3.31)

직 위		성 명	소 속
회장	부회장	박찬일	연세의대 병리학
		임정기	서울의대 영상의학
감사	감사	조수현	서울의대 예방의학
		김수녕	건국의대 산부인과학
평가위원회	위원장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간사	이성구	울산의대 내과학
정보관리위원회	위원장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간사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서연림	성균관의대 병리학
	간사	정희진	고려의대 내과학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창욱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
	간사	나은우	아주의대 재활의학
출판윤리위원회	위원장	함창곡	한양의대 영상의학
	간사	배종우	경희의대 소아과학

■ 평가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간사	이성구	울산의대 내과학
위원	송경순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
위원	김주한	한양의대 신경과학
위원	이경수	성균관의대 영상의학
위원	배종우	경희의대 소아과학
위원	박영주	고려대 간호대학

■ 정보관리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간사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위원	함창곡	한양의대 영상의학
위원	이춘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위원	박영주	고려대 간호대학
위원	정소나	가톨릭의대 도서관

■ 교육연수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서연림	성균관의대 병리학
간 사	정희진	고려의대 내과학
위 원	박병주	서울의대 예방의학
위 원	이순남	이화의대 내과학
위 원	배종우	경희의대 소아과학
위 원	이종원	가톨릭의대 성형외과학
위 원	한동수	한양의대 내과학
위 원	유은실	울산의대 병리학

■ 운영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서창옥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
간 사	나은우	아주의대 재활의학
위 원	오병훈	연세의대 신경정신의학
위 원	최금자	이화의대 외과학
위 원	한상원	연세의대 비뇨기과학
위 원	김동규	서울의대 신경외과학
위 원	이주화	인제의대 안과학
위 원	최민호	서울의대 기생충학

■ 출판윤리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함창곡	한양의대 영상의학
간 사	배종우	경희의대 소아과학
위 원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위 원	김훈교	가톨릭의대 혈액종양내과
위 원	박찬일	연세의대 병리학
위 원	서연림	성균관의대 병리학
위 원	임정기	서울의대 영상의학
위 원	조승열	성균관의대 기생충학
위 원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부록 4〉

의편집 단체회원 명단

단체회원 165개				
회원가입연도	의협, 의학회 및 의학회 회원학회 학술지(124)		의대학술지(12)	기타학술지(29)
	학술지명	비고	학술지명	학술지명
1996년(100종)	가정의학회지 노인병 농촌의학·지역보건 대한감염학회지 대한화학요법학회지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대한골절학회지 대한기관식도학회지 대한남성과학회지 대한내과학회지(국문) 대한내분비학회지 대한대장항문학회지 대한두경부종양학회지 대한류마티스학회지 대한마취과학회지 대한미생물학회지 대한바이러스학회지 대한미세수술학회지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대한법의학회지 대한불임학회지 대한비뇨기과학회지 대한비만학회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지 대한산부인과학회지 대한성형외과학회지 대한세포병리학회지 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대한슬관절학회지 대한신경과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대한신장학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에 감염과 대한화학요법학회지가 감염과화학요법으로 통합됨. • 2003년에 감염과 대한화학요법학회지가 감염과화학요법으로 통합됨. • 2001년에 대한미생물학회지와 대한바이러스학회지가 <i>J Bacteriol Virol</i>로 통합됨 • 2001년에 대한미생물학회지와 대한바이러스학회지가 <i>J Bacteriol Virol</i>로 통합됨 	고신의대지 동국의학 순천향의대지 연세의대지 영남의대지 원광의대지 전남의대지 조선의대지 중앙의대지 충북의대지	한국의학교육 정신병리학

단체회원 165개				
회원가입연도	의협, 의학회 및 의학회 회원학회 학술지(124)		의대학술지(12)	기타학술지(29)
	학술지명	비고	학술지명	학술지명
	대한안과학회지(국문)			
	대한영상의학회지(국문)			
	대한외과학회지			
	대한외상학회지			
	대한음성언어의학회지			
	대한응급의학회지			
	대한의료정보학회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대한이식학회지			
	대한재활의학회지			
	대한정신약물학회지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대한주산의학회지			
	대한중환자의학회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대한척추외과학회지			
	대한초음파학회지			
	대한통증학회지			
	대한피부과학회지			
	대한피부연구학회지			
	대한핵의학회지			
	대한혈관외과학회지			
	대한흉부외과학회지			
	보험의학회지(한국생명보험 의학회)			
	부인종양			
	생물정신의학			
	소아과			
	소아알레르기및호흡기학회지			
	소아외과			
	수면정신생리			
	신경정신의학			
	예방의학회지			
	임상소아혈액종양			
	의사학			
	정신분석(한국정신분석학회)			
	정신신체의학			
	한국간담췌외과학회지			
	한국심초음파학회지			
	한국역학회지			
	한국정신치료학회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			

단체회원 165개						
회원가입연도	의협, 의학회 및 의학회 회원학회 학술지(124)		의대학술지(12)	기타학술지(29)		
	학술지명	비고	학술지명	학술지명		
1998년(8종)	한국BRM학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에 대한면역학회지와 한국 BRM학회지가 <i>Immune Network</i>로 통합됨. • 2005년에 대한혈액학회지, 대한조혈 모세포이식학회지, 한국혈전지혈학회지가 <i>Korean J Hematol</i>로 통합됨 				
	한국혈전지혈학회지					
	항공우주의학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에 대한혈액학회지, 대한조혈 모세포이식학회지, 한국혈전지혈학회지가 <i>Korean J Hematol</i>로 통합됨 				
	<i>J Korean Med Sci</i>					
	<i>Korean Circ J</i>					
	<i>Korean J Gastroentero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에 대한면역학회지와 한국 BRM학회지가 <i>Immune Network</i>로 통합됨. 				
	<i>Korean J Hematol</i> (통합, 2005.3)					
	<i>Korean J Hepatol</i>					
	<i>Korean J Intern Med</i> (영문)					
	<i>Korean J Ophthalmol</i> (영문)					
<i>Korean J Parasitol</i>						
<i>Korean J Pathol</i>						
<i>Korean J Physiol Pharmacol</i>						
<i>Tuberc Respir Dis</i>						
<i>Exp Mol Med</i>						
대한소아신장학회지			한국전자현미경학회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i>Cancer Res Treat</i>						
대한면역학회지						
당뇨병						
천식및알레르기						
1999년(14종)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지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지 대한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p Neurobiol (한국뇌신경과학회) 대한간호학회지
대한산업의학회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대한해부학회지						
<i>J Rhinol</i> (대한비과학회)						
대한고혈압학회지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						
대한스포츠의학회지						
<i>J Korean Neurosurg Soc</i>						
2000년(2종)	대한수혈학회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 한국산업간호학회지			
2001년(3종)	<i>Korean J Radiol</i> (영문)					
	대한의진균학회지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지			

단체회원 165개				
회원가입연도	의협, 의학회 및 의학회 회원학회 학술지(124)		의대학술지(12)	기타학술지(29)
	학술지명	비고	학술지명	학술지명
2002년(6종)	대한간질학회지 대한소화관운동학회지 대한체질인류학회지 임상약리학회지 한국유방암학회지			대한치과보철학회지
2003년(5종)	대한배노장애및요실금학회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족부외과) 기본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재활간호학회지 중앙간호학회지 <i>Genomics & Informatics</i> (유전체) <i>J Vet Sci</i>
2004년(11종)	노인정신의학 소아심장 대한뇌혈관외과학회지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지			
2005년(4종)	대한위암학회지 대한임상미생물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대한골대사학회지		계명대학술지	
2006년(10종)	대한나학회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병원감염관리 의학물리		<i>Hanyang Medical Reviews</i> (한양의대 학술지)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지 대한치과교정학회지 대한치주과학회지 한국영양학회지 <i>Korean J Spine</i>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지)
2007년(6종)	대한수부외과학회지 임상검사와정도관리 <i>J Lung Cancer</i>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보건의료교육평가 대한건강주관절학회지

의협, 대한의학회 및 의학회 회원학회지 128개-통합된 학술지 4개=124개
통합학술지

2001년 대한미생물학회지와 대한바이러스학회가 *J Bacteriol Virol*로 통합됨

2001년 대한면역학회지와 한국BRM학회가 *Immune Network*로 통합됨.

2003년 대한감염학회지와 대한화학요법학회가 감염과학요법으로 통합됨.

2005년 대한혈액학회지,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지, 한국혈전지혈학회지가 *Korean J Hematol*로 통합됨.

따라서 회원학회의 학술지인 한국혈전지혈학회지를 목록에서 제외시킴.

의대학술지 12개

기타학술지 29개

〈부록 5〉

의편집 개인회원 명단 (37명)

성 명		소 속	임기(5년)
갱신	김성권	서울의대 내과학	1996.4 - 2011.3
	김수녕	건국의대 산부인과학	1996.4 - 2011.3
	김호배	가톨릭의대 의학도서관	2003.4 - 2008.3
	민양기	서울의대 이비인후과학	2004.4 - 2009.3
	박찬일	연세의대 병리학	2004.4 - 2009.3
	서정옥	서울의대 병리학	1996.4 - 2011.3
	서창옥	연세의대 치료방사선과학	1996.4 - 2011.3
	송경순	연세의대 임상병리학	1996.4 - 2011.3
	오양효	부산의대 미생물학	1996.4 - 2011.3
	이철희	서울의대 이비인후과학	1996.4 - 2011.3
갱신	이춘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1996.4 - 2011.3
	임정기	서울의대 방사선과학	2004.4 - 2009.3
	정소나	가톨릭의대 의학도서관	2003.4 - 2008.3
	조경삼	경희의대 내과학	1996.4 - 2011.3
	조승열	성균관의대 기생충학	1996.4 - 2011.3
	지제근	서울의대 병리학	1996.4 - 2011.3
	함창곡	한양의대 방사선과학	1996.4 - 2011.3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1996.4 - 2011.3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2004.4 - 2009.3
	서연림	성균관의대 병리학	2004.4 - 2009.3
2005신규	박영주	고려의대 간호학	2004.4 - 2009.3
	오병훈	연세의대 정신과학	2004.4 - 2009.3
	김동규	서울의대 신경외과학	2004.4 - 2009.3
	조수현	서울의대 예방의학	2005.4 - 2010.3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2005.4 - 2010.3
	최민호	서울의대 기생충학	2005.4 - 2010.3
	김훈교	가톨릭의대 혈액종양내과	2005.4 - 2010.3
	나은우	아주의대 재활의학	2005.4 - 2010.3
	이경수	성균관의대 영상의학	2005.4 - 2010.3
	김각균	서울대학교 치의학	2007.4 - 2012.3
2007신규	김중임	순천향대학교 간호과학	2007.4 - 2012.3
	박병주	서울의대 예방의학	2007.4 - 2012.3
	배중우	경희의대 소아과학	2007.4 - 2012.3
	이성구	울산의대 내과학	2007.4 - 2012.3
	이홍식	서울대학교 수의과학	2007.4 - 2012.3
	조동숙	을지대학교 간호과학	2007.4 - 2012.3
	한동수	한양의대 내과학	2007.4 - 2012.3

〈부록 6〉

의편협 특별회원 명단

특별회원	가입연도
메드랑(의학문화사)	1996
아카데미아	1996
중앙문화사	1996
진기회	2002
최신의학사	2003
광문출판사	2003
엠투커뮤니티	2005
NHN(주)	2007
JOY DESIGN	2007
Google Inc.	200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7

〈부록 7〉

의편집의 학술지 평가항목의 변천: 대비표

〈의학학술지 평가항목 변천과정〉

구 분	내 용
① 1996.9.16	의학학술지 평가 기준 초안 마련
② 1997.8.18	국내의학 학술지 시범평가 실행안과 학술지 평가항목 제정
③ 1997.8.27	시범 평가회(서울교육문화회관)
④ 1997.9.23	학술지 평가항목 1차 개정
⑤ 1997.11.5	제1차 학술지 평가회 개최
⑥ 1999.7.5	학술지 평가항목 2차 개정
⑦ 2000.5.16	학술지 평가개선 워크숍(평가항목 재검토)
⑧ 2001.3.26	학술지 평가항목 3차 개정

초안(1996.9.16)	평가항목 제정(97.8.18)	1차 개정(97.9.23)	2차 개정(99.7.5)	3차 개정(01.3.26)
<p>1-1 편집인의 임기와 교체 정도</p> <p>①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회장 측근이 편집인이 됨.</p> <p>②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회원 중 유능하다고 판단된 사람이 편집인이 된다.</p> <p>③ 회장의 임기와 같으나 유능한 편집인이라면 1회 중임이 가능하다.</p> <p>④ 회장의 임기와 같으나 유능한 편집인이라면 반복 중임이 가능하다.</p> <p>⑤ 회장의 임기와 별도로 선출하며 반복 선출(연임)이 가능하다.</p>	<p>1-1 최근 15년간 편집인 교체 횟수</p> <p>() 1점: 9회 이상</p> <p>() 2점: 6-8회</p> <p>() 3점: 4-5회</p> <p>() 5점: 3회 이하</p> <p>() + 1점: 편집인 전임제를 운영하는 경우 1점 가산</p>	<p>좌동</p>	<p>좌동</p>	<p>좌동</p>
<p>1-2 편집위원회 회의 구성과 실적</p> <p>① 편집위원회는 명목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p> <p>② 편집위원회는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회의 실적이 없다.</p> <p>③ 편집위원회는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모인다.</p> <p>④ 편집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고 정기적으로 모여 학술지 게재논문을 정한다.</p> <p>⑤ 편집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로 합리적으로 구성되고 정기적으로 모여 편집 방침을 정하고 분쟁을 해결한다.</p>	<p>1-2 편집위원회(또는 간행위원회)의 구성과 편집정책회의의 빈도</p> <p>1점: 구성은 되어 있으나 편집 정책회의 실적이 없다.</p> <p>2점: 해당 학회(또는 대학)의 회원(또는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의 회의 실적은 부정기적이고 3회 이내이다.</p> <p>4점: 해당 학회(또는 대학)의 회원(또는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한다.</p> <p>5점: 해당 학회(또는 대학) 소속원 이외의 편집관련 전문인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의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한다.</p>	<p>좌동</p>	<p>좌동</p>	<p>(문구수정)</p> <p>5점: 해당 학회(또는 대학) 소속원 이외의 편집관련 전문인(또는 출판사 직원)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의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한다.</p>
<p>1-3 발송처 평가</p> <p>① 학술지 발송은 회원에만 국한되고 회원이 많은 기관별로 일괄 발송한다.</p> <p>② 학술지는 회원에만 발송하고 회원별로 배포처를 관리한다.</p> <p>③ 학술지는 회원과 국내 유관기관(도서관, 언론사 등)별 배포처를 관리한다.</p> <p>④ 학술지는 회원과 국내외 유관기관 배포처를 장부로 관리한다.</p> <p>⑤ 학술지는 회원과 국내외 유관기관 배포처를 카드나 컴퓨터로 관리한다.</p>	<p>1-3 편집업무 지원관련 사항</p> <p>1점: 편집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있다.</p> <p>1점: 편집업무 전담직원이 있다.</p> <p>1점: 영문교정인을 별도로 두고 있다.</p> <p>1점: copywriter를 별도로 두고 있다.</p> <p>1점: 원고 접수일자,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재심사 여부, 게재여부 결정일자 등을 장부 또는 컴퓨터로 관리한다.</p>	<p>(문구수정)</p> <p>1점: 원고의 체제 및 문장수정을 담당하는 copy editor를 별도로 두고 있다.</p>	<p>좌동</p>	<p>(문구 수정)</p> <p>1점: 편집업무 담당 사무직원이 있다.</p> <p>1점: 원고의 체제 및 문장수정을 담당하는 copy editor가 있다.</p>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0년

초안(1996.9.16)	평가항목 제정(97.8.18)	1차 개정(97.9.23)	2차 개정(99.7.5)	3차 개정(01.3.26)
<p>1-4 투고 규정의 합리성</p> <p>① 투고규정이 정한 내용 중 취급논문의 범위, 논문 제출 자격, 논문 제출 주소, fax, e-mail 주소, 제출 원고 부수, 저작권 관련 사항, 상호심의 방법, 상호 심의에 대응하는 방법, 교정쇄 처리방법 등이 자세하지 않거나 빠진 경우가 있다. 제출 논문 작성 방법이 자세하지 않거나 관행을 허용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저자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항의할 소지가 있다.</p> <p>③ 위의 사항이 포함된 투고 규정이지만 자세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p> <p>⑤ ①의 사항이 모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p>	<p>1-4 논문 게재 결정</p> <p>0점: 원고가 편집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쇄소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거나 제출원고를 심사없이 인쇄소로 넘기는 사례가 있다.</p> <p>1점: 편집인 단독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p> <p>3점: 1명의 상호심의 결과에 따라 편집인이 결정한다.</p> <p>4점: 2명 이상의 상호심의 후 제3자 심사의뢰 여부 등을 편집인이 판단한다.</p> <p>5점: 상호심의 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p>(일부삭제 및 문구수정)</p> <p>4점란을 삭제.</p> <p>5점: 2명 이상의 상호심의 후 편집인이 판단한다.</p>	좌동	좌동
<p>1-5 정기 발행 여부</p> <p>① 간기(연간, 계간, 격월간, 월간, 주간)는 정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원고가 모이면 발간.</p> <p>② 간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p> <p>③ 간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 합병호를 발간한 경우가 있다.</p> <p>⑤ 간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없다.</p>	<p>1-5 1차 상호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최근 1년간)</p> <p>0점: 상호심의도 없고, 편집인이 원고를 보지 못한 상태로 인쇄되는 사례가 있다.</p> <p>1점: 상호심의 없이 편집인 단독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p> <p>2점: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20%보다 많다.</p> <p>3점: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20%이내이다.</p> <p>4점: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20%이내이다.</p> <p>5점: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10%이내이다.</p>	<p>(문구수정)</p> <p>4점: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10%-20%이다.</p>	좌동	좌동
<p>1-6 발간 일자 준수</p> <p>① 정해진 발간 예정일이 없다.</p> <p>② 정해진 발간 예정일을 대부분 지키지 못하고 항상 2주일 이상 지연된다.</p> <p>③ 정해진 발간 예정일을 대부분 지키지만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p> <p>④ 정해진 발간 예정일을 지킨다.</p> <p>⑤ 정해진 발간 예정일을 어긴 일이</p>	<p>1-6 상호심의 1차 심사 결과(최근 1년간)</p> <p>0점: 상호심의 제도가 없다.</p> <p>1점: 수정요구 또는 배척되는 논문이 10% 미만이다.</p> <p>2점: 수정요구 또는 배척되는 논문이 10% 이상 20% 미만이다.</p> <p>3점: 수정요구 또는 배척되는 논문이 20% 이상 40% 미만이다.</p> <p>4점: 수정요구 또는 배척되는 논문이</p>	<p>1-6 상호심의 1차 심사 결과(최근 1년간)</p> <p>0점: 상호심의 제도가 없다.</p> <p>1점: 게재논문의 10% 미만이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p> <p>2점: 게재논문의</p>	좌동	좌동

초안(1996.9.16)	평가항목 제정(97.8.18)	1차 개정(97.9.23)	2차 개정(99.7.5)	3차 개정(01.3.26)
없고 유관 초록 잡지에는 미리 내용을 전달한다.	40% 이상 60% 미만이다. 5점: 수정요구 또는 배척되는 논문이 60% 이상이다.	10%-20%가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3점: 게재논문의 20%-40%가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4점: 게재논문의 40%-60%가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5점: 게재논문의 60% 이상이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1-7 발송처 관리 ① 발송처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② 발송처 목록을 장부로 List만 갖고 있고 발송처 주소 등 내용 변동은 거의 없다. ③ 발송처 목록 장부의 주소를 수시로 고친다. ⑤ 발송처 목록 카드나 컴퓨터 관리 체계를 수시로 점검한다.	1-7 상호심의 최종 결과 배척(rejection) 또는 저자회수(withdraw)을 (최근 2년간) 0점: 전혀 없다. 2점: 5% 미만 3점: 5% 이상 10% 미만 4점: 10% 이상 20% 미만 5점: 20% 이상	좌동	좌동	좌동
1-8 저작권 보호(이중게재 방지) 조치 ① 투고 규정에 이중게재 등 저작권 보호 규정이 없다. ③ 투고 규정에 이중게재와 기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감시하지 않는다. ⑤ 투고 규정에 이중게재와 기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적용한 예가 있다.	1-8 기타 상호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점: 심사위원이 재심, 3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점: 논문심사 내역서, 저자수정 내역서 등을 보관한다. 1점: 논문심사 지침서 또는 상호심의 업무편람을 갖추고 있다. 2점: 논문 심사위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좌동	좌동	좌동
1-9 상호 심의제도(peer review) 운영 결과 ① 제출 원고는 편집인을 거치지 않고 인쇄소로 직접가는 경우가 있다. ② 제출 원고는 일단 편집인에게 제출되지만 거의 그대로 인쇄소로 넘어간다.	1-9 연간 발행 횟수(최근 1년동안의 간기) 1점: 1회(annual) 2점: 2회(biannual) 3점: 4회(quarterly) 4점: 6회(bimonthly) 5점: 12회 이상(monthly 또는 weekly)	1-9 항목 전체 삭제		

초안(1996.9.16)	평가항목 제정(97.8.18)	1차 개정(97.9.23)	2차 개정(99.7.5)	3차 개정(01.3.26)
<p>③ 제출 원고는 편집인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인쇄여부를 결정한다.</p> <p>④ 제출 원고가 편집인에게 제출되면 상호 심의를 실시하며 배척률은 5% 미만이고 원고 수정요구율도 낮다.</p> <p>⑤ 제출 원고가 편집인에게 제출되면 상호심의를 하며 원고 중 5% 이상 배척되고 많은 수가 수정 후 게재된다.</p> <p>1-10 상호 심의제도(peer review) 운영 실태</p> <p>① 제출 원고는 편집인에게 도착하지 않고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p> <p>③ 제출 원고가 편집인은 접수 일자,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심사 내역서 관리, 게재여부 판단기준, 게재 결정 일자 등을 기록한 장부를 만들지 않고 운영한다.</p> <p>⑤ ③의 기록 장부를 기초로 편집 업무를 집행한다.</p>	<p>1-10 정기 발행 여부(최근 2년간)</p> <p>0점: 간기를 정하지 않고 원고가 모이면 발간한다.</p> <p>1점: 간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p> <p>2점: 간기를 지키지 못하여 합병호를 발간한 경우가 있다.</p> <p>5점: 간기를 어김없이 지킨다.</p>	<p>1-9: 좌동</p>	<p>1-9: 좌동</p>	<p>1-9: 좌동</p>
<p>1-11 찾아보기표(index) 작성 여부</p> <p>① 찾아보기표를 만든 일이 없다.</p> <p>② 권말마다 만들지는 않고 수년에 한 번씩 만든 일이 있다.</p> <p>③ 권말마다 만드나 수록 논문 목록과 저자의 찾아보기표를 만든다.</p> <p>④ 권말마다 수록논문과 저자 및 중심단어(key-word)의 찾아보기표를 만든다.</p> <p>⑤ 권말마다 수록논문, 저자 및 key words in context의 찾아보기표를 만든다.</p>	<p>1-11 발행 일자 준수 여부(최근 2년간)</p> <p>0점: 정해진 발간일이 없다.</p> <p>1점: 연간 발행 횟수의 25% 이상에서 1주일 이상 지연되었다.</p> <p>2점: 연간 발행 횟수의 25% 미만에서 1주일 이상 지연되었다.</p> <p>3점: 정해진 발간일에서 1주일 이내 지연된 일이 있다.</p> <p>5점: 정해진 발간일을 지키지 못한 일이 없다.</p>	<p>1-10: 좌동</p>	<p>1-10: 좌동</p>	<p>협의회 조사항목 3-1로 이동</p>
<p>1-12 해당 학술지 논문에 동일 학술지 논문이 인용되고 있는지 ?</p> <p>① 전혀 인용되지 않는 형편이다.</p> <p>② 자기 학술지 논문을 꼭 인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p> <p>③ 저자의 자유이며 어느 정도 인용한다.</p>	<p>1-12 저작권 보호(이중게재 방지) 조치</p> <p>0점: 투고규정에 저작권 관련 조항이 없다.</p> <p>1점: 투고규정에 저작권 관련 조항이 있으나 최근 2년간 상대측 편집인의 허락 없이 이중 게재를 허용한 예가 있다.</p> <p>2점: 투고규정에 저작권 관련 조항이 있</p>	<p>1-11:좌동</p>	<p>1-11: 좌동</p>	<p>1-10: 좌동</p>

초안(1996.9.16)	평가항목 제정(97.8.18)	1차 개정(97.9.23)	2차 개정(99.7.5)	3차 개정(01.3.26)
<p>⑤ 저자의 자유이며 관련논문은 열심히 인용한다.</p> <p>1-13 Medline이나 ISI (SCI 주관 과학정보회사) 이외의 국제 초록잡지에 귀 학술지를 발송하고 초록이 게재되고 있습니까? ① 발송하지도 않는다. ② 한 곳에 발송하지만 게재하지 않는다. ③ 여러 곳에 발송하지만 게재 실적이 없다. ④ 여러 곳에 발송하며 초록잡지 한 곳이 게재한다. ⑤ 여러 곳에 발송하며 초록 잡지 여러 곳에서 게재한다.</p> <p>2-1 표지도안 상태와 오자(誤字)가 있는지 여부</p>	<p>으나 최근 2년간 이중게재를 감시한 일이 없다.</p> <p>4점: 투고규정의 저작권 관련 조항이 있으며, (서면상의 동의는 없었더라도) 양측의 합의하에 이중게재를 허용한 예가 있다.</p> <p>5점: 양측의 사용 언어가 다르거나 양측 편집인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이중게재를 허용하는 등 관련 투고 규정이 구체적이며, 감시 활동의 실적이 있다.</p> <p>+1점: 저자 모두의 동의서를 받고 있으면 1점 추가</p> <p>1-13 발송처 범위 1점: 해당 학회(또는 대학)의 회원(또는 교원)에 기관별로 일괄 발송한다. 1점: 국내 유관기관(도서관, 언론사 등)에 배포한다. 1점: 국외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1점: 판매실적이 있다. 1점: Excerpta Medica, Biological Abstracts, Chemical Abstracts와 같은 의학 관련 국제 전문 초록잡지에 발송한다.</p> <p>1-14 발송처 관리 0점: 발송처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1점: 발송처 목록을 장부 또는 카드로 작성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변동사항을 점검한 적이 없다. 2점: 발송처 목록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변동사항을 점검한 적이 없다. 4점: 발송처 목록을 장부 또는 카드로 작성하며, 수시로 점검한다. 5점: 발송처 목록을 컴퓨터로 작성하며, 수시로 점검한다.</p> <p>2-1 표지도안 상태와 오자(誤字) 유무 0점: 표지 지지(紙誌)사항에서 오자가</p>	<p>1-12: 좌동</p> <p>1-13: 좌동 1-14(찾아보기표 작성여부): 좌의 2-12가 이동</p> <p>좌동</p>	<p>1-12: 좌동</p> <p>좌의 1-13 항목 (발송처관리) 삭제 1-13: 좌의 1-14</p> <p>좌동</p>	<p>1-11 좌동</p> <p>1-12 좌동</p> <p>좌동</p>

초안(1996.9.16)	평가항목 제정(97.8.18)	1차 개정(97.9.23)	2차 개정(99.7.5)	3차 개정(01.3.26)
① E 급(나쁜 상태) ② D 급(많이 개선되어야 할 상태) ③ C 급(보통 상태) ④ B 급(좋음) ⑤ A 급(훌륭)	발견되고 지면배치(layout)나 도안에 개선할 사항이 많다. 1점: 표지의 지지사항에서 오자가 발견된다. 2점: 표지의 지지사항에 오자는 없으나 지면배치와 도안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 3점: 오자가 없고, 표지 도안은 보통이다. 5점: 훌륭하다.			
2-2 편집인이 관리해야 하는 투고규정 및 관권관리란의 인쇄 상태와 오자 여부 ① E 급(나쁜 상태) ② D 급(많이 개선되어야 할 상태) ③ C 급(보통 상태) ④ B 급(좋음) ⑤ A 급(훌륭)	2-2 투고규정, 관권관리란, 게재논문목록 등 편집인이 관리해야 하는 부문의 오자 유무 및 인쇄상태 0점: 배열이 조잡하고 인쇄상태가 좋지 않으며, 오자(띄어쓰기 포함)도 자주 발견된다. 1점: 조잡하지는 않으나 인쇄상태가 나쁘고 오자도 발견된다. 2점: 인쇄상태는 좋으나 오자가 발견된다. 3점: 오자는 없으나 인쇄상태가 좋지 않다. 5점 : 오자도 없고 인쇄상태도 좋다.	좌동	(질문 추가) 4점: 오자가 없으며 인쇄상태는 보통이다.	좌동
2-3 평가하는 잡지에 실린 논문의 참고 문헌 인용방식과 문헌 배열 방식은 모두 투고규정에 맞추어 일정한 체제(format)를 유지하는가? ① 논문마다 다르다. ② 눈에 띄게 다른 체제로 인쇄된 논문이 있다. ③ 눈에 띄게 다른 체제로 인쇄되지는 않았으나 논문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다. ④ 논문은 투고 규정에 맞추어 일정한 체제를 유지하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 ⑤ 체제상 완벽하다.	2-3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I) 1점: 취급논문의 범위, 논문제출 자격 및 간기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 1점: 논문의 종류별 논문 구성요소 및 작성 요령 포함 1점: 중심단어(key word) 작성 요령을 포함 1점: 사용 용어 및 도량형에 관한 사항을 포함 1점: 그림, 사진, 도표 작성 요령 및 규격 사항을 포함	좌동	2-3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I) : 학술지의 기본적인 사항 1점: 취급논문의 범위 1점: 논문제출 자격 1점: 간기 1점: 논문의 종류별 논문 구성 요소 1점: 논문 작성의 기본 요령 () : (1)-(5) 해당 점수의 합	(질문 추가) 1점: 학술지의 공식 영문명칭과 약칭을 명시 () : (1)-(6) 해당 점수의 합
2-4 논문제목, 저자 성명, 저자 소속은 일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명백한 오류는 없는가? ① 이 부분에서 1곳 이상의 오자가	2-4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II) 1점: 저자의 원고제출 전 점검사항 표를 포함 1점: 교정쇄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질문 추가) +1점: 책임저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기록	2-4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II) : 투고원고 작성에 관한	좌동

초안(1996.9.16)	평가항목 제정(97.8.18)	1차 개정(97.9.23)	2차 개정(99.7.5)	3차 개정(01.3.26)
<p>발견된다(또는 논문 상호 간 체제상의 차이가 있다).</p> <p>② 오자는 전혀 발견되지 않으나 활자 크기나 배열 상태에 문제가 있다.</p> <p>③ 오자도 없고 배열 상태도 좋으나 저자의 잘못이 수정되지 않고 인쇄되었다(예: 소속 대학교 이름 등 고유 명사를 잘못 쓴 것이 교정되지 않았다).</p> <p>④ 이상의 사항은 좋으나 제목 등을 간결하게 처리하지 못한 예가 있다.</p> <p>⑤ 완벽하게 처리되었다.</p> <p>2-5 영문 또는 국문 초록</p> <p>① 체제가 일정하지 않거나, 오자가</p>	<p>1점: 원고의 표지 및 속표지 작성 요령을 포함</p> <p>1점: 책임저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p> <p>1점: Electronic 원고(floppy diskette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p> <p>2-5 논문(국문 또는 영문)제목, 저자 이름 및 소속 사항의 인쇄 체제와 오자 유무</p>	<p>하게 되어 있으면</p> <p>2-5: 좌동</p>	<p>사항</p> <p>1점: 제목 작성 요령</p> <p>1점: 초록 작성 요령</p> <p>1점: 중심단어 (key word) 작성 요령</p> <p>1점: 본문의 용어 및 도량형에 관한 사항</p> <p>1점: 그림, 사진, 도표 작성 요령 및 규격 사항</p> <p>() : (1)-(5) 해당 점수의 합</p> <p>(항목 신설)</p> <p>2-5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Ⅲ): 원고 작성 및 심사에 관한 사항</p> <p>1점: 저자의 원고 제출 전 점검사항 표</p> <p>1점: 교정쇄 처리에 관한 사항</p> <p>1점: 원고의 표지 및 속표지 작성 요령</p> <p>1점: 책임저자에 관한 사항</p> <p>1점: Electronic 원고(floppy diskette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p> <p>1점: 책임저자에 관한 사항</p> <p>1점: Electronic 원고(floppy diskette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p> <p>1점: 인체실험의 경우 사전 동의와 IRB 승인서 요구 여부</p> <p>1점: 동물실험의 IRB 승인서 요구 여부</p> <p>() : (1)-(7) 해당 점수의 합</p> <p>2-6: 좌동</p>	<p>3차 개정(01.3.26)</p> <p>(질문추가 및 문구수정)</p> <p>1점: 저자의 원고제출 전 점검사항 표(논문 내 또는 학회 homepage 참고 가능)</p> <p>1점: 교정쇄(page proof) 처리에 관한 사항</p> <p>1점: 원고의 표지 및 속표지 작성 요령</p> <p>1점: 책임저자에 관한 사항</p> <p>1점: Electronic 원고(floppy diskette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p> <p>1점: 인체실험의 경우 사전 동의와 IRB 승인서 요구 여부</p> <p>1점: 동물실험의 IRB 승인서 요구 여부</p> <p>() : (1)-(7) 해당 점수의 합</p> <p>2-6: 좌동</p>

초안(1996.9.16)	평가항목 제정(97.8.18)	1차 개정(97.9.23)	2차 개정(99.7.5)	3차 개정(01.3.26)
<p>발견되거나, 읽어서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있는 논문이 그대로 게재된 경우(3가지 중 모두 해당)</p> <p>② 체제는 일정하지만 오자가 발견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있는 논문이 있는 경우</p> <p>③ 체제는 일정하고 오자도 없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는 논문이 있는 경우</p> <p>④ 이상의 문제는 없으나 개선의 여지가 명백한 논문이 있는 경우</p> <p>⑤ 만족할만한 수준</p> <p>2-6 본문(제목, 초록, 표와 그림 설명 제외, 인용문헌 포함)에서 명백한 오자(띄어 쓰기 잘못된 제외)가 발견되는 빈도는?</p> <p>① 페이지당 3개 또는 그 이상</p> <p>② 페이지당 2개</p> <p>③ 페이지당 1개</p> <p>④ 페이지당 1개 미만</p> <p>⑤ 없음</p> <p>2-7 그림과 표의 설명은 체제에 맞게 작성되었으며 lay-out은 적당한지? (무작위 선택 논문 3편 중)</p> <p>① 그림과 표 설명 문안의 체제가 일정하지 않게 인쇄되었거나 오자가 있고 중요한 그림이 작게, 중요하지 않은 그림이나 표가 크게 인쇄된 예가 있다.</p> <p>② 그림과 표의 설명 문안은 체제를 잘 유지하지만 오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lay-out이 잘못된 예가 있다.</p> <p>③ 그림과 표 설명 문안은 잘되어 있으나 lay-out이 잘못되어 위치와 크기가 잘못된 경우가 있다.</p>	<p>0점: 논문제목에서 1군데 이상의 오자가 발견된다.</p> <p>1점: 논문 상호 간 체제상의 차이가 있다.</p> <p>3점: 일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오자도 없지만 고유명사 표기의 오류와 부호를 잘못 표기한 경우가 있다.</p> <p>4점: 이상의 사항은 좋으나 제목 등을 간결하게 처리하지 못한 논문이 있다.</p> <p>5점: 완벽하게 처리되었다.</p> <p>2-6 영문(또는 국문)초록의 체제와 오자유무</p> <p>0점: 체제가 일정치 않고 어색한 문장과 오자가 발견된다.</p> <p>1점: 체제는 일정치 않지만 어색한 문장과 오자는 거의 없다.</p> <p>2점: 체제는 일정하지만 오자가 발견된다.</p> <p>3점: 체제가 일정하고 오자도 없지만 어색한 문장이 발견되거나 초록이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다.</p> <p>4점: 이상의 문제는 없으나 지면배치에 짜임새가 없다.</p> <p>5점: 완벽하다.</p> <p>2-7 본문(참고문헌 인용 및 문헌 나열 관련 사항 제외)의 체제와 오자(띄어쓰기 제외) 유무</p> <p>0점: 체제에 일관성이 없거나 논문 구성 요소 중 일부 요소가 누락된 논문이 게재된 경우</p> <p>1점: 어색한 문장과 오자가 자주 발견되거나 오자가 많은 논문(해당 논문에서 페이지당 2개 이상)이 게재된 경우</p> <p>3점: 무작위로 택한 3쪽에서 오자의 수가 페이지당 평균 1개~2개 미만</p> <p>4점: 무작위로 택한 3쪽에서 오자의 수가 페이지당 평균 1개 미만</p> <p>5점: 무작위로 택한 3쪽에서 오자가 발견되지 않는다.</p>	<p>(문구 수정)</p> <p>0점란 삭제</p> <p>1점: 체제가 일정치 않다.</p> <p>2점-5점: 좌동</p> <p>(문구 수정)</p> <p>3점:1-2개</p>	<p>2-7: 좌동</p> <p>2-8: 좌동</p>	<p>2-7: 좌동</p> <p>2-8: 좌동</p>

초안(1996.9.16)	평가항목 제정(97.8.18)	1차 개정(97.9.23)	2차 개정(99.7.5)	3차 개정(01.3.26)
<p>④ 위의 경우가 잘되어 있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p> <p>⑤ 훌륭하다.</p> <p>2-8 논문의 사진은 모두 원본이며 선명하게 인쇄되고 있는지?</p> <p>① 사진이 원본이 아닌 경우가 인쇄되었거나, 남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원문헌을 인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p> <p>② 원본 사진이지만 선명하지 않은 사진을 바꾸지 않고 인쇄한 경우가 있다.</p> <p>③ 원본 사진은 양호하게 인쇄되었다.</p> <p>⑤ 원본 사진은 선명하고 매우 훌륭하다.</p>	<p>2-8 참고문헌 인용 방식과 문헌 나열 방식</p> <p>0점: 투고규정에 참고문헌 인용 및 나열 방식에 대한 안내가 없다.</p> <p>1점: 투고규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쓴 논문이 있다.</p> <p>2점: 모든 논문을 투고규정이 정한 방식에 맞추었으나 참고문헌의 약자표기에 오류가 있다.</p> <p>3점: 이상의 문제는 없으나 저자이름, 또는 연도-권-호-페이지 표기방식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된다.</p> <p>4점: 체제상 완벽하나 오자가 발견된다.</p> <p>5점: 무작위로 택한 2편의 논문에서 전혀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p>	<p>2-8: 좌동</p>	<p>2-9: 좌동</p>	<p>(질문 추가)</p> <p>() +1: 참고문헌을 모두 영문으로 기재하면 추가로 1점을 가산함</p>
<p>2-9 도표(line drawing)는 모두 원본이고 도표 설명 글씨 크기가 적당한가?</p> <p>① 도표는 원본이 아닌 경우가 있으며 남의 자료를 게재하면서 원문헌을 인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p> <p>② 도표는 원 자료이지만 크기가 적당하지 않게 인쇄되었거나 설명 글씨가 너무 작거나 크게 인쇄된 경우가 있다.</p> <p>③ 원본 도표 자료가 양호하게 인쇄되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p> <p>⑤ 원본 도표 자료가 모두 훌륭하게 작성되고 인쇄되었다.</p>	<p>2-9 표의 설명문안과 배치</p> <p>0점: 설명문안의 체제가 일정하지 않거나 오자가 있고 남의 표를 인용하면서 원 문헌을 인용하지 않은 예가 있다.</p> <p>1점: 설명문안의 체제는 일정하지만 오자가 발견되고 해당 표의 중요성에 비추어 크기가 크거나 작은 예가 있다.</p> <p>2점: 설명문안의 체제가 일정하고 표의 크기가 적당하지만 오자가 발견된다.</p> <p>3점: 설명문안의 체제가 일정하고 오자가 없으나 표의 크기가 적절하지 않다.</p> <p>4점: 이상의 문제는 없으나 표의 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p> <p>5점: 설명문안의 체제, 표의 크기 및 배치가 모두 훌륭하다.</p>	<p>2-9 표(table)의 설명문안과 배치</p> <p>(1) 1점: 오자가 없다.</p> <p>(2) 1점: 설명문안의 체제가 일정하다.</p> <p>(3) 1점: 사용한 약어의 설명 각주가 있다.</p> <p>(4) 1점: 표의 내부에 수직선이 없다.</p> <p>(5) 1점: 표의 크기 및 배치가 적절하다.</p> <p>() : (1)-(5) 해당 점수의 합</p>	<p>2-10: 좌동</p>	<p>2-10: 좌동</p>
<p>2-10 종이와 인쇄상태</p> <p>① 모조지에 인쇄하며 사진 인쇄는 대부분 불량하다.</p> <p>② 본문은 모조지에 인쇄하고 사진은 아트지(스노우화이트지)에 인</p>	<p>2-10 사진의 선명도와 배치</p> <p>0점: 사진이 원본이 아니거나 남의 사진을 게재한 예가 있다.</p> <p>1점: 사진이 원본이지만 설명체제(배율, 염색명 표기 등)에 일관성이 없다.</p>	<p>2-10 사진의 선명도, 설명 및 배치</p> <p>1점: 사진이 선명하다.</p> <p>1점: 설명체제(배율, 염색명 등 포함)</p>	<p>2-11: 좌동</p>	<p>2-11: 좌동</p>

초안(1996.9.16)	평가항목 제정(97.8.18)	1차 개정(97.9.23)	2차 개정(99.7.5)	3차 개정(01.3.26)
<p>쇄한다.</p> <p>③ 전체를 아트지에 인쇄하나 인쇄 상태는 인쇄면마다 일정하지 않고 사진의 인쇄상태가 일정하지 않다.</p> <p>④ 아트지에 인쇄하며 사진과 본문 인쇄상태가 양호하다.</p> <p>⑤ 중성아트지에 인쇄하고 사진과 본문 인쇄상태가 양호하다(중성지에 인쇄한 경우는 중성지 인쇄라는 말을 표지 내면에 인쇄하도록 되어 있음).</p>	<p>2점: 사진이 원본이고 설명체제도 일정 하지만 선명하지 않은 사진이 있다.</p> <p>3점: 사진이 원본이고 선명하며 설명체제도 일정하지만 크기가 적절하지 않은 예가 있다.</p> <p>4점: 이상의 문제는 없으나 사진의 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p> <p>5점: 원본사진이 선명하게 인쇄되고, 설명체제, 크기 및 배치가 모두 훌륭하다.</p> <p>2-11 도형그림(line drawing)의 글씨 크기와 배치</p> <p>0점: 원본이 아니거나 남의 사진을 인용하면서 원 문헌을 인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p> <p>1점: 조잡한 원자료를 그대로 인쇄한 경우가 있다.</p> <p>2점: 원 자료이지만 글씨가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가 있다.</p> <p>3점: 원 자료이고 글씨 크기도 적절하지만 도형그림의 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p> <p>4점: 이상의 문제는 없으나 배치가 적절하지 않은 예가 있다.</p> <p>5점: 원본 여부, 글씨 크기, 배치 등이 모두 훌륭하다.</p> <p>2-12 찾아보기표(index) 작성 여부</p> <p>0점: 작성한 적이 없다.</p> <p>1점: 수년에 한번씩 만든 적이 있다.</p> <p>2점: 권말마다 작성하지만 수록논문 목록 또는 (and/or) 저자별 찾아보기표를 만든다.</p> <p>3점: 권말마다 수록논문 목록, 저자별</p>	<p>에 일관성이 있다.</p> <p>1점: 설명이 정확하고(사진에 화살표 등 표시) 상세하다.</p> <p>1점: 크기가 적절하다.</p> <p>1점: 사진의배치가적절</p> <p>-3점: 원본 사진이 아니거나(제록스 복사 등), 남의 사진을 사용하면서 원저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3점을 감점함).</p> <p>() : (1)-(5) 해당 점수의 합</p> <p>2-11 도형그림(line drawing)의 작성방법, 글씨 크기 및 배치</p> <p>2점: 도형그림의 작성 방법이 전문적이다(컴퓨터 그래픽 혹은 전문가적 그림).</p> <p>1점: 글씨 크기가 적절하다.</p> <p>1점: 도형그림 크기가 적절하다.</p> <p>1점: 배치가 적절하다.</p> <p>-3점: 타인의 도형그림을 사용하면서 원저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3점을 감점함).</p> <p>→ 1-14로 이동</p> <p>0점: 좌동</p> <p>1점: 좌동</p> <p>2점 : 좌동</p>	<p>2-12: 좌동</p>	<p>2-12: 좌동</p>

초안(1996.9.16)	평가항목 제정(97.8.18)	1차 개정(97.9.23)	2차 개정(99.7.5)	3차 개정(01.3.26)
<p>3-1 우리나라 의학도서관에 학술지가 비치된 정도</p> <p>① 전혀 비치되지 않는다.</p> <p>③ 조사 도서관의 50% 내외가 비치한다.</p> <p>⑤ 조사한 도서관 전체에 기간본을 포함하여 비치되어 있다.</p>	<p>찾아 보기 표 및 중심단어별 찾아보기표를 만든다.</p> <p>4점: 권말마다 수록논문 목록, 저자별 찾아 보기 표 및 key word in context 찾아보기 표를 만든다.</p> <p>5점: 매년 수록논문의 초록을 diskette 또는 CD로 제작하여 검색 가능토록 하고 있다.</p> <p>2-13 중이와 인쇄상태</p> <p>0점: 사진을 포함한 논문 전체를 모조지에 인쇄하며 사진의 상태가 불량하다.</p> <p>1점: 사진을 포함한 논문 전체를 모조지에 인쇄하나 사진의 상태는 양호하다.</p> <p>2점: 사진만 아트지(또는 스노우화이트지)에 인쇄한다.</p> <p>3점: 전체를 아트지에 인쇄하지만 인쇄상태가 나쁘거나 페이지마다 일정하지 않다.</p> <p>4점: 전체를 아트지에 인쇄하며 인쇄상태도 양호하다.</p> <p>5점: 중성 아트지에 인쇄하며 인쇄상태도 훌륭하다.</p> <p>3-1 평가대상 학술지가 우리나라 의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정도</p> <p>1점: 조사한 도서관 중 50% 이상에서 최근 3년간 결본(volume)이 있는 경우</p> <p>2점: 조사한 도서관 중 50% 미만에서 최근 3년간 결본이 있는 경우</p> <p>3점: 조사한 도서관 중 최근 3년간 30% 미만, 최근 10년간 50% 미만의 도서관에 결본이 있는 경우</p> <p>4점: 조사한 도서관 중 최근 3년간 및 10년간 30% 미만의 도서관에 결본이 있는 경우</p>	<p>3점: 좌동</p> <p>+2점: 매년 수록논문의 초록을 컴퓨터에 DB로 저장하여 검색 가능토록 한다(인터넷, CD 등).</p> <p>2-12 중이와 인쇄상태(좌동)</p> <p>2-13 학술지의 목적, 범위, 및 기타사항에 관한 별쪽의 안내, 매호의 별쪽에 다음의 안내를 하고 있다.</p> <p>1점: 학술지의 목적 및 범위에 관한 간략한 기술</p> <p>2점: 발행인, 편집인 및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p> <p>1점: 연락처</p> <p>1점: 홈페이지의 주소 () : (1)-(4) 해당 점수의 합 (신설)</p> <p>3-1 평가대상 학술지가 우리나라 의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정도</p> <p>1점: 조사한 도서관 중 최근 3년간 결본(volume)이 50%-70%인 경우.</p> <p>2점: 조사한 도서관 중 최근 3년간 결본(volume)이</p>	<p>→ 2-12 중이와 인쇄상태 (삭제)</p> <p>2-13 학술지의 판권과 연락처에 관한 별쪽 안내</p> <p>1점: 학술지의 목적 및 범위에 관한 간략한 기술</p> <p>1점: 발행인, 편집인 및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p> <p>2점: 연락처(주소, 전화, 팩스)</p> <p>1점: 홈페이지 및 e-mail 주소</p> <p>3-1: 좌동</p>	<p>2-13: 좌동</p> <p>좌의 3-1 삭제</p> <p>(좌의 1-10이 이동)</p> <p>3-1 발행일자 준수 여부 (최근 2년간)</p> <p>0점: 정해진 발간일이 없다.</p> <p>1점: 연간 발행 횟수의 25% 이상에서 2주일 이상 지연되었다.</p> <p>2점: 연간 발행 횟수의 25% 미만에서 2주일 이상 지연되었다.</p>

초안(1996.9.16)	평가항목 제정(97.8.18)	1차 개정(97.9.23)	2차 개정(99.7.5)	3차 개정(01.3.26)
<p>3-2 의학학술지의 SCI impact factor 조사 결과</p> <p>① 수십년간 0</p> <p>④ 지난 수십년간 1회 이상 인용 실적 적이 있으나 계산이 안됨</p> <p>⑤ impact factor 0.01 이상</p>	<p>5점: 조사한 도서관 중 최근 3년간 및 10년간 15% 미만의 도서관에 결본이 있는 경우</p> <p>() +1점: 최근 3년간 결본율이 10년간 결본율의 1/2 이하로 감소한 경우 1점 가산</p> <p>3-2 게재논문의 자체 학술지 인용 비율 (Journal Self-Citation Rate)</p> <p>0점 : 전혀 없다.</p> <p>1점 : 5% 미만</p> <p>3점 : 5% 이상 10% 미만</p> <p>5점 : 10% 이상</p>	<p>50%미만인 경우.</p> <p>3점: 조사한 도서관 중 최근 3년간 결본이 30% 미만, 최근 10년간 결본이 50% 미만인 경우.</p> <p>4점: 조사한 도서관 중 최근 3년간 및 10년간의 결본이 30% 미만인 경우.</p> <p>5점: 조사한 도서관 중 최근 3년간 및 10년간의 결본이 15% 미만인 경우.</p> <p>() +1점: 최근 3년간 결본율이 10년간 결본율의 1/2 이하로 감소한 경우 1점 가산</p> <p>좌동</p>	<p>3-2 게재논문의 자체 학술지 인용 비율(Journal Self-Citation Rate)</p> <p>0점: 전혀 없다.</p> <p>1점: 3% 미만</p> <p>2점: 3% 이상 5% 미만</p> <p>3점: 5% 이상 8% 미만</p> <p>4점: 8% 이상 10% 미만</p> <p>5점: 10% 이상</p> <p>註. 평가대상 학술지에 인용된 참고문헌 전체 중 자체 학술지에서 인용한 문헌 수의 백분율</p>	<p>3점 : 정해진 발간일에서 2주일 이내 지연된 일이 있다.</p> <p>5점 : 정해진 발간일을 지키지 못한 일이 없다.</p> <p>註. 최근 1년간 의편집 납본일(학술지 도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배송에 소요되는 기간 14일을 빼고 지연기간을 산출한다.</p> <p>3-2: 좌동</p>

초안(1996.9.16)	평가항목 제정(97.8.18)	1차 개정(97.9.23)	2차 개정(99.7.5)	3차 개정(01.3.26)
<p>3-3 의학학술지의 Medline/Index Medicus 등재 여부 ① 등재되지 않음 ⑤ 등재</p>	<p>3-3 3개 주요 의학 관련 국제 전문 초록 잡지(Excerpta Medica, Biological Abstracts, Chemical Abstracts) 등재 여부 0점: 등재 안됨 1점: 1곳에 등재 3점: 2곳에 등재 5점: 3곳 모두 등재</p>	<p>좌동</p>	<p>3-3 3개 주요 의학 관련 국제 색인초록 데이터베이스(EMBASE, Biosis Preview, CA Search) 등재 여부 0점: 등재 안됨 1점: 1곳에 등재 3점: 2곳에 등재 5점: 3곳 모두 등재 註. 등재 여부는 지난 3년간</p>	<p>3-3 5개 주요 의학 관련 국제 색인초록 데이터베이스(SCI, PubMed, EMBASE, Biosis Preview, CA search) 등재여부 0점: 등재 안됨 1점: 1곳에 등재 2점: 2곳에 등재 3점: 3곳에 등재 4점: 4곳에 등재 5점: 5곳에 등재 註. 등재 여부는 지난 3년간 계속적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등재로 인정.</p>
<p>3-4 Medline/Index Medicus 또는 SCISEARCH 등재 여부 0점: 등재 안됨 3점: 한 곳에만 등재 5점: 두 곳 모두 등재</p>	<p>좌동</p>	<p>3-4 Medline 또는 SCI (Expanded) 등재 여부 0점: 등재 안됨 3점: 한 곳에만 등재 5점: 두 곳 모두 등재</p>	<p>3-4 전체항목 삭제</p>	
<p>3-5 출판 이후 3년 동안 SCI에 1회 이상 인용된 논문 편수 0점: 없음 2점: 1-4편 3점: 5-9편 4점: 10-14편 5점: 15편 이상 註.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3년 전 발행분을 이용한다.</p>	<p>좌동</p>	<p>좌동</p>	<p>3-5 전체항목 삭제</p>	
<p>3-6 SCI impact factor (최근 3년간) 0점: 없음 1점: 0.01 미만 2점: 0.01-0.05 미만 3점: 0.05-0.1 미만 4점: 0.1-0.5 미만 5점: 0.5 이상 註.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3년 전 발행분을 이용한다.</p>	<p>좌동</p>	<p>3-6 SCI impact factor (최근 3년간) 0점: 없음 1점: 0.05 미만 2점: 0.05 이상 0.1 미만 3점: 0.1 이상 0.3 미만 4점: 0.3 이상 0.5 미만</p>	<p>3-4: 좌동 註. 평가시점의 전년도 SCI impact factor를 산출하여 사용한다.</p>	

초안(1996.9.16)	평가항목 제정(97.8.18)	1차 개정(97.9.23)	2차 개정(99.7.5)	3차 개정(01.3.26)
		<p>5점: 0.5 이상 註.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4년 전 발행분을 이용한다.</p>		<p>(항목 신설) 3-5 참고문헌의 오류 0점: 전체 논문에서 10% 이상의 오류가 발견됨. 1점: 연간 2개 이상 호에서 오류가 있고 오류 문헌이 6-10개임. 2점: 연간 한 호에서만 오류가 있으나 오류 문헌이 5개 이상임. 3점: 연간 한 호에서만 오류가 있고 오류 문헌이 5개 이하임. 4점: 1년간 발행 호 전체에서 1-2개 오류를 찾을 수 있음. 5점: 전혀 오류 문헌을 찾을 수 없음. 註.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발행분을 이용한다. 문헌의 오류란 투고규정상의 참고문헌 기재 방식의 오류가 아니라 학술지명, 연도, 권호수, 쪽수, 논문명, 저자명 등 내용상의 인용 오류를 말한다.</p> <p>(항목 신설) 3-6 학술지 논문의 온라인 이용 가능성 1점: 학술지관련 Website가 있다. 2점: KoreaMed LinkOut에 참여하고 있다. 1점: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초록검색이 가능하다(무료, 회원제 또는 유료).</p>

초안(1996.9.16)	평가항목 제정(97.8.18)	1차 개정(97.9.23)	2차 개정(99.7.5)	3차 개정(01.3.26)
				<p>1점: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문보기가 가능하다(무료, 회원제 또는 유료).</p> <p>()합계</p> <p>註. KoreaMed를 제외한 국내 데이터베이스 수록 여부를 조사한다.</p> <p>(항목 신설)</p> <p>3-7 KoMCI 인용도(재평가 학술지만 해당)</p> <p>0점 : 0</p> <p>1점 : 0.1 미만</p> <p>2점 : 0.1-0.25 미만</p> <p>3점 : 0.25-0.5 미만</p> <p>4점 : 0.5-1.0 미만</p> <p>5점 : 1.0 이상</p> <p>註.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평균값을 이용한다.</p> <p>(항목 신설)</p> <p>3-8 KoreaMed 파일 입력률(1997년 이후의 입력률, 재평가 학술지만 해당)</p> <p>0점: 60% 미만</p> <p>1점: 60%-70% 미만</p> <p>2점: 70%-80% 미만</p> <p>3점: 80%-90% 미만</p> <p>4점: 90%-100 미만</p> <p>5점: 100%</p>

〈부록 8〉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현황

서정욱¹, 신좌섭², 송경순³, 박찬일⁴, 박찬규⁵, 조승렬⁶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병리학교실¹ 및 의학교육실²,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병리학교실³,
병리학교실⁴, 산부인과학교실⁵,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⁶

Current Status of Medical Journals in Korea

Jeong-Wook Seo¹, Jwa-Seop Shin², Kyung-Soon Song³,
Chan-Il Park⁴, Chan-Kyu Park⁵, Seung-Yull Cho⁶

Departments of Pathology¹ and Office of Medical Education²,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s of Clinical Pathology³, Pathology⁴ and Obsterics & Gynecology⁵,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arasitology⁶, Sung Kyun Kwa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bstract :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70 journals among 236 medical journals published in Korea. Questionnaire included general administrative particulars, financial state, circulation, contribution rules, review system and editorial affairs in 1996. Journals were categorized into 29 specialty Journals, 30 subspecialty journals, 9 general medical journals published by medical institutions and 2 others.

Fifty four percent of journals printed less than 4 issues per year. Mean value of the total annual budget was 32.86 million won. Seventy one percent of total budget was used for printing but less than 15% was used for salary of personnel of other administrative activity. Majority of their income was budget of the publishing society, advertisement, and governmental subsidy but only 4% of total budget came from regular subscription fee. Compared to the specialty journal, subspecialty journals were characterized by short history (90% were founded after 1981), small issue number (87.3% were less than 4), small number of articles per volume (85.7% were less than 40) and small budget (83.3% were less than 20 million won).

Peer review system was applied in most journals and 32% of manuscript was accepted in their first review. But the rejection rate in the first review was only 4%. Educational program for reviewers were conducted only in 3 journals but editors of 13 journals were considering to do that. Obligatory submission policy was applied in 35.7% of journals, in which every applicants for board examination was forced to submit one or more papers to their journal.

Many of the medical journals published in Korea has a relatively poor financial status, small circulation number, and inadequate review system. Those problems are probably related to the excessive number and superspecialization of the medical scientific journals in Korea.

Key words: Medical journal, peer review, editor, management.

편집자 주(註) *이 논문은 1997년 12월에 의편협 기획평가위원회의 사업으로 조사한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였으나 발표하지 않았음. 1997년 당시의 자료를 참고하게 하기위하여 게재함.

서 론

우리 나라 의학 학술단체가 1945년 해방과 함께 창설되면서 학술지도 창간되기 시작하였고, 20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국력의 신장과 의학계의 발전에 따라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이 성장과정은 초창기 일반학술지의 모색과정과 60-70년대 전문학술지의 정착과정, 그리고 80년대 이후 세부전문학술지의 급속한 팽창과정으로 요약된다. 학술지의 팽창은 최근에도 지속되어, 1983년 126종⁷이었던 의학학술지는 1990년에는 146종⁴으로, 1996년에는 224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질적 발전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우리 나라 의학학술지의 성장은 양적 측면에 치우친 기형적인 팽창이라는 비판이 그동안 거듭 제기되어 왔다^{4,8}. 의학학술지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학계의 노력은 1989년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1992년에는 제2차 “국내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51개 대한의학회 정회원 학회와 9개 준회원학회 및 12개 대학학술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1996년 2월에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를 발족시켰다. 편집인협의회는 1996년 9월 “의학학술지 평가기준”을 완성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실행 사업으로 ‘학술지 현황조사’와 ‘학술지 평가’를 기획,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황조사’는 1996년 10월에 설문지를 완성, 1년에 걸쳐 70종 의학학술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필자들은 이 ‘현황조사’³의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996년 11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1년간 우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학학술지는 총 70종으로서 전문학술지 29종, 세부전문학술지 30종, 대학학술지 9종, 기타 2종이었다. 여기서 전문학술지(specialty journals)는 ‘의학회 정회원 단체들이 전문의 과목과 기초의학교실 과목 중심으로 발행하는 전문의학잡지’를, 세부전문학술지(subspecialty journals)는 ‘세부 전문분야에 관계되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의학회 준회원단체로 활동하면서 발간하는 잡지’를 지칭한다⁴. 단, 전문의 과목이나 기초의학교실 과목이 아니더라도 상이한 여러 전문과목이나 전문분과의 연합으로 발간되는 잡지, 예컨대 결핵 및 호흡기 질환 등은 전문학술지로 분류하였다.

설문은 ㉠ 일반행정사항 I (잡지명, 발행처 등), ㉡ 일반행정사항 II (창간연도, 호수 등), ㉢ 재정상황, ㉣ 독자현황, ㉤ 저자현황, ㉥ 투고규정, ㉦ 편집자현황, ㉧ 편집실무현황, ㉨ 논문

심사현황 I (심사위원), ㉔ 논문심사현황 II (심사), ㉕ 논문인쇄현황, ㉖ 학술지에 대한 자체 평가, ㉗ 기타 의견으로 구성되었다. 상세한 설문조사결과는 '의학학술지 현황조사' 3에 실려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조사 결과를 몇 가지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검토하였다.

결 과

1. 창간시기와 규모

70종의 의학학술지 중에서 1981년 이후 창간된 잡지는 61.4%로서 우리 나라 의학학술지가 80년대 이후에 급격히 팽창하였음을 보여준다. 연간발행 호수가 4호 미만인 잡지가 54% (1~2호인 잡지는 52.9%)이고, 96년도 연간발행 면수는 400면 미만이 57.1%, 96년도 게재 논문총수는 40편 미만이 57.1%로 나타났다.

전문학술지와 세부전문학술지를 비교해보면 두 그룹 간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세부전문학술지가 최근에 창간한 것이 많고, 연간발행 호수가 4호 이하인 잡지가 많으며, 연간발행 면 수가 400면 미만인 잡지, 연간게재 논문 총수가 40편 미만인 잡지가 대부분이었다(표1).

표1 전문학술지와 세부전문학술지의 규모비교

항목	81년 이후 창간	연간발행 호수 4호 미만	연간발행 면수 400면 미만	연간게재 논문 수 40편 미만	총 예산규모 2천만원 미만
전문학술지(n=29)	27.6%	13.8%	25.0%	25.0%	20.0%
세부전문학술지(n=30)	90.0%	87.3%	85.2%	85.7%	83.3%
전체(n=70)	61.4%	54.0%	57.1%	57.1%	63.5%

2. 재정 현황

재정조달 방법을 학회 예산 33%, 광고비 33%, 외부보조금 20%, 독자구독료 4%, 기타 9%의 순이었다. 수입 항목에 독자구독료가 잡혀있는 잡지는 총 8종으로서 전체의 11%에 불과하였다. 연간 총 예산 규모를 공개한 52종 학술지 예산 합계가 17억 896만원으로서 잡지당 평균 3,286만원이었다. 총 예산이 2천만원 미만인 잡지는 63.5%였다. 전문학술지의 연간 총 예산 규모는 80%가 2,000만원 이상인데 비하여 세부전문학술지는 83.3%가 2천만원 미만이었다. 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인쇄비 71%, 우편요금 8%, 편집관련비용 6%로 제작 및 발송비가 총 예산의 85%를 차지하여 가장 기본적인 지출항목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배포처 및 독자

총 발행부수는 600부 이하인 학술지가 30종으로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발행부수 73,390부 중에 회원 배부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61.4%이고, 기관 및 도서관 배포용의 비율은 14.2%이다. 기관 및 도서관 배포 부수는 6부에서 700부까지 다양하며, 보관용 역시 10~500부로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학술지에 독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 독자투고 등의 상설적, 체계적 통로를 활용하는 경우는 7종 잡지에 불과하였고 전체의 74%인 52종은 독자의 요구를 직접 반영하는 활동이 없었다.

4. 논문 투고 및 투고자

96년 연간게재 논문 수를 종설, 원저, 증례 및 기타로 구분하여 응답한 잡지는 66종이었는데, 이들 잡지에 게재된 총 논문은 5,758편이었다. 이 중 종설은 6.0%, 원저 및 증례는 92.0%, 기타 2.0%였다(표2). 투고자를 ‘본 학회회원’, ‘본 대학 교직원 및 동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학술지가 43.5%였으며, 전문의 고시에 필요한 논문 중 지정 편수를 특정학회지에 게재해야 한다거나 학위논문을 본 대학 잡지에 게재해야 한다는 식의 투고의무 규정을 둔 잡지가 35.7%로 아직도 의무규정에 의존해 논문을 확보하는 잡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게재자에 대해 연구비 및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잡지는 51.4%였다.

표2 그룹별 종설, 원저, 증례 및 기타의 게재비율(96년도)

그룹	전문학술지 (n=29)	세부전문학술지 (n=30)	대학학술지 (n=9)	기타 (n=2)
종설	4.2%	12.8%	10.3%	76.9%
원저	60.6%	40.3%	44.7%	23.1%
증례, 기타	35.3%	46.9%	44.9%	0

5. 편집인 및 편집위원회

편집책임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는 잡지가 8종, 2년이 49종, 3년이 8종, 5년이 1종이었다. 편집책임자가 단임제로 운영되는 학술지가 4종, 1회 중임이 가능한 학술지가 9종, 2회 이상이 15종이었고 나머지는 응답이 없었다. 편집회의는 연간 3회 이하가 62%였다.

학술지의 편집 보조 업무를 위해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한 경우가 9종, 기존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23종이었고 의사가 편집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학술지가 77%였다.

6. 논문심사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는 학술지가 43종으로 응답 학술지의 63%였다. 논문의 일부만 심사 의뢰하는 학술지가 12종, 편집위원장이 심사를 하고 별도의 심사의뢰를 하지 않는 학술지가 12종, 심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학술지가 1종이었다. 접수된 논문을 1명에게 심사의뢰하는 경우가 6종, 편집인을 포함하여 2명이 심사하는 경우가 23종, 편집인 외에 2인이상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학술지가 30종이었다.

1차 심사결과의 분포는 '심사 완료 게재가(32%)'와 '수정확인 후 게재(48%)', '수정 후 재심사 요망(18%)', '게재불가(4%)'로 나타났다. 응답을 하지 않은 16종 잡지를 제외한 54종 잡지 중에서 36종은 제출된 논문을 모두 게재하였으며, 3건 이내 거부한 학술지가 14종, 4-5건 거부한 학술지가 4종이었다.

7. 학술지에 대한 자체 평가

편집인이 생각하는 학술지의 역할은 연구정보교류(26종), 연구활성화(17종), 교육에 도움(6종), 진료에 도움(6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논문의 질로 볼 때 외국 학술지에 실려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 논문이 10%가 넘는다고 답변한 학술지가 28종, 1-10%정도는 손색이 없다고 답변한 학술지가 30종이었다. 반면에 게재되지 말아야 할 논문이 10% 이상 섞여있다는 학술지가 6종, 1-10% 섞여 있다는 학술지가 15종이었다.

국내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자신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되는 경우가 있다는 학술지가 4종,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중복으로 게재된다는 학술지가 10종이었다.

제출되는 원고를 기준으로 논문 작성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투고규정 무시(18종), 영문초록 작성 미숙(10종), 독창성 결여(7종), 결론 유도 미숙(5종) 등이었다.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심사의 강화(18종), 재정확보(8종), 논문의 질 향상(5종) 등이 지적되었다.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편집인 협의회의 활동으로 지적된 것은, 학회지 상호 간 정보 교류(7종), 학회지 발간의 재정/기술 지원(7종), 편집/심사 등에 관한 교육(5종), 편집인 워크숍(5종), 학술지 평가(3종), 유사학술지 통합(2종), 국제 색인 기구 등재 노력(2종) 등이었다.

고 찰

1997년 발표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자료에는 96년 말 현재 우리나라 학술지가 224종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222종의 학술지명이 발행주체,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70종 학술지는 222종에 누락된 14종이 추가되어 있다. 두 가지 조사를 합하면 1996년 말 현재 236종의 의학계 학술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전

표3 1997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가 집계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목록과 이번 조사에 포함된 70개 학술지의 분류 방법 비교

222개 학술지	70개 학술지	대학학술지 (n=9)	전문학술지 (n=29)	세부전문 학술지 (n=30)	기타 (n=2)	222개에 포함되지 않은 학술지
의과대학 학술지(n=31)		9(2)				동국의학, 아주의학
전문 및 세부전문	기초계(n=10)		5			
	임상계(n=22)		15			
	내과계 세부(n=20)		4	6(3)		대한간학회지, 대한피부연구학회지, 대한노인병학회지
	외과계 세부(n=16)		1	11(5)	1	대한기관식도학회지,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대한남성과학회지, 대한미세수술학회지, 대한중환자학회지
	소아과계 세부(n=5)			1		
	정신과계 세부(n=8)			3		정신신체의학, 한국정신치료학회지
	방사선과계 세부(n=28)			4(2)		
	기초의학계 세부(n=28)		4	1		
	기타 세부(n=5)			3(2)	1	대한의료정보학회지, 대한유전학회지
협회(n=18)				1		
병원(n=17)						
기타	연구소(n=30)					
	군진계(n=3)					
	상업계(n=3)					

문성에 따라 종합학술지 81종, 전문학술지 51종, 세부전문학술지 104종으로 분류하였다(표4). 이번 조사에 응한 70종의 학술지가 의학학술지 전체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주요 학술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차후 실시될 현황 조사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며 비교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전문학술지의 27.6%, 세부전문학술지의 90%가 1981년 이후에 창간된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는 1983년 총 126종의 의학학술지 중 전문학술지 30종, 세부전문학술지가 합계 20여 종⁷ 이던 것이 1996년말에는 총 224종의 의학학술지 중 전문학술지 32종, 세부전문학회 88종²으

표4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목록(괄호안의 수는 창간연도-종간연도)

종합학술지

• 대학 발행의 종합학술지 30종

Seoul J. Medicine ('55-'95),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논문집('57-), 경북의대잡지('58-), 부산의대학술지('59-), Yonsei Medical J.('60-), 고려대학교의과대학논문집('64-), 전남의대잡지('64-), 연세의대논문집('68-'87), 충남의대잡지('74-), 중앙의대지('75-), 경희의대논문집('76-), 전북의대논문집('77-), 이화의대지('78-), 순천향대학 논문집('78-), 인제의학('80-), 한양의학술지('81-), 계명의대논문집('82-), 조선대학교의대논문집('83-), 영남의학술지('84-), 고신대학의학부논문집('85-), 원과의과학('85-), 연세의대학위논문집('88-), Chonnam J Medical Science ('88-), 원주의대논문집('88-), 동아의학술지('89-), 건국의과학학술지('91-), 울산의학술지('92-), 인하의학술지('94-), 동국의학('94-), 아주의학('96-).

• 병원발행의 종합학술지 20종

한국의과학('69-), 한일병원임상잡지('70-), 적십자병원지('74-), 예수병원학술지('77-), 高醫('77-), 乙支醫報('78-), 원자력병원연구논문집('79, '89-), 위생의보('80-), 인천기독교병원지('81-), 인천길병원('81-), 인건과학('81-), 세종의학('84-), 침례병원학술지('84-), 경의의학('85-), 지방공사인천병원논문집('85-), 성분도병원논문집('85-), 제일의학('86-), 일신기독교병원논문집('86-), 강남병원임상연구논문집('88-), 메리놀병원논문집('91-).

• 각종 협회 발행 종합학술지 18종

대한의사협회지('49, '58-), 항공의학('53-), 부산의사회지('65-), 보건장학회연구논문집('68-), 한국가톨릭병원협회지('69-), 한국가톨릭의사협회지('69-), 대한병원협회지('72-), 그리스도와 의료('74-), 대한군진의학학술지('74-), 대한보건협회지('75-), 한국여자의사회지('76-), 해양의학('77-), 나('78-), 인삼연구('79-), 인천시의사회지('82-), 마산시의사회지('83-), J. Korean Medical Science ('86-), 의료와 선교('91-).

• 연구소발행 종합학술지 9종

국립보건연구원보('47, '64-), Bulletin of the Clinical Research Institute ('73-), 국립환경연구소보('80-), 보건사회논문집('81-), 가톨릭암센터논문집('87-), 국립안전연구원보('88-), 보건환경연구소보('90-), 감염병발생정보('90-), 국립과학수사연구소년보(부정기).

• 사설 단체 발행 종합학술지 4종

최신의학('58-), 중앙의학('61-), 녹십자의보('73-), 진단과치료('81-)

전문학술지

• 기초의학계열 11종

대한미생물학회지('58, '61, '68-), Korean J. Parasitology ('63-), Korean J. Biochemistry('64-), Korean J. Pharmacology ('65-), Korean J. Physiology ('67-), 대한병리학회지('67-), 예방의학회지('68-), 대한해부학회지('68-), 대한법의학회지('77-), 의공학회지('80-), 의사학('92-).

• 임상의학계열 24종

대한내과학회잡지('49, '58-), 소아과('58-),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58-), 대한안과학회잡지('58-),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58-), 외과학잡지('59-), 대한피부과학회지('60-), 대한비뇨기과학회잡지('60-), 신경정신의학('62-), 대한방사선의학회지('64-), 대한정형외과학회지('66-), 대한핵의학회잡지('67-), 대한마취과학회지('68-), 대한흉

부외과학회지('68-), 대한신경외과학회지('72-), 대한재활의학회지('72-), 대한성형외과학회지('74-), 가정의학회지('80-), 대한입상병리학회지('81-), 대한신경과학회지('83-), 대한치료방사선과학회지('83-), Korean J. Internal Medicine ('86-), Korean J. Ophthalmology ('87-), Annals Dermatology ('89-).

• 전문분야계열 15종

결핵 및 호흡기질환('54, '63-), 대한혈액학회지('66-), 대한암학회지('66-), 대한소화기병학회지('68-), 감염('69-), 순환기('71-), 당뇨병('72-), 한국노년학회지('80-), 알레르기('81-),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81-), 대한신장학회지('82-), 대한내분비학회지('86-), 대한이식학회지('87-), 대한응급의학회지('90-), 대한류마티스학회지('94-).

• 사회의학계열 1종

의학교육('71-).

세부전문학술지

• 기초의학계열 15종

한국전자현미경학회지('69-), Yonsei Reports on Tropical Medicine ('70-), 대한바이러스학회지 ('71-), 고려인삼학회지('76-), 대한면역학회지('79-), 임상병리와 정도관리('79-), 한국환경성독물연변이발암학회지('81-), 한국독성학회('85-), 한국패류학회지('85-), 체질인류학회지('88-), 대한세포병리학회지('90-), 의학물리('90-), 임상약리학회지('93-), 대한의료정보학회지('95), 대한유전의학회지('97).

• 내과계열 14종

대한나학회지('60, '67-), 수혈('80-), 대한화학요법학회지('83-), 결핵연구소보고('87-), 부산지방내과학회지('87-), 대한수혈학회지('90-), 한국노화(老化)학회지('91-), 한국지질(脂質)학회지('91-), 한국BRM학회지('92-), 대한비만학회지('92-), 한국지혈혈전학회지('94-), 대한피부부연구학회지('94-), 노인병('97-), 대한간학회지 ('95-).

• 외과계열 15종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지('78-), 대한남성과학회지('83-), 대한항문병학회지('85-), 대한두경부종양학술지('85-), 대한맥관외과학회지('85-), 대한음성언어의학회지('85-), 부산외과학회지('85-), 대한구급의학회지('86-), 대한중환자의학회지('86-), 대한외상학회지('88-), 대한통증학회지('88-), 임상이비인후과('90-), 대한미세수술학회지('92), 대한소아외과학회지('95-), 대한기관식도과학회지('95-).

• 소아과계열 6종

부산소아과('88-), 소아청소년정신의학('90-),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91-), 대한소아신경학회지('93-),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지('94-), 대한신생아학회지('94-).

• 산부인과계열 4종

대한불임학회지('74-),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지('89-), 대한주산의학잡지('90-), 대한부인종양학포스토프과학회지('90-).

• 정형외과/재활의학계열 12종

스포츠과학연구보고서('64-), 재활('69-), 재활연구('75-), 재활과학연구('79-), 대한스포츠의학회지('83-), 대한골절학회지('89-), 대한슬관절학회지('89-), 대한고관절학회지('89-), 장애아동연구소논문집('92-), 대한골대사

학회지(94-), 대한척추외과학회지(94-),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95-).

• 정신과계열 14종

정신의학(76-), 정신건강연구(83-), 한국정신치료학회지(84), 원광정신의학(85-), 임상예술(85-), 심성연구(86-), 한국임상성학회(89-), 대한정신약물학회지(90-), 정신분석(90-), 정신병리학(92-), 부산정신의학(92-), 정신신체의학(93-), 수면정신생리(94-), 스트레스연구(94-).

• 방사선과학계열 5종

방사선방어학회지(76-), 대한초음파의학회지(82-), 대한의학레이저학회지(84-), 한국심초음파학회지(93-), 화상연구(93-).

• 사회의학계열 19종

보건학논집(64-), 한국의산업의학(64-), 인구문제(55-), 한국의학도서관(74-), 의료보험(78-), 한국의학교육(89-), 보건행정학회지(91-), 한국농촌의학회지(76-), 한국보건통계학회지(76-), 한국인구학회지(77-), 한국역학회지(79-), 병원연구(82-), 연세보건(82-), 한국보건교육학회지(83-), 보험의학회지(84-), 보건법률(84-), 대한산업의학회지(89-), 국민보건연구소연구논총(89-), 산업보건연구논문집(89-).

로 세부전문학술지가 크게 늘어났다는 그간의 보고들과 합치한다. 80년대 이후 의학학술지의 수적 팽창은 세부전문학술지가 주도하고 있다⁴.

이와 더불어, 연간발행 호수 등을 전문학술지와 세부전문학술지 간에 비교하면(표 1), 세부전문학술지는 의학학술지의 규모 영세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적 팽창과 규모의 영세화라는 이 같은 현상은 여러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세부전문화를 가속해온 의학계의 과도기적 현상일 수도 있으나, 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팽창경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각 학술지의 장점을 살리는 특성화를 비롯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간행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독자층과 투고 논문을 고려한 학술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세부분야학술단체가 학술지를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관련 분야 학술지의 일정 지면을 할애받기로 계약하고 분야편집자를 맡아 편집주체로 참여하는 등, 공동의 노력으로 보다 좋은 학술지를 만들어나가는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과 조정도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전문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 종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4.2%인데 비하여 세부전문학술지는 12.8%였다(표 2). 원저의 게재목적이 새로운 연구성과의 발표에 있다면, 종설의 게재목적은 기존에 밝혀진 학술 정보를 정리하여 전달하는 데에 있다. 세부전문학술지에 종설이 더 많이 실리는 이유는 투고 논문이 부족하고 새로운 지식의 발표보다는 의사 재교육의 방편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세부전문학술지의 독자나 투고자층이 전문학술지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학술지와 차별성을 갖지 못하여 학술지로서의 기반이 약하고 독자층도 취약한 상태이다⁴. 학술지에서 종설의 게재가 운영 방침과 필요성에 의하여 결정 되겠지만 세부전문학술지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종설 게재를 통한 적극적인 독자 확보가

추진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재정조달 방식을 보면, 우리 나라 의학학술지는 대부분의 수입을 학회부담금(회비, 기부금 등), 광고비, 외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선진국의 의학학술지들은 대부분의 재정을 독자구독료로 충당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게재료는 기타 항목(9%)으로 취급되어 상세한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초록집 발간비 등이 편집인을 거치지 않고 인쇄업자나 출판사에게 직접 전달되는 예가 적지 않은 그간의 관행을 고려할 때 전체 재정 중 실제로 저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술지의 수입원이 학회 예산이나, 광고, 저자의 게재료에 의존하는 현실이 독자에 대한 서비스 기능이 약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⁴. 우리 나라 현실에서 일반인의 유료 구독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각 의학도서관이 유료구독을 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자가 원하는 학술지를 조사하거나, 평가 기관의 자료에 의거하여 구독 학술지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읽히는 학술지를 만드는 것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레이아웃과 충실한 내용 편성, 신속 정확한 정보전달의 기능을 통하여 학술지가 개선되고 좋은 학술지가 도서관에 의하여 선택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학술지 및 학문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에서 학술지 발간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학술지를 난립시켜 학술지의 의미를 왜곡하고 결국은 학술지와 학문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역기능이 있음을 강조한다.

기관 및 도서관 배포의 비율이 각 그룹 내에서도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기관 및 도서관 배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없이 비효율적으로 배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꼭 필요한 곳에 없거나 불필요한 곳에서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의학학술지와 전문학술지, 세부전문학술지별로 필수적인 배포처에 관해서는 향후 편집인협의회 등에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독자반응에 무관심한 잡지가 조사대상 잡지의 74%나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과학자의 목표가 과학적 진리의 발견과 그 발견의 입증에 있다고 할 때, 학술지의 존재목적은 과학자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다¹⁰. 따라서 각 학술지는 목표로 설정한 독자층과의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아니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은 학술지가 성립하는 기본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나라 의학학술지는 저자의 부담금과 외부 지원금에 의존하면서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약한 것이 현실이다.

잡지의 발행 주체인 발행인(학회 발간 학술지의 경우는 학회)과 편집인, 저자, 독자의 관계에서 편집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학술적으로 우수하고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학술지를 만드는 간행정책을 견지함으로써 잡지를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편집실무의 노하우는 하루 아침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인에게는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적 임기가 필요하지만 우리 나라 의학학술지에서는 이것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집책임자의 중임이 가능한 잡지가 34.2%라고는 하지만 조사 당시 편집인의 임명

시기가 대부분 94-96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략 2-3년마다 편집인이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편집의 일관성과 전문성 유지에 필요하다고 산정된 10년 정도의 임기⁵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현실은 학술지 편집인을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명예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문인으로서의 사명감에서 지속적으로 학술지를 위해 노력하는 편집책임자가 있어야 학술지가 발전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책기구인 발행인과 학술행위를 하는 편집위원회의 개념¹⁰이 혼동되고 있는 잡지도 적지 않으며, 편집인으로서의 독립성이 강조되어 지속적인 학술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호심사는 학술지 평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척도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는 외형상 63%가 모든 접수 논문에 대하여 상호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심사의 결과는 '심사완료 게재(32%)'와 '수정확인 후 게재(4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분히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심사결과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응답을 하지 않은 잡지를 제외한 54종의 잡지 중에서 36종은 제출된 논문을 모두 게재하였으며, 3건 이내의 논문을 거부한 학술지가 14종, 4-5건을 거부한 학술지가 4종이었다. 우리나라의 학술지에 어느 정도의 게재 거부율이 적당한지 조사된 바 없으나 외국학술지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논문의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인용한다면 현재의 학술지 수준에서 50% 정도는 되어야 좋은 논문만 선별한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좋은 정보를 선별해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학술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논문의 질에 대한 엄격한 심사만이 아니라 제출된 논문이 우리 잡지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그런 류의 논문을 찾을 때 사람들이 어느 잡지를 머리 속에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인지 등의 요소에 대한 숙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조사에 참여한 70종의 학술지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 참여하는 학술지이고, 나름대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학술지라고 생각한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술지는 더 취약할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나라의 학술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학술지에 대한 평가 사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학술지의 개선 노력을 돕고 개선을 위한 학술지 정책의 적용을 위해서는 3-4년에 한 번 정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 론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실시한 1996년도 현황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학술지에서 발간하는 논문의 양과 학술지 발간에 투자되는 규모는 적지 않으나 좋은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기능이 부족하며, 효율

적인 경영을 위한 기획과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학술지의 수준을 평준화하거나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게재 거부율 등의 척도를 적용하는 학술지 평가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⁹, 평가 기준 설정을 위한 현황 조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의학학술지 편집정책과 편집실무에 관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 약

필자들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가 1996년 11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국내 70종의 의학학술지에 대해 우편설문으로 수집한 현황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작 및 발송관련 비용이 총 지출의 85%를 차지하여 학술지의 영세성을 드러냈다. 연간발행호수, 면수, 게재논문 수의 측면에서 볼 때 영세성은 세부전문학술지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수입면에서 독자구독료는 4%에 불과했으며, 학회 예산과 광고비, 외부보조금에 의존도가 높았다.

배포는 비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독자의 반응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판단되는 잡지가 전체의 74%를 차지하였고 독자설문조사, 독자투고 등을 통해 독자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잡지는 7종에 불과하였다. 전문의 고시나 학위논문 관련 투고 의무규정을 둔 잡지가 35.7%로 나타났고, 1차 심사의 게재거부율은 4%로 나타나 투고 논문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편집인의 임기는 2-3년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어 편집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필자들은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간행전략이 전반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고 개정이나 내용편성의 측면에서 독자에게 의존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독자층이 얇은 세부전문학술지의 경우 특성화 전략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대한의학회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같은 단체가 의학학술지의 전반적인 간행전략을 수정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문헌

1.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기획평가위원회: 국내의학학술지 평가기준(안).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1997년도 정기총회자료집. 1997; pp8-15.

2.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현황. 1997년도 정기총회자료집. 1997; pp16-19.
3.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의학학술지 현황조사. 1997.
4. 서정욱: 우리나라 의학잡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한의학회,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1992; pp35-44.
5. 서정욱: 의학학술지의 발행인과 편집인. Seoul J Medicine 1995;36:245-240.
6. 이춘실: Science Citation Index (SCI)가 색인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의학논문들: 1990-1995. 대한사협회 연구결과보고서. 1997.
7. 전중휘: 의학도서 및 의학잡지(~1983). 대한의학회, 현대한국의학사, 1988; pp265-378.
8. 조승열: 우리나라 의학잡지의 당면과제. 대한의학회, 국내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워크숍, 1989; p8.
9. 조승열: 의학학술지 평가사업의 배경 및 취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국내 의학학술지 시범 평가회 및 한국 메드라인 사업계획 설명회 1997; pp1-3.
10. Debaeky L: The Scientific Journal: Editorial Policies and Practices, Guidelines for Editors, Reviewers and Authors. C.V. Mosby, St. Louis, 1976; pp1-10.
11. Detmer DE: Knowledge: A mountain or a streams? Editorial, Science 1997; 275:185.